

통합치료연구

제6권 제1호

한국통합치료학회

한국통합치료학회 임원진

회 장 : 선우현(명지대학교)

부 회 장 : 홍혜영(명지대학교)

총 무 : 곽은미(명지대학교)

편 집 위 원 회 : 강순미(백석예술대학교) 심혜원(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국제교류위원회 : 권수진(Maryville University)

윤 리 위 원 회 : 이은경(명지대학교) 최광현(한세대학교)

홍 보 위 원 회 : 송민애(연세대학교) 유경훈(숭실대학교)

학 술 위 원 회 : 최예린(명지대학교) 조민자(고려대학교)

간 사 : 임대준 양민교 공정윤

감 사 : 김수지(이화여자대학교) 김은연(명지대학교)

〈차 례〉

-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및 역전이 관리 능력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강소영·선우현 5
 - 글 없는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치료
송은실·선우현 31
 - 초등학교 고학년의 속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에 관한 연구
이지연·최예린·김은연 53
 - 군 간부 및 병사의 상담에 대한 인식 -접경지역(GP, GOP) 내 부대를 중심으로-
정용철·홍혜영 75
 -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등교거부경향성의 관계에서 사회불안과 자기결정동기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
정진희·홍혜영 107
-
-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 134
 - <별첨 2> 투고규정 / 137
 -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 138
 -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 145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및 역전이 관리 능력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강소영·선우현*
명지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자의 심리적 소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방책을 모색하고자 놀이 치료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및 역전이 관리능력이 심리적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놀이치료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관리능력, 심리적 소진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놀이치료자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일반적 특성과 자기효능감, 역전이 관리능력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결혼을 한 놀이치료자와 역전이 관리능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적게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관리능력을 높이고 심리적 소진을 낮출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들을 알아보았고, 놀이 치료자의 심리적 소진에 일반적인 특성과 자기효능감, 역전이 관리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심리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핵심어 : 놀이치료자, 심리적 소진, 자기효능감, 역전이 관리능력

* 교신저자: 선우현(johann02@naver.com)

■ 게재 신청일 : 2014년 7월 23일 ■ 최종 수정일 : 2014년 8월 5일 ■ 게재 확정일 : 2014년 8월 10일

I. 서론

유쾌하고 재미있는 놀이는 내면에서부터 자발적으로 나타나며 상징이나 은유로 표현되며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놀이는 치료관계를 맺고 치료효과를 증진시키는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다(홍은주 외, 2010). 아동은 놀이에 빠져들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세계를 공유하면서 놀이에 의미를 부여하고 놀이치료자는 아동의 정서, 사고나 욕구 등이 놀이 구조 안에서 재연되어 아동이 말하려는 것과 느끼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Chazan, 2012). Landreth(2002)는 놀이치료란 아동과 놀이치료자 간의 역동적인 대인관계로, 훈련된 놀이치료자는 놀이를 통해 아동이 자기(self)를 탐색하며 충분히 표현하도록 돕고, 안전하게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는 적합한 놀이도구를 선택하여 제공한다고 하였다. 즉, 놀이는 그 자체로도 치료적 효과가 있지만 놀이치료자와의 관계에서 내담아동이 적응적으로 기능하며 성장하도록 돕는다.

국내에서 놀이치료에 대한 요구와 인식이 높아지고 점차 놀이치료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놀이치료자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검증 및 훈련을 필요로 한다(김예주, 이윤주, 2012). 치료적 도구로서의 놀이치료자는 치료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데 주요한 인간적 자질과 태도(Corey & Corey, 2008)를 기르고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발전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놀이치료자는 보다 깊은 인내심이 요구되고 아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다양한 문화와 경험에 민감해야하지만(김선영, 2012) 아동의 부모 및 가족, 또래, 교사 등 아동을 둘러싼 여러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아동을 위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하는 다양한 능력들의 요구로 인해(박희현, 2008) 심리적 소진을 크게 경험한다.

‘심리적 소진’이란 Freudenberger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고, 다른 사람과 오랜 기간 집중해서 관계를 맺는 작업에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압력으로부터 발생한 신체적·정서적·정신적 피로 상태를 의미한다(Corey & Corey, 2008). 놀이치료자는 자신의 개인내적인 특성뿐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와 작업환경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로 어려움을 느끼며, Skovholt와 Trott-Mathison(2011)는 놀이치료자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의미를 갖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경험하는 정서적인 고갈과 부정적인 에너지로 내담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다 효과적인 놀이치료의 수행을 위해 심리적 소진을 줄이는 변인들을 살펴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

치할 수 있는 예방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놀이치료자의 심리적 소진 연구는 놀이치료자, 내담아동, 놀이치료 업무환경의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심리적 소진이 발생함을 반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심리적 소진은 놀이치료자의 개인내적 특성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박희현(2005)은 놀이치료자의 자존감, 성격유형, 역전이 관리능력의 개인내적 변인이 심리적 소진을 덜 느끼게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김지선과 이영애(2012)는 “Freudenberger(1974)와 Maslach(1982)가 놀이치료자의 정서적 표현, 삶의 가치나 방식의 개인적 특성들이 심리적 소진을 야기하는 외적 요인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함을 밝히며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심리적 소진을 줄일 수 있는 환경요인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심리적 소진에 쉽게 빠지지 않는 역량을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는 접근이 필요하다.

Maslach, Schaufeli와 Leiter(2001)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이기보다 이를 직면하고 활기 있게 대처하려는 사람은 심리적 소진을 적게 경험하며, 이 때 효능감 요인이 관련된다고 하였다. 놀이치료 장면에서의 자기효능감이란 효과적인 놀이치료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홍수현, 2001)을 의미한다. 놀이치료자의 높은 자기효능감은 지지와 격려, 건강한 인간관계에서 재충전되어 성공 경험을 돕고(최성희, 2010; 전정미, 임혜인, 최명선, 유미숙, 2006), 놀이치료에서 심리적 소진을 얻고 의미를 잃지 않게 되어 심리적 소진을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놀이치료자가 자신의 내적 역동과 더불어 내담자와의 대인관계적 역동을 탐색하여 이를 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역전이 관리능력을 통해 내담자를 돌보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 사이의 딜레마에서 균형을 유지하며(Skovholt & Trott-Mathison, 2011) 내담자에게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놀이치료자가 경험하게 되는 역전이는 여러 이론들의 영향으로 변화하였고 최근에는 놀이치료자가 과거나 현재에 경험한 자신의 갈등과 욕구에 의해 내담자에게 보이는 내적 혹은 외부적 반응으로 보고 있다(Schendel, 2010). 놀이치료자는 내담 아동의 행동 지향적이거나 퇴행적인 특성, 양육이나 보호 또는 책임감, 그리고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염려, 놀이치료자 자신의 자기애적인 욕구로 인한 의도치 않은 반응에 대한 염려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Bonovitz(2009)는 놀이치료자가 경험한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 Shur(1994)는 성인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치료자가 더 강렬한 역전이를 느낄 수 있다”고 윤선재(2012)는 설명하였다. 따라서 놀이치료자는 역전이 관리능력을 높여 자신을 치료적 도구로서 활용

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Gelso, Latts, Gomez와 Fassinger(2002)는 만약 놀이치료자가 자신의 역전이 반응을 관리하지 못하면 치료적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놀이치료자들의 미해결된 갈등들이 행동화되어 내담자와의 놀이치료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놀이치료자가 자신의 내적 반응에 따른 행동들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해 낮은 역전이 관리능력을 보이게 되면 놀이치료자라는 직업을 무의미하게 여기게 되어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담자와의 관계형성에 방해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관리능력 간의 관계를 밝힌 이윤수(2001), 윤선재(2012), 최지영과 이영애(2009)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놀이치료자는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를 판단하는 능력을 스스로 믿음으로써 상태 불안 수준이 낮아져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역전이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 즉 심리적 소진에 유의미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정한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관리능력 간에도 상호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소진을 줄이는 실천적인 예방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심리적 소진에 부적 영향을 주는 놀이치료자의 개인내적인 변인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기를 잃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과 내담자와의 역동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역전이 관리능력을 가정하여 심리적 소진에 쉽게 빠지지 않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놀이치료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기효능감, 역전이 관리능력, 심리적 소진은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 2. 놀이치료자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놀이치료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및 역전이 관리능력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자기효능감

Bandura는 ‘자기효능감’이란 수행적·대리적·사회적·생리적인 다양한 효능감 정보 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며(노안영, 2011 재인용) 네 가지 정보

원으로 성공경험, 사회적 모델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잘못 인식한 신체적인 상태를 수정하는 것을 제시하였다(Bandura, 2004).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이란, 효과적인 놀이치료를 위해 요구되는 활동들을 조직하고 그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놀이치료자로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홍수현, 2001)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놀이치료의 과정과 그 성과 요인을 분석한 김은숙(2009)은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이 놀이치료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최성희(2010)는 슈퍼바이저의 교육과 피드백이 슈퍼바이저의 내담자와의 성공경험을 높이고, 슈퍼비전에서의 역할극은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대리경험을 가능케 한다고 하였다. 천혜숙과 유미숙(2010)은 놀이치료자가 자신들의 두려움, 어려운 문제들, 걱정거리, 혼란스러움과 갈등들을 슈퍼바이저에게 지지와 격려를 얻음으로써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가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신체를 약화시키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지만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건강을 촉진하는 행동을 취하게 한다. Bandura(2004)는 지각된 대처 효능감이 강화된 후에 그들은 그 어떤 스트레스, 내장 동요,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이 활성화되지 않고 똑같은 스트레스 유발 인자를 다룰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놀이치료자의 활기를 박탈하는 심리적 소진을 덜 느낄 수 있다고 밝힌 오숙경(2013)과 전정미 등(2006)의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놀이치료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전문적인 경험과 교육에 따라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이경과 김광웅(2005), 이윤수(2001)는 슈퍼비전을 많이 받고 교육 분석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놀이치료자의 성공경험을 독려하는 전문적인 교육 등을 제공하고, 놀이치료를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모델링과 지지와 격려 등의 언어적인 설득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으며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위해 놀이치료자가 쉽게 활기를 잃지 않도록 자신의 신체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2. 역전이 관리능력

놀이치료 장면에서 놀이치료자는 내담자로부터 파생된 역전으로 인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반응들을 보인다(노안영, 2011; 이무석, 2003). 역전이 개념을 처음 제시한 Freud는 놀이치료자의 미해결된 오이디푸스 갈등으로 여겼고(김진숙, 2001; Cashdan, 2005) 대상관계이론가들은 역전이는 내담자의 투사적 동일시와 연루되

어 그 안에 새겨진 메타커뮤니케이션에 놀이치료자가 정서적으로 반응하도록 허용하여, 내담자에게 더 깊은 공감을 돕는다고 하였다(Cashdan, 2005). 즉, Schendel(2010)은 “Gelso와 Hayes(2007)와 같이, 놀이치료자가 경험한 과거나 현재의 정서적 갈등과 취약성에 의한 놀이치료자의 내적 혹은 외부적 반응을 역전이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내적 반응은 놀이치료자의 다양한 생각과 감정으로, 외적 반응은 놀이치료자의 행동으로 나타나며, 김지은(2005), Peabody와 Gelso(1982)은 “Hayes 등(1998)에 따르면, 역전이 행동으로 회피·철수행동, 접근반응, 치료계획하기가 있다”고 하였다.

‘역전이 관리능력’이란, “Gelso와 Hayes(2001)가 밝힌 바와 같이,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치료과정에 활용했던 내담자에 대한 치료자의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이다(Schendel, 2010). Fatter와 Hayes(2013)에 따르면, “Van Wagoner, Gelso, Hayes와 Diemer(1991)가 밝힌 놀이치료자가 역전이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주요한 다섯 가지 개인적 특성”으로, 첫째, 자기통찰(self-insight)은 놀이치료자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둘째, 자기통합(self-integration)은 놀이치료자가 손상되지 않은 안정된 건강한 성격구조를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놀이치료자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동시에 자신의 욕구를 지연시켜 내담자를 도울 수 있는 능력 역시 포함된다. 셋째, 공감능력(empathy ability)은 놀이치료자가 내담자의 경험한 정서적 내용에 부분적인 동일시를 보이지만, 이러한 동일시에 빠져들지 않고 내담자와 자신을 분리하여 구분하는 능력을 말한다. McWilliams(2008)에 따르면, 공감은 ‘내담자가 느끼는 그것을 바로 느낄 수 있는 놀이치료자의 역량’이며, 높은 공감능력을 지닌 놀이치료자는 내담자로부터 발생한 갈등적인 감정에 개방적으로 반응하지만 특정한 문제를 지닌 내담자에게 역전이 반응이 덜 나타나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Peabody & Gelso, 1982). 넷째, 불안관리(anxiety management)는 놀이치료자가 불안을 분명히 인식하고 통제하여 이를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안에는 놀이치료과정에서 경험한 일시적인 불안과 더불어 만성적인 불안 모두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개념화 기술(conceptualizing skills)은 놀이치료자가 내담자의 과거뿐만 아니라 놀이치료 관계에서 일어나는 내담자의 역동을 개념화하는 정도를 뜻한다. 또한, 놀이치료자의 역전이 관리능력과 관련 있는 놀이치료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정숙과 양정화(2009)는 놀이치료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훈련을 받은 놀이치료자가 높은 수준의 역전이 관리능력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놀이치료자를 치료적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놀이치료자가 역전이에 의해 어떠한 감정을 일으키고 어떠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지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놀이치료 과정에 대한 확

신을 바탕으로 주변의 피드백으로부터 자기(self)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3. 심리적 소진

‘심리적 소진’은 1974년에 Freudenberger에 의해 소개되었고 Freudenberger는 ‘심리적 소진’이란, 직업 장면에서 경험한 신체적·정서적 탈진 상태를 의미하며, 과도한 요구에 의해서 에너지나 힘 또는 자원을 만들어내는 데에 실패하여 지치고 고갈되어 버린 상태라고 하였다(Skovholt & Trott-Mathison, 2011). 특히 서비스 계통에서 사람들과 오랜 시간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직종에서 상당한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으며(Maslach & Goldberg, 1998), 이로 인한 무력감이나 절망감을 보이거나 화가 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Skovholt와 Trott-Mathison(2011)은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발생한 심리적 소진(meaning burnout)과 돌봄을 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심리적 소진(caring burnout)으로 구분하였다. 놀이치료자가 일방적인 돌봄을 제공하면서 놀이치료자는 외부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해 심리적으로 소진되어 내담자와의 관계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내담자와의 만남이 고갈이 아닌 에너지를 얻고 활기를 유지한다면 적극적인 몰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Maslach et al.(2001)은 심리적 소진을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인 ‘정서적 고갈’, 대인관계적 요인인 ‘비인간화’, 자기평가적 요인인 ‘개인적인 성취감 감소’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를 우리나라 놀이치료 장면에 적용하여 적절하고 구체적인 하위요인을 발견하고 타당함을 확인한 박희현(2005)에 따르면, 첫째, 정서적 소모는 Maslach et al.(2001)의 정서적 고갈과 유사하며, 놀이치료자가 놀이치료과정에서 갖는 일에 대한 싫증, 정신적인 피로감 및 탈진감, 놀이치료에 대한 관심 및 흥미를 잃는 것 등을 나타낸다. 둘째, 직업에 대한 회의는 개인적 성취감의 감소와 관련하여, 놀이치료라는 일에 있어서의 자신감을 잃고, 낮은 사기를 보이며, 놀이치료자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와 갈등을 뜻한다. 셋째,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놀이치료자의 놀이치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회피와 거부 등을 가리킨다. 넷째,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은 심리적 소진을 겪는 놀이치료자가 그 가족이나 동료집단 또는 그밖에 다른 대인관계들로 확대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체화 증상은 놀이치료자가 심리적 소진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육체적 질환이나 신체적인 장애 등을 의미한다. 국내의 놀이치료자의 심리적 소진 연구 역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개인내적 특성,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놀이치료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소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선영(2012)과 고은하(2001)는 기혼의 놀이치료자가 심리적 소진을 적게 느낀다고 하였지만 박희현과 김광웅(2006)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고, 고은하(2001)는 슈퍼비전 등의 교육 및 훈련을 많이 경험했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적게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Maslach et al.(2001)은 사람들마다 심리적 소진과 관련된 직업 환경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는 개인적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놀이치료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다.

4. 자기효능감, 역전이 관리능력, 심리적 소진

여러 연구들에서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소진은 부적 관계,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이 낮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희(2010)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놀이치료자는 직업적 회의감을 적게 느끼며 놀이치료의 수행에 대한 두려움 또는 부정적인 태도가 덜 하다고 하였다. 전정미 등(2006)은 놀이치료자가 세부상담 기술을 잘 한다고 느끼는 자신감으로부터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잘 느끼지 못하며 어려운 내담자의 행동을 잘 다룰수록 많은 정서적 소모를 겪는다고 하였다.

역전이 관리능력과 심리적 소진의 관련 연구들에서 상호관련성이 밝혀졌다. 김명아(2010)는 초심 놀이치료자일수록 여러 어려움을 겪고 다소 위축되는데, 초심 상담자의 높은 역전이 관리능력은 상담을 지속하는 원동력이 되어 심리적 소진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박희현과 김광웅(2006) 역시 심리적 소진에 대해 역전이 관리능력이 영향을 미치며, 자기통찰이 높으면 감정이입을 잘 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민감하여 자신의 심리적 소진을 쉽게 알아차리지만 공감능력을 갖춘 놀이치료자는 상담관계를 촉진하여 놀이치료 효과를 높이기 때문에 심리적 소진 경험에 쉽게 빠져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영순(2010)은 놀이치료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보이는 놀이치료자가 역전이 관리능력과 상담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김지영(2007)는 개인적 성취감은 불안관리 능력을 낮아지게 하며, 불안관리 능력은 놀이치료자의 개인적 노력과 사회적 기반의 마련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역전이 관리능력에 자아기능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김경옥, 김광웅, 2003; 신교숙, 김광웅, 2001; 이영순, 2010). 특히 윤선재(2012)는 놀이치료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에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최지영과 이영애(2009) 역시 자기효능감이 높은 놀이치료자가 놀이치료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전이를 관리하는

능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놀이치료자가 자신의 내면세계에 민감하게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여 효과적으로 놀이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고, 자아 관련 변인 중 특히 자기효능감은 역전이 관리능력을 높이는 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놀이치료자들의 심리적 소진에 그들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관리능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심리적 소진으로 인한 놀이치료의 어려움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경기·인천 지역 소재의 아동상담센터, 복지관, 병원, 청소년상담센터, 대학부설 상담실 및 놀이치료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86명의 놀이치료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연령은 24~29세와 30~34세는 37.2%의 같은 비율로 가장 높았고, 35~39세는 14.0%, 40세 이상은 11.6%이었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54.7%, 기혼이 45.3%이었다. 학력은 석사졸업이 61.6%로 가장 많았으며, 학사졸업 및 석사과정이나 수료는 30.2%, 박사 수료 이상은 8.1%이었다. 놀이치료 경력은 100사례 이상이 32.6%로 가장 많았고, 31~100사례가 30.2%, 11~30사례가 24.4%, 11사례 미만이 12.8%이었다. 슈퍼비전은 11회기 미만이 53.5%로 가장 높았고, 11~30회기가 19.8%, 51회기 이상이 17.4%, 31~50회기가 9.3%이었다. 교육 분석은 11~40회기가 37.2%로 가장 높았고, 11회기 미만이 52.3%, 41회기 이상이 10.5%이었다. 주 당 근무시간은 총 25시간 이상이 33.7%로 가장 높았고, 13~24시간이 39.5%, 총 13시간미만이 26.7%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86)

변인	구분	N	%
연령	24세 ~ 29세	32	37.2
	30세 ~ 34세	32	37.2
	35세 ~ 39세	12	14.0
	40세 이상	10	11.6
결혼 여부	미혼	47	54.7
	기혼	39	45.3
학력	학사졸업 (석사 과정 및 수료 포함)	26	30.2
	석사졸업	53	61.6
	박사 수료 이상	7	8.1
놀이치료 경력	11사례 미만	11	12.8
	11~30사례	21	24.4
	31~100사례	26	30.2
	100사례 이상	28	32.6
슈퍼비전	11회기 미만	46	53.5
	11~30회기	17	19.8
	31~50회기	8	9.3
	51회기 이상	15	17.4
교육 분석	11회기 미만	45	52.3
	11~40회기	32	37.2
	41회기 이상	9	10.5
주 당 근무 시간	총 13시간미만	23	26.7
	총 13~24시간	34	39.5
	총 25시간 이상	29	33.7

2. 측정도구

가. 상담자 자기효능감 척도(COSE: Counseling Self-Estimate Inventory)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홍수현(2001)이 번안한 Larson과 동료의 “상담자 자기 평가 질문지”를 이윤수(2001)가 놀이치료 상황을 고려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세부상담 기술’, ‘상담과정’, ‘어려운 내담자 행동 다루기’이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상담자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전체 .91, 세부상담기술 .93, 상담과정 .94, 어려운 내담자 행동 다루기 .97로 나타났다.

나. 역전이 관리능력 척도(CFI: Counter-transference Factors Inventory)

놀이치료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장세미(1999)가 변안한 Van Wagoner와 동료들의 “역전이 관리능력 척도(Counter-transference Factors Inventory: CF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은 ‘자기통찰’, ‘자기통합’, ‘공감능력’, ‘불안관리’, ‘개념화기술’이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총 5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역전이 관리능력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전체 .83, 자기통찰 .91, 자기통합 .85, 공감능력 .84, 불안관리 .90, 개념화 기술 .85로 나타났다.

다. 심리적 소진 척도

놀이치료자의 심리적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박희현(2005)이 우리나라 놀이치료 장면에서 적합하게 개발한 “아동상담자 심리적 소진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적 소모’, ‘직업적 회의’,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 ‘신체화 증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총 38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심리적 소진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전체 .84, 정서적 소모 .88, 직업적 회의 .86,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 .88, 부정적 대인관계로의 확장 .90, 신체화 증상 .90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들은 2014년 3월 17일부터 4월 11일까지 약 4주간, 전문 아동상담기관, 복지관, 병원, 청소년 상담센터, 대학부설 내 상담실 및 놀이치료실에서 현재 놀이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놀이치료자 114명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E-mail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여 106부를 회수하였다. 회수한 자료들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총 20부의 자료를 제외하여 86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 역전이 관리능력, 심리적 소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사후검증으로 Scheffe를 실시하였다.

자기효능감, 역전이 관리능력, 심리적 소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소진에 대한 자기효능감, 역전이 관리능력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역전이 관리능력, 심리적 소진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기효능감, 역전이 관리능력 및 심리적 소진에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하위요인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종속변인인 심리적 소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인 결혼여부, 개인 분석, 주 당 근무시간에 따른 각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결혼여부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 분석에서는 상담과정($F=3.210,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주 당 근무시간에서는 세부 상담기술($F=8.303, p<.01$), 상담과정($F=5.671, p<.01$), 어려운 내담자 다루기($F=13.972,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역전이 관리능력의 차이는 <표3>과 같다. 결혼여부에 따른 역전이 관리능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 분석에서는 공감능력($F=3.199, p<.05$), 개념화 기술($F=4.980,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주 당 근무시간에서는 자기통합($F=3.523, p<.05$), 공감능력($F=4.390, p<.05$), 불안관리($F=8.209, p<.01$), 개념화 기술($F=4.730,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소진의 차이는 <표4>와 같다. 결혼여부에 따른 심리적 소진은 정서적 소모($t=3.176, p<.01$), 신체화 증상($t=3.124,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교육 분석에서는 정서적 소모($F=3.696, p<.05$)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 주 당 근무시간에서는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F=3.328, p<.05$), 신체화 증상($F=4.046,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N=86)

일반적 특성	구분(N)	자기 효능감 M(SD)		
		세부 상담 기술	상담 과정	어려운 내담자 다루기
결혼 여부	미혼(47)	3.29(.49)	3.18(.44)	3.35(.50)
	기혼(39)	3.42(.41)	3.36(.44)	3.41(.48)
	<i>t</i>	-1.267	-1.802	-.589
교육 분석	11회기 미만(45)	3.31(.46)	3.18(.46)a	3.31(.52)
	11~40회기(32)	3.32(.45)	3.28(.44)ab	3.38(.44)
	41회기 이상(9)	3.62(.40)	3.58(.24)b	3.67(.40)
	<i>F</i>	1.778	3.210*	1.981
주당 근무 시간	13시간미만(23)	3.04(.52)a	3.03(.57)a	2.99(.54)a
	13~24시간(34)	3.43(.38)b	3.27(.33)ab	3.43(.33)b
	25시간 이상(29)	3.49(.38)b	3.43(.39)b	3.61(.43)b
	<i>F</i>	8.303**	5.671**	13.972***

* $p<.05$, ** $p<.01$, *** $p<.001$, 사후검증: Scheffe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역전이 관리능력의 차이 (N=86)

일반적 특성	구분(N)	역전이 관리능력 M(SD)				
		자기통찰	자기통합	공감능력	불안관리	개념화 기술
결혼 여부	미혼(47)	3.55(.36)	3.53(.34)	3.39(.45)	3.33(.37)	3.30(.48)
	기혼(39)	3.47(.37)	3.57(.28)	3.48(.32)	3.48(.44)	3.44(.39)
	<i>t</i>	.920	-.477	-1.158	-1.677	-1.455
교육 분석	11회기 미만(45)	3.46(.37)	3.51(.27)	3.36(.37)a	3.44(.36)	3.28(.41)a
	11~40회기(32)	3.54(.37)	3.57(.31)	3.46(.41)ab	3.31(.44)	3.39(.44)a
	41회기 이상(9)	3.68(.29)	3.69(.46)	3.71(.38)b	3.50(.47)	3.77(.45)b
	<i>F</i>	1.554	1.402	3.199*	1.242	4.980**
주당 근무 시간	13시간미만(23)	3.45(.33)	3.42(.38)a	3.25(.40)a	3.17(.44)a	3.14(.44)a
	13~24시간(34)	3.47(.41)	3.55(.27)ab	3.45(.36)ab	3.39(.31)ab	3.47(.41)b
	25시간 이상(29)	3.61(.32)	3.65(.28)b	3.56(.39)b	3.59(.39)b	3.43(.44)b
	<i>F</i>	1.684	3.523*	4.390*	8.209**	4.730*

* $p<.05$, ** $p<.01$, 사후검증: Scheffe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소진의 차이

(N=86)

일반적 특성	구분(N)	심리적 소진 M(SD)				
		정서적 소모	직업적 회의	상담에 대한 부정적 태도	부정적 대인 관계로의 확장	신체화 증상
결혼 여부	미혼(47)	2.73(.63)	2.21(.54)	2.40(.55)	2.36(.54)	2.49(.77)
	기혼(39)	2.33(.52)	2.02(.53)	2.29(.58)	2.36(.46)	2.00(.68)
	<i>t</i>	3.176**	1.602	.850	-.061	3.124**
교육 분석	11회기 미만(45)	2.43(.67)	2.11(.59)	2.32(.55)	2.29(.48)	2.17(.82)
	11~40회기(32)	2.77(.53)	2.17(.51)	2.40(.54)	2.44(.58)	2.40(.71)
	41회기 이상(9)	2.31(.34)	2.06(.38)	2.36(.77)	2.42(.25)	2.29(.70)
	<i>F</i>	3.696*	.172	.194	.844	.818
주당 근무 시간	13시간미만(23)	2.54(.62)	2.23(.62)	2.52(.67)b	2.40(.47)	2.36(.77)ab
	13~24시간(34)	2.62(.62)	2.17(.43)	2.41(.45)ab	2.41(.47)	2.48(.85)b
	25시간 이상(29)	2.46(.61)	1.99(.58)	2.15(.55)a	2.27(.56)	1.96(.56)a
	<i>F</i>	.560	1.456	3.328*	.726	4.046*

* $p < .05$, ** $p < .01$, 사후검증: Scheffe

2. 심리적 소진에 대한 놀이치료자 특성, 자기효능감 및 역전이 관리능력의 상대적 영향력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관리능력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표<5>와 같다. 다음과 같이 자기효능감, 역전이 관리능력, 심리적 소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역전이 관리능력이 심리적 소진에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6>와 같다.

<표 5> 자기효능감, 역전이 관리능력, 심리적 소진 간의 상관관계 (N=8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자기 효능감	1	1												
	2	.863***	1											
	3	.732***	.702***	1										
역전이 관리 능력	4	.173	.206	.348**	1									
	5	.553***	.535***	.549***	.489***	1								
	6	.822***	.779***	.678***	.418***	.742***	1							
	7	.452***	.457***	.358***	.033	.595***	.570***	1						
심리적 소진	8	.777***	.680***	.683***	.360**	.631***	.817***	.371***	1					
	9	-.381***	-.338**	-.218*	-.020	-.224*	-.422***	-.329**	-.322**	1				
	10	-.382***	-.412***	-.289**	-.071	-.438***	-.470***	-.487***	-.281**	.681***	1			
	11	-.221*	-.272*	-.220*	-.121	-.295**	-.320**	-.396***	-.133	.486***	.759***	1		
	12	-.242*	-.197	-.151	-.204	-.257*	-.322**	-.159	-.162	.412***	.552***	.453***	1	
	13	-.175	-.150	-.102	-.098	-.238*	-.281**	-.262*	-.116	.562***	.554***	.477***	.428***	1

* $p < .05$, ** $p < .01$, *** $p < .001$

심리적 소진에 대한 놀이치료자의 일반적 특성은 11.7%의 설명력을 보였고($F=3.606$, $p < .05$), 결혼여부($\beta = -.275$, $t = -2.625$, $p < .05$)와 주 당 근무시간($\beta = -.215$, $t = -2.050$, $p < .05$)이 심리적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놀이치료자의 심리적 소진은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심리적 소진을 적게 느끼고, 주 당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분석은 심리적 소진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놀이치료자의 일반적 특성에 자기효능감을 추가로 투입한 모델Ⅱ는 모델Ⅰ에 비해 7.3%의 설명력을 증가시켜 19.0%의 설명력을 보였고($F=4.741$, $p < .01$), 결혼여부($\beta = -.214$, $t = -2.074$, $p < .05$)와 자기효능감($\beta = -.318$, $t = -2.704$, $p < .01$)이 심리적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심리적 소진을 적게 느끼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역전이 관리능력을 추가로 투입한 모델Ⅲ은 모델Ⅱ에 비해 5.0%의 설명력을 증가시켜 24.0%의 설명력을 보였고($F=5.064$, $p < .001$), 결혼여부($\beta = -.208$, $t = -2.062$, $p < .05$)와 역전이 관리능력($\beta = -.354$, $t = -2.310$, $p < .05$)이 심리적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결혼을 한 놀이치료자가 미혼자에 비해 심리적 소진을 적게 느끼고, 역전이 관리능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 특성 중 결혼여부와 역전이 관리능력이 특히 놀이치료자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살펴보았다.

〈표 6〉 심리적 소진에 대한 놀이치료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및 역전이 관리능력의 상대적인 영향력 (N=86)

심리적 소진	예측변인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β	t	β	t	β	t	
심리적	일반적 특성	결혼여부(기혼)	-.275	-2.625*	-.214	-2.074*	-.208	-2.062*
		교육 분석	-.017	-.159	.041	.399	.086	.833
		주 당 근무시간	-.215	-2.050	-.072	-.631	-.048	-.432
적	자기효능감			-.318	-2.704**	-.071	-.451	
	역전이 관리능력					-.354	-2.310*	
소진	F	3.606*		4.741**		5.064***		
	R^2	.117		.190		.240		
	R^2 증가량			.073		.050		

* $p < .05$,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근무하는 86명의 놀이치료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 역전이 관리능력과 심리적 소진의 차이를 살펴보고, 심리적 소진에 대해 놀이치료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및 역전이 관리능력이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확인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심리적 소진으로 인한 놀이치료에서의 어려움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밝혀 논의한 바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역전이 관리능력, 심리적 소진의 차이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은 결혼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교육 분석, 주 당 근무시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 분석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상담과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11회기 미만의 교육 분석 경험이 있는 놀이치료자보다 41회기 이상의 교육 분석 경험이 있는 놀이치료자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윤수(2001)가 교육 분석에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과 상이한 결과이지만 41회기 이상의 지속적인 교육 분석이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 당 근무시간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각 하위요인 전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세부 상담 기술과 어려운 내담자 다루기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주 당 13시간미만의 근무를 하는 놀이치료자가 낮게 나타났고 13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놀이치료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과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일주일에 13시간미만의 근무를 하는 경우보다 2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놀이치료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놀이치료자들이 대개 파트타임으로 근무함을 고려해보면 놀이치료자에게 주 당 13시간미만의 근무시간은 적은 놀이치료 케이스를 의미하여, 일주일에 적은 놀이치료 케이스를 담당하는 것은 낮은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놀이치료자의 역전이 관리능력은 결혼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교육 분석, 주 당 근무시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육 분석에 따른 역전이 관리능력은 공감능력, 개념화 기술에서 41사례이상의 교육 분석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신교숙과 김광웅(2001), 이정숙과 양정화(2009)의 공통된 결과를 확인하였다. 장세미(1999)에 따르면, Freud가 놀이치료자에게 내담자로부터 받은 자극에 의해 받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교육 분석을 제안한 이래로 많은 이론가와 놀이치료자들은 자신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놀이치료자가 교육 분석을 받는 것을 필수조건이기보다는 선택조건으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41회기 이상의 지속적인 교육 분석 경험이 놀이치료자가 내담자와의 치료적 관계에서 그들의 내면세계를 공감하고 개념화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겠다. 주 당 근무시간에 따른 역전이 관리능력은 자기통합, 공감능력, 불안관리에서 일주일에 13시간미만의 근무를 하는 놀이치료자보다 25시간 이상을 일하는 놀이치료자에게 더 높게 나타났는데, 손상되지 않은 건강한 성격구조를 유지하며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고 놀이치료 과정에서 경험한 불안을 알아차리고 이를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놀이치료자는 13시간 이상의 근무시간 및 담당하는 놀이치료 케이스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될 때 놀이치료에 대한 분명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놀이치료 과정에서의 여러 역동을 파악하여 역전이 반응을 통제하여 놀이치료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을 시사한다.

놀이치료자의 심리적 소진은 결혼여부와 교육 분석, 주 당 근무시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여부에 따른 심리적 소진은 결혼을 한 놀이치료자가 미혼인 놀이치료자보다 심리적 소진과 정서적 소모, 신체화 증상을 덜 겪는다고 나타났다. 이는 김선

영(2012), 고은하(2001)와 일치하며, 결혼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던 김가은(2012)과 상이한 결과이다. 결혼을 한 놀이치료자는 정신적 피로감이나 놀이치료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를 잃지 않고 심리적 소진으로부터 나타나는 신체화 증상을 덜 겪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교육 분석에 따른 심리적 소진은 정서적 소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고은하(2001)는 교육 분석 경험의 유무가 놀이치료자에게 정서적인 소모감을 덜어주지만 교육 분석의 회기와의 관련은 없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놀이치료자가 놀이치료 과정에서 경험한 정서적으로 과부하 되는 느낌이나 고갈된 정서적 자원을 교육 분석을 통해 해소하며 재충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 당 근무시간에 따라 심리적 소진의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신체화 증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주일에 13시간 미만보다는 2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이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덜 나타나게 하며 13시간에서 24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2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보다는 신체화 증상이 덜 나타났다. Mashlach et al.(2001)은 과중된 업무로 인해 놀이치료자의 심리적 소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지만 박정해(2006)는 담당 사례수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 적절치 않을 때에 놀이치료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업무가 지나치게 많을 때만이 아니라 적을 때에도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하였다. 최근 가사 일을 주로 담당하던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많아지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점차 놀이치료 기관들과 놀이치료자가 급증하였고(김예주, 이운주, 2012) 대다수의 여성놀이치료자들 역시 일정 시간 이상 놀이치료자라는 전문직에 임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주일에 놀이치료자로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적게 겪는 반면, 주당 13시간미만의 적은 근무시간은 놀이치료자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회피와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게 하고 신체적인 질환을 겪게 함으로 일정 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심리적 소진을 덜 겪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주 당 근무시간에 따른 심리적 소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심리적 소진에 대한 다차원적 연구를 한 박희현과 김광웅(2006)이 개인적 특성에서만 심리적 소진의 원인을 찾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주당 근무시간과의 비교를 제언한 바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심리적 소진에 대한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및 역전이 관리능력의 상대적인 영향력

놀이치료자의 심리적 소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놀이치료자의 일반적 특성들(결

혼여부, 교육 분석, 주 당 근무시간)과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및 역전이 관리능력이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심리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놀이치료자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및 역전이 관리능력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우선 놀이치료자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심리적 소진을 적게 느끼고 주당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분석은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결혼을 한 놀이치료자는 심리적 소진을 적게 경험한다고 보고한 김선영(2012)과 고은하(2001)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놀이치료자의 결혼여부가 심리적 소진에 유의미하지 않다고 밝힌 김가은(2012)과 박희현과 김광웅(2006)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도은숙과 정현숙(2009)은 놀이치료자가 가족으로부터 직면한 문제에서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개인적 성취감 감소를 완화할 수 있음을 밝히며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놀이치료자가 기혼자일수록 놀이치료과정에서 받은 내적·외적 스트레스를 가족으로부터 해소할 수 있게 되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심리적 소진을 줄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심리적 소진에 대한 일반적 특성과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 특성의 결혼여부와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기혼자가 미혼의 놀이치료자에 비해 심리적 소진을 적게 느끼고 높은 수준의 자기 효능감이 있는 놀이치료자일수록 심리적 소진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성희(2010), 오숙경(2013), 전정미 등(2006)의 연구들에서 자기효능이 심리적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최성희(2010)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 높은 놀이치료자는 자신이 경험하는 심리적 소진을 낮게 지각하며 자신이 놀이치료를 유능하게 수행해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놀이치료자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거나 놀이치료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두렵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적게 보인다고 하였다. 오숙경(2013) 역시 놀이치료자가 놀이치료 과정에서 시기적절하게 개입하며 높은 수준의 상담기술을 지녔다고 강하게 믿으면 자신이 열의를 다해 하는 일이 의미 있으며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겨 심리적 소진을 적게 경험한다고 하였다. 전정미 등(2006)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놀이치료자가 특히 세부 상담 기술을 잘 한다고 느끼며 그로 인한 자신감이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잘 느끼지 못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즉, 결혼을 통해 개인적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고, 놀이치료에 필요한 활동들을 조직하고 계획하는 능력에 높은 신념을 갖고 놀이치료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놀이치료자일수

록 놀이치료 장면에서 직면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기를 유지하며 심리적 소진을 얻기 위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심리적 소진에 쉽게 빠지지 않게 된다.

심리적 소진에 대해 일반적 특성과 자기효능감, 역전이 관리능력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 특성의 결혼여부와 역전이 관리능력이 심리적 소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심리적 소진을 적게 느끼고, 역전이 관리능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을 적게 느끼는 것이며, 일반적 특성의 결혼여부와 역전이 관리능력이 특히 놀이치료자의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예측요인임을 의미한다. 이는 초심 놀이치료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김명아(2010)는 놀이치료를 경험하면서 초심 놀이치료자가 놀이치료자라는 직업을 선택한 기대감과 달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로써 위축되어 저하된 가치 평가로 인해 내담 아동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맺는데 방해받게 되지만, 이 때 역전이 관리능력이 높으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놀이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되어 심리적 소진을 덜 경험한다고 하였다. 박희현과 김광웅(2006)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깊게 이해하고 있는 놀이치료자는 내담자의 내면세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칫 심리적 소진에 빠질 수 있지만 공감능력을 갖춘 놀이치료자는 이를 놀이치료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심리적 소진을 적게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놀이치료자는 놀이치료의 수행 과정에서 내담 아동을 돌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자신이 경험하는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내담 아동과의 관계에서 겪는 대인관계적인 요소 등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로부터 내담 아동의 내면세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내적 역동을 인식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통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때 높은 수준의 역전이 관리능력을 갖고 있다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여 지치지 않도록 건강한 자신의 성격구조를 유지해나갈 수 있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역전이 관리능력과 심리적 소진을 비교할 수 있는 특성들을 비교함으로써 놀이치료자가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관리능력을 높이고 심리적 소진을 줄여 놀이치료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특성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놀이치료자의 심리적 소진에 놀이치료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관리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심리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기대된 바와 달리, 심리적 소진은 결혼여부와 주당 근무시간을 제외한 놀이치료자의 일반적 특성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료 수

집이 자기보고식 척도에 의해 이루어져 다소 심리적 소진을 적게 느끼는 경향으로 보고한 것과 관련되어 보인다. 또한 놀이치료자의 슈퍼비전이나 교육 분석 등의 수련과정을 통해 심리적 소진을 관리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고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이러한 수련 과정을 통제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관리능력이 심리적 소진이 역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특성이 다소 편중된 경향이 있어 기존의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가 많아 일반화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많은 표집 대상이 요구된다.

참고 문헌

- 고은하(2001).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 경험과 대처유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이경·김광웅(2005). 상담종결경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이 놀이치료자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8(1), 1-15.
- 김가은(2012). 놀이치료자의 자아탄력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옥·김광웅(2003). 놀이치료자의 자아강도 및 대인관계 성향과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6(2), 3-13.
- 김명아(2010). 집단자존감과 역전이 관리능력이 초심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주·이윤주(2012). 국내 놀이치료의 연구동향-국내학회지 게재논문(2000-2010)을 중심으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5(3), 329-343.
- 김은숙(2009). 아동상담의 과정과 성과 요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선·이영애(2012). 놀이치료사의 성격특성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5(4), 567-585.
- 김지영(2007).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상담능력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은(2005). 부정적 역전이의 발생과정: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한 분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숙(2001). 대상관계이론의 상담적 적용에 대한 고찰. 상담학연구, 2(2), 327-344.
- 노안영(2011).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도은숙·정현숙(2009). 상담자 소진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1), 125-143.
- 박정해(2006). 상담자의 자기위로능력, 영적안녕 및 상담자발달수준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현(2005).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 요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희현·김광웅(2006). 아동상담자의 의욕상실에 대한 상담자 개인적 특성의 영향. 아동학회지, 27(3), 29-51.
- 박희현(2008). 아동상담자의 슈퍼비전 경험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역전이 관리능력에 미

- 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2), 35-48.
- 신교숙·김광웅(2001). 놀이치료자의 경력, 훈련 경험 및 자의식과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4(1), 57-69.
- 오숙경(2013). 청소년상담자의 자아탄력성과 효능감이 소진(burnout)에 미치는 영향.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선재(2012).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관리능력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무석(2003).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서울: 도서출판 이유.
- 이영순(2010). 초보 상담자들의 어려움과 역전이 관리능력 및 상담성과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1(3), 1021-1035.
- 이윤수(2001).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역전이 관리능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숙·양정화(2009). 놀이치료자의 자아탄력성과 역전이 관리능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2), 17-33.
- 장세미(1999). 상담자의 특성, 역전이 관리능력 및 상태불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정미·임혜인·최명선·유미숙(2006).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 성향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 연구, 9(2), 17-26.
- 천혜숙·유미숙(2010). 놀이치료 슈퍼비전에서의 작업동맹, 치료자의 자기개방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상담학연구, 11(3), 1175-1189.
- 최성희(2010). 놀이치료자의 슈퍼비전 작업동맹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치료자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영·이영애(2009). 놀이치료자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와 역전이 관리능력과의 관계.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2(3), 31-45.
- 홍수현(2001). 상담 초기단계에서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및 상태불안이 상담협력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주 외(2010). 놀이치료-기법과 실제-. 서울: 학지사.
- Bandura, A.(2004). *Self 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윤운성, 정정옥, 가경신 역). 서울: 학지사.
- Cashdan, S.(2005). *Object Relations Therapy*(이영희, 고향자, 김해란, 김수형 역). 서울: 학지사.

- Chazan, S. E.(2012). *Profiles of Play: Assessing and Observing Structure and Process in Play Therapy*(유미숙, 이영애, 윤소영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Corey, M. S. & Corey, G.(2008). 좋은 상담자 되기(이은경, 이지연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Fatter, D. M. & Hayes, J. A.(2013). What facilitates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the Roles of therapist meditation, mindfulness, and self-differentiation. *Psychotherapy Research*, 23(5), 502-513.
- Gelso, C. J., Latts, M. G., Gomez, M. J., & Fassinger, R. E.(2002).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nd Therapy Outcome: An Initial Evalua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7), 861-867.
- Landreth, G. L.(2002). *Play Therapy: the Art of the Relationship*. New York: Routledge.
- Maslach, C. & Goldberg, J.(1998). Prevention of burnout: New perspectives.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7(1), 63-74.
- Maslach, C., Schaufeli, W. B., & Leiter, M. P.(2001). *Job Burnou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397-422.
- McWilliams, N.(2008). 정신분석적 진단: 성격 구조의 이해(정남운, 이기련 역). 서울: 학지사.
- Peabody, S. A. & Gelso, C. J.(1982). Countertransference and Empathy: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Two Divergent Concepts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3), 240-245.
- Schendel, C. L.(2010). *Trainee's Ability to Manage Countertransference: an Exploration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unselor Self-effic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Skovholt, T. M. & Trott-Mathison, M.(2011). *The Resilient Practitioner: Burnout Prevention and Self-care Strategies for Counselors, Therapists, Teachers, and Health Professionals*(2nd Ed). New York: Routledge.

〈Abstract〉

The Effects of the Self-Efficacy and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on Psychological Burnout of Play Therapists

Kang, So Young · Sunwoo, Hyun
Myongji University,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ek a preventive measure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psychological burnout of play therapis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elf-efficacy and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ies of play therapists on the psychological burnou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elf-efficacy,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and psychological burnout based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lay therapists displayed significant difference. Second, the results of relative influence of self-efficacy and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in term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sychological burnout of play therapists, the married play therapists experiences less psychological burnout as their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were higher. As abov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lay therapists that can increase the self-efficacy and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and decrease the psychological burnout, and the effects of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elf-efficacy, and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on the psychological burnout of play therapists.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as it provide basis in preparing a plan to prevent the psychological burnout.

Key words : Play therapist, Psychological Burnout, Self-Efficacy, Countertransference Management Ability

글 없는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치료

송은실*·선우현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놀이치료를 위한 글 없는 그림책을 개발하여, 유아가 자신의 경험과 가까운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갈등해결을 돕는 치료적 매개체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한 치료적 활용을 위한 그림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글 없는 그림책의 개발은 일련의 과정에 따라 ‘관계 맺기’라는 주제 하에 스토리보드를 구성하여 장면들을 표현하였고, 아동문화콘텐츠 전공 교수 3인과 그림책 편집자 1인의 피드백을 통해 수정, 보완하며 검증과정을 거쳤다. 완성한 그림책이 유아들의 연령 수준에 적합한지, 내용을 적절히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지을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호학적 관점에서 2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각 장면에 대한 반응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연령 및 경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두 유아 모두 글 없는 그림책을 적절히 이해하고 이야기를 꾸밀 수 있었고, 그 안에서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간접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치료에서 상호작용의 긍정적 경험으로 이끄는 촉진제가 되어, 치료적 매개체로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 글 없는 그림책, 그림책 개발, 관계 맺기

* 교신저자: 송은실(ses8399@hanmail.net)

■ 게재 신청일 : 2014년 6월 22일 ■ 최종 수정일 : 2014년 8월 5일 ■ 게재 확정일 : 2014년 8월 10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는 그들의 일상의 대부분이 놀이일 정도로 놀이는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따라서 놀이는 언어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한계를 가지는 유아에게 매우 유용한 치료적 도구가 됨을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Piaget, 1962; Gerry Landreth, 2002; Saralea E.Chazan, 2002). 놀이와 같이 유아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익숙한 매체 중 하나는 그림책이다. 그림책 중에서도 글 없는 그림책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연구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동의 경험과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창조할 수 있도록 하며, 유아의 상상을 자극하여 그들의 놀이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상, 즉 환상은 유아와의 새로운 의사소통방식이 될 수 있다. 환상은 아동의 사적 상징을 파악하고, 아동의 내면 세계에 형성되어 있는 사적 세계를 분석, 규명할 수 있고, 새로운 환상의 세계, 현실과 관계가 회복된 사적 세계를 재창조하는 치료작업을 해 나갈 수 있다(김춘경, 1998). McGee와 Richgels(1996)는 유아가 그림책을 통해서 들은 내용을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새롭게 이야기 꾸밀 수 있으며, 유아 자신의 경험과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이해하거나 해석한 대로 이야기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글 없는 그림책을 통한 문학 활동은 유아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활동이라고 제안하고 있다(심성경 외, 2005). 따라서 현재 심리치료 현장에서 그림책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는 많지만, 전소희·이재연(2002)의 연구에서 밝히듯, 그림책선정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미흡하고, 유아의 문제 상황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여 치료자들이 아동상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기술(금동숙, 2005; 박세라,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개념(박현미, 2012), 또래관계향상(문경여, 2008), 정서지능(장유미, 2012), 학교폭력 예방(박영미, 2013), 따돌림(김은주, 2002; 이규선, 2004)과 아동의 친사회성 개발(명창순, 2004) 등에 관한 주제로 그림책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체계적인 도서 선정기준은 부족하며, 아동의 또래관계의 친밀감 형성이나 갈등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문경여 외, 2008). 이는 심리치료와 무관한 그림책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그림책 중에서 선정하여 치료와 연결 짓는 과정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치료분야에서 유아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인 그림책분야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와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 글 없는 그림책에 관한 연구 역시 그 매체의 다양한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언어능력, 이야기 구성 능력 신장, 창의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심리·정서에 관련된 주제의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놀이치료에 활용, 연구한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 짜여진 주제 하에서 집단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다보니 유아 각 개인의 경험과 그림책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 짓고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유아의 경험과 가까운 이야기를 유아 자신이 주도적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 갈등해결을 도울 수 있는 글 없는 그림책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치료적 매개체로서의 글 없는 그림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실제 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글 없는 그림책

글 없는 그림책(wordless picture books)이란 글이 없이 그림만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책을 말한다. 다시 말해, 글 없는 그림책은 단순히 글을 생략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림 안에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림에 의존하여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며 유아는 일련의 순서대로 구성된 그림을 보고 유아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문해자인 유아들에게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Jalongo, 1992). 또한 많은 연구(Burns & Roe, 1976; 김양선, 1997)에서 밝히듯 유아들이 글보다 그림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점은 유아에게 접근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이 주가 되는 그림책은 화면 구성보다는 독자가 어느 것에서 메시지를 먼저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며, 받아들일 의미가 없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결합시킬 적당한 대상이 없으면 의미 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신혜선, 2011). 따라서 유아는 자신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미지 또는 메시지를 갖고 상상을 하여 자신이 창조한 이야기를 전개하게 된다. 더불어 글 없는 그림책은 현실과 상상의 두 세계를 연결시켜 유아들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주며 글 없는 그림책 속에서 놀이의 세계, 상상의 세계로 직접 들어가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서정숙,

2005). Bromley(1996)의 교류이론에서 말해주듯 유아들도 성인 독자와 마찬가지로 문학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주체적 독자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글 없는 그림책에서 실질적 작가는 독자인 유아 자신이 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유아는 기쁨을 재경험하기도 하고 갈등, 좌절을 표현하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도 있다. 이는 신혜선(2011)의 연구에서도 최근 그림책이 교육적 측면에서 벗어나 유아들의 ‘사고체계’와 ‘반응’에 따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독자 반응 연구’(전효훈, 2000; 신현숙, 2000)와 ‘이야기 구조에 대한 연구’(김미숙, 2006; 김시정, 2006)에 주목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증명해주고 있다.

글 없는 그림책은 또한 유아의 여러 측면에서의 발달을 돕는다. D’angelo(1981)는 글자에 의해 맞고 틀림이 없이 유아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능력대로 표현하며, 실패의 가능성이 없이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아가 책을 읽는 것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감정 및 태도를 가지며 정서적 발달을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또 글 없는 그림책은, 삽화에 대한 이해 혹은 해석을 해보도록 함으로 유아의 시각적 문해의 발달에 영향을 주며, 유아들이 능동적으로 책의 내용을 구성하는 작가가 되기 때문에, 유아들의 언어발달 및 인지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또한 그림을 보고 유아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며 확산적 사고를 하게하고 그 과정에서 창의성이 증진된다고 하였다(이경우, 1998). 더불어 읽을 때에 비해 글 없는 그림책 읽기 과정에서는 보호자-유아 간의 상호작용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져(한유진, 2003) 유아의 사회성 발달 및 정서적 안정감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그림책과 놀이치료

그림책은 정신적인 과정을 자극하고 전개시키며, 직접적인 요구 없이도 자극이 가해지게 된다. 그림책의 모티브라는 거울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해 고찰하게 하고, 자기 인식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른 삶의 변화에 자극을 주기도 한다(Verena Kast, 2008). 그림책은 유아에게 가장 익숙하고 접하기 쉬운 문학작품이며 놀이와 밀접한 연결성을 갖고 있어 상상을 촉진하고 놀이를 확장하도록 하여 놀이치료에 매우 적합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현장에서 그림책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그림책과 놀이라는 두 매개체의 공통점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책 안에는 많은 놀이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놀이 안에는 그림책과 같은 은유와 상징이 녹아있다.

유아들은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놀이를 즐기며 일상의 대부분을 놀이로 보내는데, 그림책에 대한 반응은 놀이에 가깝다. 생애 초기에는 그림책을 만지고, 물고, 빨고, 쌓고, 무너뜨리는 등 그림책의 내용을 보기 전에 오직 감각을 활용해 그림책을 탐색한다. 그러다 차츰 그림책 속의 시각적 이미지와 서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그림책을 읽는 중에 그림책 속 등장 인물과 함께 숨바꼭질, 숨은 그림 찾기, 흉내 내기, 그림자 놀이, 까꿍 놀이, 수수께끼, 끝말잇기 등의 다양한 놀이를 하게 된다(임부연 외, 2008; 현은자 외, 2008). 그림책에 표현된 내용을 통해 유아 나름의 메시지를 찾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지만 그림책에서 찾아낸 놀이를 현실 세계에 적용해 보는 놀이 과정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러한 유아 나름의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깨닫도록 안내하며 돕는 것은 성인 또는 치료자의 몫이 될 수 있다.

놀이는 내적 동기화, 결과보다 과정 중심, 적극적인 참여, 긍정적 정서, 자유로운 선택, 외적 규칙으로부터 자유, 융통성, 비사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유아기의 대표적인 활동이다(Johnson, Christie, & Yawkey, 1999). 유아의 그림책 읽기는 놀이의 특징과 매우 흡사하다. 즉 유아가 놀이를 할 때와 같이 그림책을 읽을 때에도 외부의 압력이 아닌 내적동기에 의해 읽으며, 과정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긍정적 정서를 느끼며, 보고 싶은 책을 스스로 선택하고, 글 읽는 것에 대한 외적 규칙으로부터 자유롭게, 융통성을 가지고, 상상의 세계를 펼치며 책을 읽는다(정남미, 2011). 더불어 창의성과 상상력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며 이러한 공통분모는 유아가 그림책과 놀이를 즐기는 이유가 된다(변윤희, 2004). 또 그림책과 놀이라는 두 매체는 유아가 살고 있는 환경과 다른 시공간을 제공하며 그것은 유아의 상상을 자극하여 창의력을 길러줄 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주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해하여 그 안에서 관계를 맺으며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유아의 이야기와 놀이의 주제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치료자들은 유아의 환상을 공유해야 하고, 그 속에서의 유아의 역할, 심리역동성, 또 치료자에게 배당하는 역할과, 치료자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한다(김춘경, 1998).

3.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치료

그림책을 놀이치료와 접목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집단놀이치료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사회기술, 자아개념, 자기효능감에 관한 주제로 나눌 수 있다.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금동숙(2005)은 동화를 활용한 구조화된 집단놀이치료가 결손

가정 아동의 또래와의 사회적 행동 중 긍정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비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며,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킴을 밝혔다. 사회기술에 관한 또 다른 다른 연구로, 박세라(2010)는 동화를 활용한 집단놀이치료가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동화 매체의 활용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언어적 정서표현을 증가시키고, 자신과 타인 이해를 도우며 문제해결력을 촉진시켜 사회적 기술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박현미(2012)의 연구에서는 동화를 활용한 집단놀이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인식과 수용, 타인인식과 수용, 감정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소통능력을 증진하며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자아개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놀이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또 박호주(2012)는 동화를 활용한 집단놀이 프로그램이 경도 지적장애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자기효능감 행동을 향상시켰음을 밝혔다.

이 연구들을 바탕으로 볼 때 글 없는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치료의 활동은 유아 자신의 경험을 현재와 연결 짓고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의미를 빚어갈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기술, 자아개념,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위축된 유아에게 매우 효과적인 접근이 되리라 생각한다.

Ⅲ. 글 없는 그림책 개발 과정

본 연구자는 글 없는 그림책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로 글 없는 그림책 개발의 필요성을 진단하기 위해 글 없는 그림책에 관련된 문헌 및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글 없는 그림책의 다양한 효과성 및 치료적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파악, 습득하여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보드를 장면별로 제작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계획하였다. 그런 후 시각적 컨셉, 등장인물, 배경 등을 설정하여, 각 장면들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그림책을 검증하기 위해 아동문화콘텐츠 전공 교수 3인과 그림책 편집자 1인에게 피드백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그림책을 완성하였다.

1. 스토리의 전개 구성

Margot Sunderland 와 Nicky Armstrong(2007)는 그들의 저서에서 은유적 이야기를

만들 때 치료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4단계의 구성으로 전개하였다. 먼저, 아동이 씩씩하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인 ‘관계’를 은유적으로 ‘숨바꼭질’이라는 소재를 선정하여, 타인에게 다가가지 못하지만 누군가 자신을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유아의 심리적 특징을 표현하였다(1. 혼자만의 숨바꼭질). 또한 이 유아와 동일한 문제로 씩씩하고 있는 주인공을 제시하여 타인이 다가왔을 때 거부하는 모습을 표현하며, 주인공이 이야기 속에서 내적·외적 위기에 마주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 그런 대처기제가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다(2. 낮선 이의 다가옴). 그런 후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여정을 표현하며 문제와 해결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를 설정하여 자연스럽게 해결로 옮겨가는 여정을 통해 주인공이 이전에 사용하던 기제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전환하였다(3. 조금씩 가까워짐). 이렇게 해서 주인공은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에 대해 행동하며 대처기제를 바꾸고, 타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며 훨씬 적응적으로 변하게 된다(4. 새로운 관계).

Cornett와 Cornett(1980)는 책을 이용한 치료를 할 때,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을 경험해야 치료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독서치료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선행 연구(문경여, 2005)에서 도서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세워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과정과 더불어 동일시(비슷한 상황의 주인공 설정), 카타르시스(새로운 관계 간접 경험), 통찰(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긍정적 결과) 이 세 가지 기준에도 부합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며 내용을 구성하였다.

전문가의 감수를 받기 전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주인공은 누군가 자신을 찾아주기를 기다리며 숨지만 아무도 주인공을 찾지 않아 실망한다. 그때 큰 곰이 나타나 외로운 주인공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손짓한다. 곰은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지만 주인공은 곰을 거부하고, 결국 곰은 밧줄로 주인공을 묶어서 끌고 가려고 한다. 주인공은 끌려가지 않으려 나무를 붙잡고, 둘의 긴장은 더욱 팽팽해진다. 그때 마침 이파리 하나가 곰의 콧등 위에 떨어져 곰은 재채기를 하며 뒤로 넘어지고 주인공은 재채기 소리에 놀라 밧줄에 끌려 곰의 배 위에 넘어진다. 놀란 둘은 어리둥절하여 바라보다 웃음을 터뜨리고, 곰은 주인공을 꼭 안아준다. 주인공도 낮설기만 했던 곰의 품이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

2. 시각적 표현

유아의 그림책의 일러스트레이션과 색채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의 시각적 표현은 유아가 직감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아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도록 선명하면서 밝은 색을 사용하고, 원색 안에서 명암의 변화를 표현함으로써 여러 가지 색감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최정원, 2001). 색은 사물을 인식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글 없는 그림책에서 색의 역할과 의미는 더욱 커진다.

위와 같은 유아 및 그들을 위한 그림책에 대한 이해는 본 연구자의 글 없는 그림책 개발의 바탕이 되었다. 전체적인 시각적 표현은 ‘선명함 속 따뜻함’을 표현할 수 있도록 형태의 표현은 단순화하되 대비되는 컬러를 사용하였다. 대비되는 컬러의 조합으로 장면을 더욱 생기 있고 선명하게 명시성을 높여 유아들의 흥미를 끌고자 하였다. 등장인물이나 배경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기 보다는 아동이 직관적으로 느끼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색감과 구도, 인물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상황이나 심리상태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주인공은 창백한 얼굴과 흘날리는 머리카락으로 불안정한 심리를 표현하였고, 위축되고 경직되어 있는 주인공의 정서를 나타내기 위해 얼굴의 표정을 경직된 듯 표현하였다. 꿈은 포근함이 느껴지는 형태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그림책 속 꿈의 따뜻한 성격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위축된 주인공에게는 꿈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일 수 있음을 유아가 공감할 수 있도록 파란색에 커다란 몸집으로 표현하였다. 오리가죽과 강아지는 일반적으로 친근하고 친숙하게 인식되는 동물임에도 주인공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서성이는 모습을 통해 주인공의 성격과 특징을 부각시켰고,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배경의 변화를 통해 장면마다의 심리를 표현하였다. 또 장면마다 등장하는 해와 달의 표정은 주인공의 정서를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다.

3. 그림책 감수

좋은 주제는 등장인물, 사건에 의한 흥미감과 새로운 태도나 통찰을 불러일으키며, 좋은 책이란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에 의미 있는 주제가 미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또 잘 짜여진 구성은 이야기를 살아 움직이도록 하며, 명확한 시작, 절정, 결말을 가진다. 또한 해결되어야 할 갈등에 초점을 두어 이야기를 흥미롭게 한다.

또한 인물은 독특하고 살아있는 것 같은 생동감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하며, 그 시기 유아의 감정을 잘 나타내어 유아가 쉽게 동일시하고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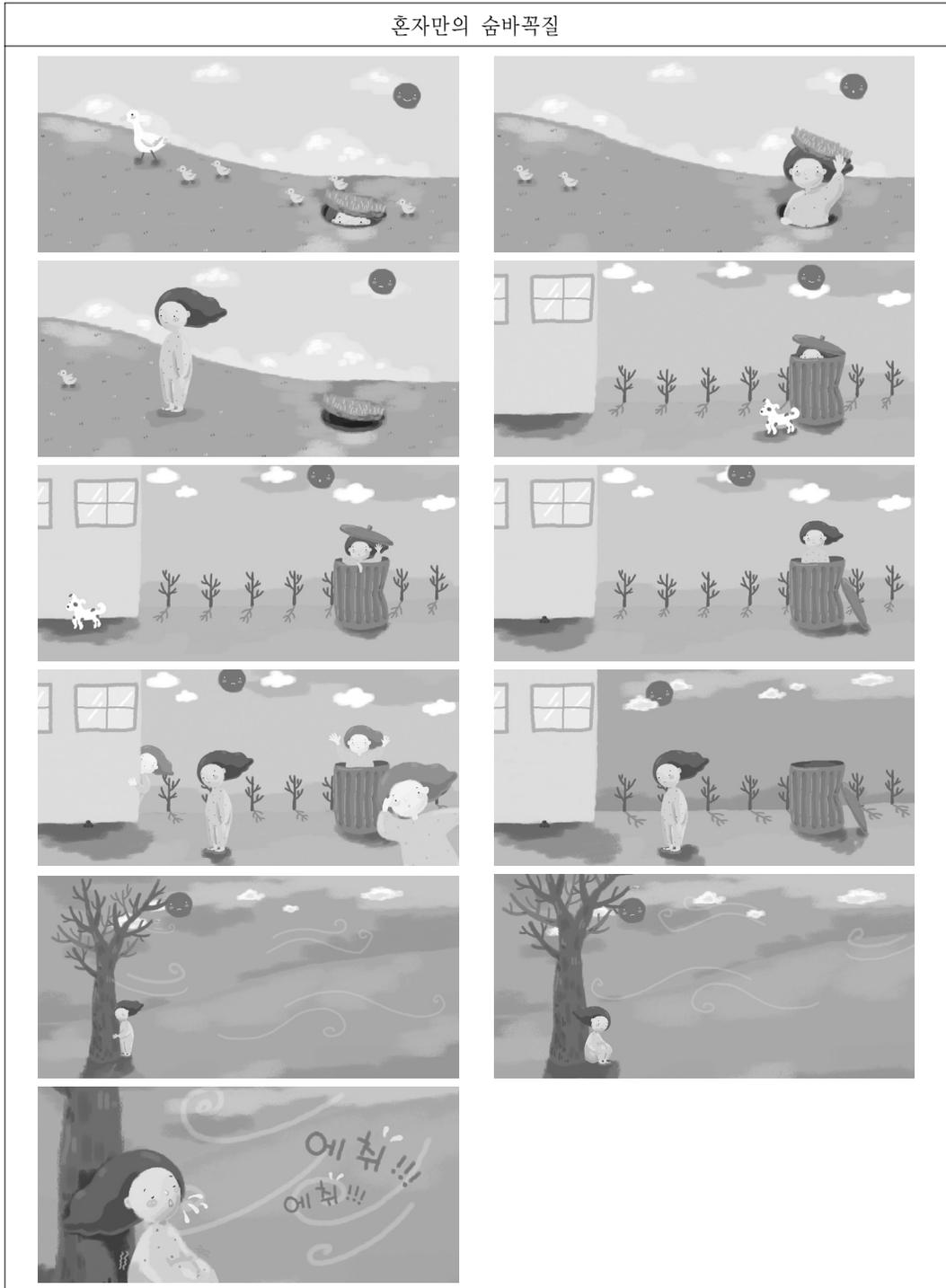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글 없는 그림책 감수를 받기 위해 아동문화콘텐츠 전공 교수 3인과 그림책 편집자 1인에게 개발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이를 바탕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였다. 그에 따른 평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4명의 전문가 모두 그림의 분위기나 시각적 표현의 예술성을 높게 평가하였고, 그림의 스타일과 복잡성이 유아의 수준에 적절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야기의 흐름에서 줄로 주인공을 강제로 데려가려는 부분에서 유아가 나쁜 성인에게 끌려가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관계를 강제로 맺으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갈등이 해결된 페이지에서 어둡게 표현된 배경색이 장면의 내용과 상이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4. 스토리 및 시각표현 수정

그림책 전문가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주인공과 곰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서서히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변화의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 스토리 후반부를 곰을 거부하는 주인공을 수용하고 기다려주는 모습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캐릭터의 표정, 배경, 색채 등의 세세한 부분들을 수정하여 유아가 더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수정된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주인공은 누군가 자신을 찾아주기를 기다리며 숨지만 아무도 주인공을 찾지 않아 실망한다. 날씨가 추워지며 주인공은 기침을 하고 외로움이 더 커져가는 그때, 큰 곰이 나타나 자신의 가족이 보이는 집으로 가자고 손짓한다. 곰이 주인공에게 손을 내밀어 보지만 주인공은 곰이 낯설기만 하다. 새끼 곰들이 주인공에게 다가와 옷을 잡아당기며 함께 가자고 하자 당황한 주인공은 새끼 곰을 세계 밀쳐내고 만다. 놀란 새끼 곰은 집으로 되돌아가고 큰 곰은 주인공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멀찍이서 주인공을 기다린다. 곰은 기다리다 떨며 잠이 들고, 주인공은 그런 큰 곰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용기 내어 다가가 큰 곰이 주었던 담요를 덮어준다. 잠든 줄 알았던 큰 곰은 주인공에게 손을 내밀어 안아주고, 주인공은 잠시 놀라지만 그 품이 따뜻하게 느껴진다. 결국 외로웠던 주인공은 곰 식구들을 새 친구, 새 가족으로 맞이한다.

<표 1> 수정된 글 없는 그림책 장면 (그림 순서 좌→우)



낮선 이의 다가옴 & 긴장, 거부



조금씩 가까워짐



새로운 관계



IV. 글 없는 그림책을 활용한 놀이치료 적용

이 연구의 목적은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글 없는 그림책을 개발하고 그 적절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글 없는 그림책은 유아가 그림책의 장면들을 연구자의 의도에 맞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유아의 경험과 주인공의 경

험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기호학적 관점으로 접근하였고, 유아가 장면의 외적, 내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 며 유아의 반응을 알아보았다.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B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3세 여아 1명, 만 5세의 남아 1명을 선정하여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글 없는 그림책에 대한 유아의 반응 연구는 각 장면이 유아의 연령 수준에 적합한지, 적절히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를 선별하지는 않았다.

2. 연구도구

글 없는 그림책은 글이 있는 그림책보다 유아에게 더욱 다양한 의미를 생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 장면을 유아가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신혜선(2011)이 연구 개발한 그림책 유아 반응 질문지를 이용하여 질문지를 작성하고 유아반응을 검토하였다.

신혜선(2011)의 연구에 따르면, 기호복합체로 구성된 그림책은 유아들에게 기호의 해석을 통해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의미생산의 통로가 된다. 유아들이 그림책을 보면서 기호를 통해 추출할 만한 의미가 없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개념을 결합시킬 적당한 대상이 없으면 의미 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아그림책의 기호학적 이해는 그림책이 담고 있는 의미를 찾는 과정과 유아들의 의미를 생성해 내는 두 가지 측면의 과정을 뜻한다. 신혜선(2011)은 유아들의 의미생성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이야기의 외시 의미, 함축 의미, 신화를 준거로 구성한 질문을 이용하여 글 없는 그림책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알아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외시 의미는 장면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며, 함축 의미는 장면에 나타난 사건과 원인과 이유에 대한 질문, 신화는 장면에 대해 유아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기호학적 접근에 따른 유아들의 의미생성과정 분석 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야기 각 장면에 내포된 신화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구성한 뒤 유아와 1:1로 면접을 하게 된다. 이때 각 장면에 대한 질문체계는 장면을 이해하는 질문, 장면에 나타난 원인과 이유에 대한

질문, 장면에 대해 유아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된다. 이때 유아들이 생성한 의미를 범주화하여 빈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장면별 의미분석 내용과 유아들이 생성한 의미를 비교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아들의 의미생성 과정을 이해하게 된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자가 개발한 글 없는 그림책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2014년 5월 24일 모집한 유아 두 명을 개별적으로 만났으며, 1인당 약 20분정도가 소요되었다. 먼저 글 없는 그림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추후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한 후, 글 없는 그림책을 유아의 속도에 맞추어 보았다. 그 후 유아반응 질문지에 따라 장면을 보면서 그에 따른 질문을 하여 유아의 반응을 알아보았다. 유아의 반응에 대한 자료분석은 관찰분석으로 이루어졌다. 글 없는 그림책의 각 장면에 대한 질문에 따른 유아의 대답과 반응을 질적으로 이해하였다.

4. 연구 결과

가. A 아동

A아동은 만 3세 여아로 글 없는 그림책을 보여준 후 질문에 따른 답변을 통합해 보았을 때, 장면의 전체적인 흐름과 인과관계를 생각하기보다는 각 장면을 개별적, 또는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고, 주인공의 욕구는 파악하나 세밀한 정서에 대해서는 정확히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숨어있는 장면에 대해 ‘꼭꼭 숨어라’를 하고 있다며, 쓰레기통에서 밖으로 나와 자신을 못보고 지나쳐간 친구를 아쉽게 바라보는 장면에 대해 ‘날씨가 더워서’밖으로 나왔다고 답하였다. 또 곰이 줄로 잡아끄는 장면에서는 “줄다리가 하고 싶대요.”라며 표면적 이해를 하였다. 그러나 주인공의 생각과 기분을 묻는 질문에 대해 “친구랑 놀고 싶은데 친구가 없어서 속상해하는 거예요.”라며 주인공의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또 그림책 전체를 모두 본 후 드는 생각에 대한 질문에 곰 인형이랑 놀은 게 좋았다며 관계에 대해 느낀 감정을 피상적으로나마 표현할 수 있었다. 또 주인공이 숨어있는 장면에 표현되지 않은 내용을 설명하며 “엄마, 아빠는 모르지?”라고 하는 대답을 통해 평소 부모의 통제

에 대해 많이 의식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나. B 아동

B아동은 만 5세 남아로 글 없는 그림책을 보여준 후 질문에 따른 답변을 통합해 보았을 때, 앞뒤 맥락에 맞게 사고하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A아동에 비해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숨어 있는 장면에 대해 “주인공이 맨 처음에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서 숨어서 오리들을 지켜보는데 오리들이 못 발견해서 외로워서 슬퍼요.”라며 원인,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었고, 주인공의 감정에 대해서도 “외롭고 슬프고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느낌이예요.”라며 적절히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둘 다 외로웠는데 서로 친구가 돼서 다시 행복해진 것 같고, 모두 친구가 되어서 함께 노는 장면이 제일 좋아요.”라고 하였다.

A, B 아동의 반응을 종합해 보았을 때, 두 유아의 연령에 따라 이해 및 표현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타인의 시도에 대한 이해능력과 사고에 대한 이해 능력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며, 만 3세는 타인의 신념에 대한 이해나 마음 이해능력이 만 5세에 비해 부족함을 증명한 이화일(2003)의 연구결과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만 5세 유아는 만 3세 유아보다 장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였고, 만 3세 유아는 자기중심적 사고로 자신의 경험과 연관된 더욱 창의적인 이야기를 꾸며내었다. 그러나 두 유아 모두 글 없는 그림책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야기를 꾸밀 수 있었고, 그 안에서 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유아에게도 이는 긍정적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간접경험을 놀이치료 프로그램으로 확장하여, 긍정적 상호작용의 실제 경험으로 이끌어낸다면, 유아 스스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V. 논의

본 연구는 놀이치료를 위한 글 없는 그림책을 개발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치료적 매개체로서의 글 없는 그림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글 없는

그림책은 유아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함으로 자신의 경험과 가까운 이야기를 만들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글 없는 그림책은 유아의 언어적 발달과 창의성 증진, 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돕는 유용한 도구로 교육 현장이나 치료현장에서도 프로그램에 접목하여 사용되지만 주로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별 놀이치료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놀이치료 매개체로서의 글 없는 그림책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파악, 습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보드를 장면별로 제작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계획하였다.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된 그림책은 아동문화콘텐츠 전공 교수 3인과 그림책 편집자 1인에게 피드백을 받아 수정, 보완되었다.

완성한 글 없는 그림책이 결과적으로 유아들의 연령 수준에 적합하게 개발되었는지, 내용을 적절히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지을 수 있는지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호학적 관점에서 2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반응 연구를 하였다. 질문에 따른 유아의 반응에서는 연령에 따라 장면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에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두 유아 모두 글 없는 그림책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야기를 꾸미며 관계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는 유아에게 ‘관계 맺기’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실제 관계에 대한 동기와 욕구를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촉매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한점이 있었고 그에 대한 제언을 다음에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자는 그림책의 주인공 캐릭터에 성별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주인공의 머리가 길어 유아들은 여자로 인식하기 쉽고, 남아의 경우 주인공과는 동일시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개발한 그림책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예비 구성하여 남아에게 적용해본 결과, 주인공이 아닌 꿈과 동일시를 하더라도 관계에서의 좌절과 극복의 여정을 모두 경험하였고, 실생활에서의 변화되어지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동일시하는 대상의 성별에 관계없이 유아가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만들도록 한다면, 유아에게 가장 밀접한 정서를 만나게 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글 없는 그림책을 놀이치료에 활용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그림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놀이치료의 단계를 제안할 수 있다. 그림책의 흐름에 따라 ‘존재감 확인하기, 만남, 주고받기, 괜찮은 나, 세상을 향하여’와 같은 5 단계로 놀이치료 과정을 설정할 수 있다. 주제에 따라 그림책의 장면을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각 회기에 해당하는 장면을 본 후 상상놀이를 촉진할 수 있는 매체를 제공하거나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구조화하여 회기를 계획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개발한 글 없는 그림책은 ‘관계맺기’의 주제를 의도하고 개발하였지만, 글이 없기 때문에 유아의 경험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한 예로, 이 그림책의 스토리를 위탁가정 아동에게 적용하여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도 그 대상과 목적에 맞추어 조금씩 변형하여 적용해볼 수 있다. 또한 이 글 없는 그림책을 통해 만들어내는 유아의 이야기는 심리적 갈등상황을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아의 상황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그림책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두 명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는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대상 유아의 반응을 연구함으로써 그 빈도수를 산출하고, 그림책의 각 장면을 유아의 경험과 놀이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에 대한 더욱 세밀한 연구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 문헌

- 금동숙(2005). 동화를 활용한 구조화된 집단놀이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 김미숙(2006). 이야기 구조 학습이 초등학교 아동의 독해력과 읽기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시정(2006). 그림책의 장르별 시간적 배경과 플롯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양선(1997). 소그룹 그림책 읽기에서 그림책에 대한 5세 유아의 반응.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 김은주(2002). 독서요법을 통한 초등학생 ‘왕따’치료.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춘경(1998). 동화의 치료적 힘을 이용한 놀이치료.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2(2), p.19-33.
- 명창순(2004). 독서요법을 통한 저소득층 이혼 가정 아동의 친사회성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경여·한유진(2008).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독서치료 동화 선정 및 프로그램 효과. 놀이치료연구, 12(2), 117-136.
- 박세라(2010). 동화를 활용한 집단놀이치료가 아동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박영미(2013). 그림책을 활용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현미(2012). 동화를 활용한 집단놀이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박호주(2012). 동화를 활용한 집단놀이 프로그램이 경도 지적장애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변윤희(2004).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및 유아 창의성 루브릭 개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서정숙(2005). (그림책으로 하는) 유아 문학 교육. 서울: 창지사.
- 신현숙(2000). 그림이야기 장르에 따른 만 3세와 5세 유아의 그림책에 대한 반응 비교.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혜선(2011). 유아그림책의 기호학적 이해. 파주: 한국학술정보.
- 심성경·백영애·김나림·변길희·박지애·박주희(2005). 글 없는 그림책 관련활동이 유아

- 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幼兒教育研究*, 25(3), 203-219.
- 이경우(1998). 좋은 그림책으로 활용한 창의력 개발. 서울: 한국교육정보.
- 이규선(2004). 집단 따돌림 학생의 인성치료를 위한 독서요법 적용 사례 연구: 집단 따돌림 피해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화일(2003). 타인의 의도에 대한 이해 능력의 발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부연·오정희·최남정(2008). 비구조적인 자유놀이 시간에 유아들이 보여주는 “진짜 재미있는 놀이”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幼兒教育研究*, 28(1), 185-210.
- 장유미(2012). 그림책을 활용한 구조화된 정서지능 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전소희·이재연(2002). 아동상담자의 독서치료 활용현황 및 인식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7(3), 39-60.
- 전효훈(2000).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에 대한 유아의 반응.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남미(2011). 그림책 중심 놀이 프로그램이 유아의 놀이성과 놀이행동,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구 중앙유아교육학회)*, 15(2), 267-289.
- 최정원(2001). 유아를 위한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 현은자·나선희·김현경(2008). 한국 그림책에 나타난 놀이 양상 분석 및 작가의 창작배경 연구.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9(2), 97-118.
- Garry Landreth(2009). 놀이치료 치료관계의 기술. 서울: 학지사.
- Saralea E.Chazan(2012). 놀이프로파일. 서울: 시그마프레스.
- Sunderland, Margot(2007). 스토리텔링을 통한 어린이 심리치료.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Verena Kast(2008). 동화와 심리치료.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 Bromley, K. D.(1996). *Webbing with literature: Creating story maps with children's books(2nd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Burns, P. C. & Roe, B. D.(1976). *Teaching reading in today's elementary schools*. Chicago: Rand McNally.
- Cornett, C. E. & Cornett, C. F.(1980). *Bibliotherapy: The right book at the right time*. Indiana: Bloomington.
- D'angelo, K.(1981). Wordless picture books and the young language-disabled child. *Teaching Exceptional Childre*, 14(1), 34-37.

- Jalongo, M. R.(1992). *Early childhood Language arts*. MA: Allyn and Bacon.
- Jean Piaget(1962). *Play, dreams and imitation in childhood*. New York: Norton.
- Johnson, J., Christie, J. & Yawkey, T.(1999). *Play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NY: Addison Wesley Longman, Inc.
- McGee, L. M., & Richgels, D. J.(1996). *Literacy's beginnings: Supporting young readers and writers (2nd ed.)*. Boston: Allyn and Bacon.

〈Abstract〉

Development of Wordless Picture Book for Playtherapy

Song, Eun Sil·Sunwoo, Hyun
Myongji University,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using a wordless picture book as a intervention for toddler psychotherapy. “Making Relationships” is designed for toddlers to make their own stories using pictures in connection with imagination and creativity.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rapeutic activities for helping to resolve conflicts.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gather preliminary data for development of picture books as effective therapeutic intervention. “Making Relationships” has been edited and revised with the help of three major professors of child development and a book editor. A study of two toddlers' semiotic responses to each scene shows that the book is age-appropriate for toddlers. Despite differences among the toddlers studied, each was able to understand the pictures in their own ways and to make stories, indicating that the book can be a catalyst for positive experiences. This study concludes that “Making Relationships” will be a worthwhile and effective therapeutic intervention.

Key words : Wordless Picture Book, Development of Picture Book, Making Relationship

초등학교 고학년의 속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에 관한 연구

이지연·최예린*·김은연
명지대학교·서울삼성병원

현재 속담이해능력이 언어적, 학습적 부분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어떠한 영역인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또한 속담에 관한 평가 및 중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속담 이해능력에 관여하는 변인들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속담이해능력에 관여하는 다양한 예측 변인들을 선정하여 그 변인들과 속담이해력과의 상관을 알아보고 어떤 변인이 속담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각 20명씩 총 60명을 대상으로 읽기진단검사, 국어 학업성취도, REVT-R, REVT-E와 속담이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성별과 학년에 따른 수행검사를 파악하기 위해 이요인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초등학교 고학년의 속담이해능력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성별과 학년별로 속담이해능력(속담의미, 속담비유), 국어 학업성취도, 읽기이해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속담이해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으로 읽기이해와 국어 과목이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치료 현장에서 속담을 지도할 때 읽기이해영역을 증진시키는 것이 학생들의 비유이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읽기이해는 단어나 문장의 이해를 넘어서서 상징들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 및 관계성에 대해 독자의 사고를 요구하는 복잡한 과정으로 상위 수준의 읽기기술이며 속담이해 역시 초등학교 고학년에 발달하는 것으로 같은 시기에 발달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더불어 속담이해능력의 발달은 읽기능력발달이 뒷받침이 되면서 비유언어 능력 및 전체적인 언어능력의 이해가 향상되어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핵심어 : 초등학교 고학년, 비유언어, 속담이해능력, 읽기이해, 어휘, 국어 학업성취도

* 교신저자: 최예린(yaelinchoi@gmail.com)

■ 게재 신청일 : 2014년 6월 24일 ■ 최종 수정일 : 2014년 8월 3일 ■ 게재 확정일 : 2014년 8월 10일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인간은 자신의 감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다른 이들로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의사소통한다(김성수 외, 2010).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문자적인 언어 형태 뿐만 아니라 비유적인 언어형태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어를 활용한다(홍윤희, 2001). 특히 낱말을 조합하여 사용할 때 개개 낱말이 본래 가지고 있는 사전적(literal) 의미 이상의 창조적이고 융통성 있는 비유적 의미의 표현이 필요하다(하길중, 1998).

비유언어는 어휘나 문장의 글자 뜻 그대로의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상상하고 비교하며 추론하여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언어형태이다. 비유언어에는 직유, 은유, 관용어, 그리고 속담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속담은 인간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한다. 첫째, 속담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얻은 통찰과 지혜를 비유적으로 간결하게 나타낸 표현으로,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보편적 의미를 표현한다(김윤정, 2012). 둘째, 이야기 맥락 속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그 상황을 환기시켜주며, 어떤 사실이 특수한 사례가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셋째, 속담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진실, 교훈, 충고 등이 담겨있고, 대화나 글에서 흥미로움을 불러일으키며, 내용의 이해를 돕기도 한다. 넷째, 속담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해줄 때 불편하거나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여유와 통찰력을 주는 비유적 표현이다(박정희, 2011). 그러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타인과의 수준 높은 대화를 하기 위해 속담을 적절하게 이해하여 구사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속담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친숙도와 구체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오소정, 2001). Nippold와 Haq(1996)은 속담에 사용된 어휘의 유형에 따른 구체성 및 추상성과 친숙도에 따라 속담을 분류하여 연구한 결과, 사람들은 구체적이고 친숙하지 않은 속담(concrete-unfamiliar)을 94%로 가장 잘 이해하였으며 추상적이고 친숙한 속담(abstract-familiar)을 29%로 가장 낮게 이해하였다고 한다. 또한 속담은 문장 성격에 따라 주제 의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 부분인 의미항과 주제 의미가 직접 드러나지 않고 개별적, 구체적 표현으로 되어 있어 비유적 속성을 지닌 부분인 비

유향으로 분류 할 수 있다(강등학 외, 2000). 이렇게 문장의 성격을 의미향과 비유향으로 나누었을 때,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형태로 설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의미향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이다. 속담 그 자체가 주제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경우로 속담은 대부분 비유적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예를 들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가 있다. 두 번째는 의미향과 의미향이 결합된 경우이다. 의미향이 중첩되어 두 문장이 각각 주제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죄는 지은대로, 도는 닦는 대로.”가 있다. 세 번째는 비유향과 의미향이 결합된 경우로 비유향은 의미향의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는데 일조한다. 예를 들어 “가루는 칠수록 줄고, 말은 할수록 늘어난다.”가 있다. 네 번째는 비유향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이다. 비유적인 표현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가 있다. 다섯 번째는 비유향과 비유향이 결합된 경우로 의미를 반복하여 주제를 점층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가 있다(강등학 외, 2000; 김혜정, 2006 재인용). 이와 같은 속담 분류에 근거하여 김혜정(2006)은 의미향으로 구성된 속담, 비유향+의미향으로 구성된 속담, 비유향으로 구성된 세 가지의 속담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에 해당하는 속담이해능력 검사문항지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혜정(2006)이 분류한 세 가지 중, 비유향+의미향을 배제하고 의미향으로 구성된 속담, 비유향으로 구성된 속담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속담을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속담은 발화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속담을 상황에 따라 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최근 학령기 이후의 언어발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시기의 언어의 의미적 특징인 비유 언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김윤정, 2012). 그 중에서도 속담은 학령기 전·후로 이해능력이 발달되기 시작하여 대체로 직유, 은유 등의 다른 비유 언어보다 비교적 늦은 시기인 청소년기 이후까지 점진적으로 발달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아동기 이후 의미영역의 발달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과제로 평가되었다(오소정, 2001). 뿐만 아니라 속담은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어떠한 사실을 설명하는 것보다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많이 쓰인다는 점에서(Nippold & Haq, 1996) 이 시기 언어발달의 화용론적 발달과도 관련된다. 그러므로 학령기 아동의 속담이해능력에 관여하는 다양한 예측 변인들과 그 변인들이 속담이해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인이 속담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속담이해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복희·이주연(2007)은 연

령에 따른 인지 발달 차이의 가능성으로 인해 4학년보다 6학년 아동의 속담이해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조복희·이주연·강기숙(2007)은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속담을 직접 기록하게 하여 개별 아동이 응답한 속담의 빈도와 각 속담별 전체 응답 빈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학년에 따라 알고 있는 속담의 특성이 달랐고, 특히 6학년의 경우는 구체적 속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실생활에서 부모 및 또래와의 사용 정도는 속담 인지 수준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오소정(2001)은 속담을 투명성과 친숙성에 따라 네 유형으로 분류하여 8세 이상의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속담의 투명도와 친숙도에 따른 속담이해 발달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답률이 높았고, 불투명한 속담을 투명한 속담보다 더 쉽게 이해하였다. 정혜승(2002)의 연구에 따르면 1학년 부터 6학년까지 학령기 아동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은유와 속담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정(2006)은 7세부터 12세 아동에 대해 연령과 성별 및 속담의 친숙도와 비유의 결합 형태에 따른 속담이해능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속담이해 점수가 높았고, 11-12세의 경우 여아의 속담이해능력이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 친숙한 속담일수록 속담이해능력이 높았고, 속담의 형태 중 의미항과 비유항이 결합된 형태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10세까지 속담 이해의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다가 11세, 12세가 되면서 평균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7-10세까지 급격하게 속담의 이해 정도가 증가하며 대부분의 속담의 이해가 이 시기에 완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정상인의 속담 이해는 학령전기부터 나타나며 청소년 시기에 이르면 대부분 이해의 발달이 완성됨을 알 수 있다.

Lutzer(2001)는 속담 이해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6학년 학습 장애 아동들이 일반 아동과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 시기는 통합적·전체적 사고능력이 일반 아동과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현재 언어검사를 위한 도구는 대부분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속담을 비롯한 비유 언어에 관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평가와 중재를 하기 위해 언어병리학자들은 정상 언어 발달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는 장애 아동들의 중재 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어야 비유 언어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지에 관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듯 선행 연구에서 강조한 것처럼 10-12세 사이의 학생들의 속담 이해에 관한 이해력이 개인마다 차이가 크고, 발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이 시기에 언어 장애 아동들의 비유언어 진단 및 중재 시 고려해야 할 점이다. 지금까지 속담이해능

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밝혀 언어장애를 가진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진단 도구와 개별 및 언어중재 계획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박정희(2011)는 문맥 유무에 따른 속담이해능력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및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속담이해능력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성인 집단의 속담 이해 능력이 문맥 유무에 상관없이 성인 집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집단 순이었다. 또한 문맥이 제시되지 않은 과제의 평균보다 세 문장으로 구성된 이야기 문맥으로 제시된 과제의 평균이 더 높았다고 한다. 박진영(2012)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아동의 친숙도에 따른 속담이해를 일반 아동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속담이해 능력에서 ADHD 아동이 속담의 친숙도에 관련없이 일반아동보다 낮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속담이해능력이 언어적, 학습적 부분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어떠한 영역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또한 박정희(2011)는 속담에 관한 평가 및 중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속담이해능력에 관여하는 변인들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속담이해능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때 연령과 장애군만 통제했으며, 대상자에 대한 요인, 환경에 대한 요인 등의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속담이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을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학년에 따라 속담이해능력(속담비유, 속담의미)의 차이가 있는가?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은 어떤 변인이 속담이해능력(속담비유, 속담의미)을 가장 잘 예측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경기도에 소재하는 S초등학교 4, 5, 6학년 각각 20명씩 총 6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2. 검사도구

가. 속담이해검사

김혜정(2006)이 비유 결합 형태에 따른 속담 분류 한 것 중, 의미항 8개, 비유항 5개를 선별하여 검사를 진행하였다. 실험을 위한 속담자료는 7차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선정하였고 문맥과 함께 문제를 제시하는 4지 선다형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답지는 속담의 어휘를 인용한 글자 그대로(literal)의 의미를 가진 답지 한 개, 상황과 관련된 답지 두 개, 그리고 속담에 대한 적절한 해석(정답) 한 개를 포함하여 총 네 개로 구성하였다.

김혜정(2006)이 최종적으로 25문항을 제작한 것 중, 의미항과 비유항이 포함된 13문항을 선별하여 진행하였다. 의미항 중 ‘형 만한 아우 없다’는 구문의미이해력 검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였다. 비유항에서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날까’,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WAB(Western Aphasia Battery) 검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였다. 따라서 총 13문항으로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계산하였다.

나. 읽기이해질문검사

읽기진단검사(김윤옥, 2001)의 다섯 가지 영역 중 한 영역으로 읽기이해질문(눈으로 읽기)을 실시하였다. 본 검사도구는 읽기 교육과정을 위계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글감을 선택하여 제시하였고 학생에게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 학년 수준의 글감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글감에 대한 이해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였다. 질문에는 사실적 이해와 추론적 이해를 평가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읽기지문을 읽은 후, 읽기이해질문 10문항을 스스로 읽고 답하였다. 점수는 올바르게 답한 문항은 문항 당 1점으로, 틀리게 답한 문항은 0점으로 계산하였다.

다. REVT검사(표현·수용어휘력 검사; 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검사(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 2009)는 표준화된 공식검사로 명사, 동사, 형용사 및 부사의 품사별로 구성되어있으며, REVT-R(수용어휘)과 REVT-E(표현어휘)의 발달정도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원점수를 공식적으로 검증된 연령별 어휘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Z-score를 내었다.

라. 국어 학업성취도

각 학년별 담임선생님으로부터 4회에 걸쳐 평가된 국어 학업성취도 성적을 수집하여, 평균을 내었다.

3. 검사 절차 및 방법

검사 대상인 초등학교 4, 5, 6학년 한 학급을 선정한 후, 부모님이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진행하였다. 학교의 일과가 진행되는 동안 검사자가 각 학생을 독립된 공간으로 데려와 실시하였으며, 검사자 1인이 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각 검사를 진행하였다.

속담이해능력검사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 검사자는 속담의 뜻과 성격, 검사방법 등의 안내문을 읽어주고 학생들은 검사지의 안내문을 눈으로 읽어나가도록 하였다. 이어서 본 문항을 풀기 전에 본 과제의 문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된 연습문항 3개를 풀도록 하였다. 연습문항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고 그것이 왜 정답인지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학생들에게 문자에 보기를 읽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문장을 번호로 쓰거나 답안지 번호에 동그라미 혹은 \surd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낱말을 몰라서 검사자에게 질문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대한 다른 설명은 덧붙이지 않고, 쉬운 동의어를 말해주거나 문제를 다시 읽어서 모르는 어휘를 유추하여 풀도록 하였다.

읽기진단검사는 학년에 맞는 글감을 보여주고 묵독하게 하였다. 그 글감의 묵독이 끝나면 글감이 담긴 쪽이 보이지 않도록 도구를 검사자의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만약에 학생이 글감을 한 번 더 읽기를 요청하면 한 번 더 묵독하도록 할 수 있게 하였다. 묵독이 끝난 후 이해에 대한 질문을 하고 학생이 답한 핵심단어나 구를 받아 적고 추가 질문이 필요하면 질문을 하였다.

4. 통계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SPSS(Statistical Product and Service Solutio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각 성별, 학년별 수행수준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요인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의 속담이해능력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을 탐색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 이하에서 검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검사수행점수 결과(성별, 학년별)

본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별, 학년(4, 5, 6학년)에 따라 읽기이해검사, 속담이해능력검사, 국어 학업성취도의 수행검사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이요인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수행검사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으며, 성별과 학년 간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있었다(<표 2>). 그래서 주효과를 보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

속담이해능력을 비교한 결과, 고학년의 시작인 4학년 시기에 여학생이 높은 점수를 보이며 남학생과 여학생의 점수의 차이가 월등히 컸던 반면 5학년이 되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대로 6학년 시기에는 근소한 점수의 차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그림 1>, <그림 2>, <그림 3>). 읽기이해검사 결과, 4학년, 5학년 6학년 모두 여학생이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그림 4>). 국어 성적 평균을 비교한 결과, 4학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과의 큰 차이를 보이며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차이가 줄어들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그림 5>).

<표 1> 성별과 학년에 따른 검사수행점수 결과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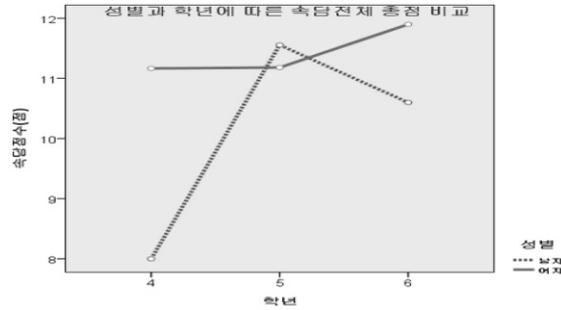
		남자(n=27)			여자(n=27)		
학년		4(n=8)	5(n=9)	6(n=10)	4(n=12)	5(n=11)	6(n=10)
속담	전체	8.0(±.8)	11.5(±.7)	10.6(±.7)	11.2(±.6)	11.2(±.7)	12(±.7)
	이해	4.9(±.5)	7.4(±.5)	7(±.5)	7(±.4)	7.1(±.4)	7.6(±.5)
능력	비유	3.1(±.4)	4.2(±.4)	3.7(±.4)	4.3(±.4)	4.2(±.4)	4.3(±.4)
	읽기 이해	4.4(±.6)	7(±.5)	6.1(±.5)	5.41(±.5)	7.3(±.5)	6.7(±.5)
국어 평균		77.3(±3.8)	88.5(±3.6)	89.9(±3.4)	92.1(±3.1)	85±(3.2)	89.1(±3.4)

‡ 평균±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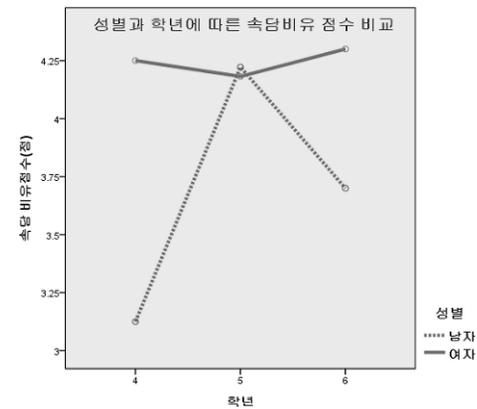
〈표 2〉 성별과 학년의 상호작용

		성별		학년별		성별*학년	
		F	p-값	F	p-값	F	p-값
속담 이해	전체	5.771	.020*	4.070	.023*	3.213	.048*
	의미	4.235	.044*	6.218	.004*	3.175	.050
	비유	2.971	.091	.835	.439	1.062	.353
	읽기이해	2.316	.134	9.782	<.001*	.280	.757
	국어평균	1.580	.214	.986	.380	4.082	.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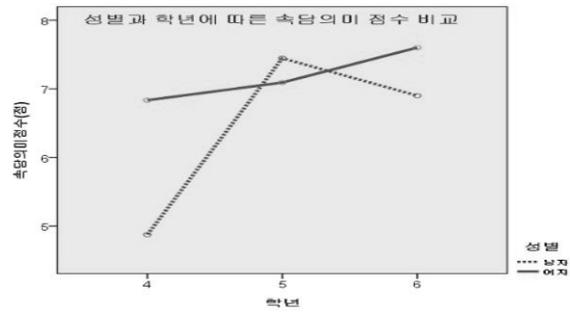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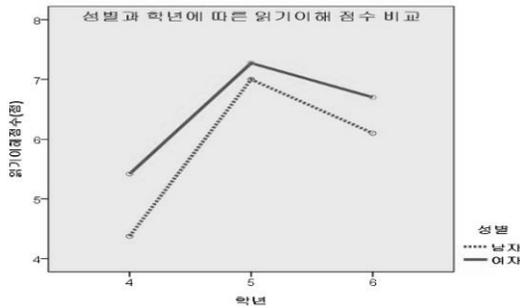
〈그림 1〉 성별과 학년에 따른 속담전체 총점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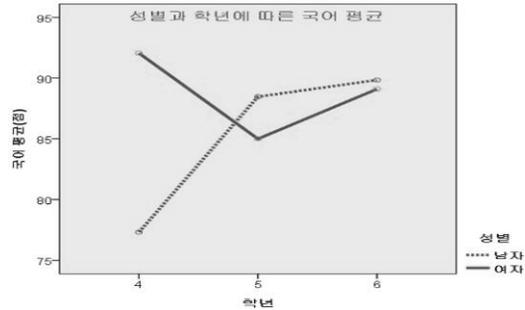
〈그림 2〉 성별과 학년에 따른 속담비유점수 비교



〈그림 3〉 성별과 학년에 따른 속담의미점수 비교



〈그림 4〉 성별과 학년에 따른 읽기이해 점수 비교



〈그림 5〉 성별과 학년에 따른 국어 평균

2. 속담이해능력에 대한 예측변인

가. 속담이해능력에 대한 예측변인

초등학교 고학년의 속담이해능력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REVT-R, REVT-E, 읽기이해, 국어 학업성취도 평균을 독립변인으로, 속담이해능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결과 해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VIF는 10보다 작으므로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R^2 은 종속변수인 속담이해능력의 총 변동은 독립변수인 성별, 학년, REVT-R, REVT-E, 국어평균, 읽기이해에 의해서 47.5%정도 설명된다.

학년, REVT_R, REVT_E, 국어평균, 읽기이해를 통제했을 때,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의 속담이해가 0.851점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별, REVT_R, REVT_E, 국어평균, 읽기이해를 통제했을 때, 4학년에 비해 5학년은 0.771점 더 높았고, 6학년도 4학년에 비해 0.727점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별과 학년, REVT_R, 국어평균, 읽기이해를 통제했을 때, REVT-E가 1점 증가하면 속담이해가 0.044점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성별과 학년, REVT_E, 국어평균, 읽기이해를 통제했을 때, REVT-R이 1점 증가하면, 속담이해는 0.126점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별, 학년, REVT_R, REVT_E, 국어평균을 통제했을 때, 읽기이해가 1점 증가하면 속담이해도 0.439점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5$). 성별, 학년, REVT_R, REVT_E, 읽기이해를 통제했을 때, 국어 평균이 1점 증가하면 속담이해는 0.074점 증

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 < .05$).

〈표 3〉 속담이해능력에 대한 예측변인

예측변인	B	t	p	VIF
상수	.561	.270	.788	
성별	.851	1.655	.104	1.143
x1_5학년	.771	.848	.401	3.210
x2_6학년	.727	.877	.385	2.670
REVT_R_Z_SCORE	.126	.765	.448	2.459
REVT_E_Z_SCORE	-.044	-.189	.851	3.226
국어 평균	.074	2.785	.007	1.544
읽기 이해	.439	2.531	.014	1.706

* $p < .05$

- 1) REVT_E_Z_SCORE(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_Expressive_표준점수)
- 2) REVT_R_Z_SCORE(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_Receptive_표준점수)
- 3)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확대인자)

나. 속담의미에 대한 예측변인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속담이해능력의 하위요인인 속담의미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REVT-R, REVT-E, 읽기이해, 국어 학업성취도 평균을 독립변인으로, 속담의미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결과 해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는지 검정한 결과 VIF는 10보다 작으므로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R^2 은 종속변수인 속담의미의 총 변동은 독립변수인 성별, 학년, REVT-R, REVT-E, 국어평균, 읽기이해에 의해서 51.9%정도 설명된다.

학년, REVT_R, REVT_E, 국어평균, 읽기이해를 통제했을 때,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의 속담이해가 0.583점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별, REVT_R, REVT_E, 국어평균, 읽기이해를 통제했을 때, 4학년에 비해 5학년은 0.701점 더 높았고, 6학년도 4학년에 비해 0.620점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별과 학년, REVT_R, 국어평균, 읽기이해를 통제했을 때, REVT-E가 1점 증가하면 속담의미가 0.233점 감소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별과 학년, REVT_E, 국어평균, 읽기이해를 통제했을 때, REVT-R이 1점 증가하면, 속담의미도 0.222점 증가하였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별과 학년, REVT_E, REVT_R, 국어평균을 통제했을 때, 읽기이해가 1점 증가하면 속담의미는 0.249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5$). 성별과 학년, REVT_E, REVT_R, 읽기이해를 통제했을 때, 국어 평균이 1점 증가하면 속담의미도 0.052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p<.05$).

〈표 4〉 속담의미에 대한 예측변인

변인	B	t	p	VIF
상수	-.236	-.178	.860	
성별	.583	1.773	.082	1.143
x1_5학년	.701	1.205	.234	3.210
x2_6학년	.620	1.170	.247	2.670
REVT_R_Z_SCORE	.222	2.113	.039*	2.459
REVT_E_Z_SCORE	-.233	-1.580	.120	3.226
국어 평균	.052	3.052	.004*	1.544
읽기 이해	.249	2.244	.029*	1.706

* $p<.05$

- 1) REVT_E_Z_SCORE(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_Expressive_표준점수)
- 2) REVT_R_Z_SCORE(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_Receptive_표준점수)
- 3)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확대인자)

다. 속담비유에 대한 예측변인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속담이해능력의 하위요인인 속담비유에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REVT-R, REVT-E, 읽기이해, 국어 학업성취도 평균을 독립변인으로, 속담비유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결과 해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는지 검정한 결과 VIF는 10보다 작으므로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R^2 은 종속변수인 속담비유의 총 변동은 독립변수인 성별, 학년, REVT-R, REVT-E, 국어평균, 읽기이해에 의해서 22.1%정도 설명된다.

학년, REVT_R, REVT_E, 국어평균, 읽기이해를 통제했을 때,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의 속담이해가 0.249(점)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별, REVT_R, REVT_E, 국어평균, 읽기이해를 통제했을 때, 4학년에 비해 5학년은 0.147점 더 높았

고, 6학년도 4학년에 비해 0.106점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별과 학년, REVT_R, 국어평균, 읽기이해를 통제했을 때, REVT-E가 1점 증가하면 속담이해가 0.168점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별과 학년, REVT_E, 국어평균, 읽기이해를 통제했을 때, REVT-R이 1점 증가하면, 속담비유는 0.088점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성별, 학년, REVT_R, REVT_E, 읽기이해를 통제했을 때, 국어 평균이 1점 증가하면 속담비유도 0.018점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 학년, REVT_R, REVT_E, 국어평균을 통제했을 때, 읽기이해가 1점 증가하면 속담비유가 0.210점 증가하였지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속담비유에 대한 예측 변인

변인	B	t	p	VIF
상수	1.011	.760	.451	
성별	.249	.757	.452	1.143
x1_5학년	.147	.252	.802	3.210
x2_6학년	.106	.199	.843	2.670
REVT_R_Z_SCORE	-.088	-.836	.407	2.459
REVT_E_Z_SCORE	.168	1.140	.259	3.226
국어 평균	.018	1.070	.290	1.544
읽기 이해	.210	1.890	.064	1.706

- 1) REVT_E_Z_SCORE(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_Expressive_표준점수)
- 2) REVT_R_Z_SCORE(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_Receptive_표준점수)
- 3)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확대인자)

IV. 논의 및 결론

비유이해능력은 학령기의 학습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박정희(2011)는 10-12세 사이의 학생들이 속담이해에 관한 이해력이 개인마다 차이가 크고, 발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이 시기에 비유언어 진단 및 중재 시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하였다. 이는 학령기 이후 숨은 의미를 추론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학습과 사회적 상황에서 많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교실 환경이나 또래관계, 도서에서도 빈번하게 구어나 문어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비유언어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선정한 예측변인인 REVT-E, REVT-R, 읽기이해, 국어 학업성취도와 속담문항지 검사를 실시하여 성별과 학년별로 비교하였고, 속담이해능력(속담비유, 속담의미)에 대한 예측변인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수행했던 검사에서 성별과 학년별로 비교한 결과, 속담이해능력(속담의미, 속담비유), 국어 학업성취도, 읽기이해 모두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4학년 시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의 차이가 컸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평균을 획득하였지만 이후 5학년에서는 남학생의 높은 향상으로 여학생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고 읽기이해검사를 제외한 영역에서 여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또한 6학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남학생과 여학생의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지 않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속담의 이해 능력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결과는 성별을 통제하였을 때는 일치하지 않았다. 여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속담이해능력이 증가하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남학생의 경우 5학년까지 속담이해능력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6학년에서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김혜정(2006)의 연구에서 11세와 12세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속담이해의 점수는 증가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는 결과가 본 연구의 남학생이 6학년 시기에 속담이해능력이 감소하는 결과를 지지한다. 즉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속담이해점수는 증가하였지만 ‘학년’이 유의한 예측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김혜정(2006)에 의하면 초등학교 국어 교과과정 중, 속담이 한 단원을 차지하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학교에서의 집중적인 학습으로 인해 속담이해능력이 안정화를 이루기 시작하여 두 학년 집단 간의 이해능력의 차이가 줄어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속담이해점수가 5학년 시기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지만 6학년에서 다시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여학생이 여러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발달 속도가 빨라지면서 일찍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때의 성장과 발달 속도의 차이가 비유이해능력의 차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김혜정, 2006).

둘째, 속담이해능력에 대한 예측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련 변인 중에서 읽기이해와 국어과목이 속담이해능력을 예측해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속담이해의 하위요인인 속담의미 역시 읽기이해와 국어 과목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속담이해의 하위요인인 속담비유는 모든 변인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관련성은 없었다. 하지만 다른 변인들보다 읽기이해는 경계선급의 관련성을 나타내어 근소하게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속담이해능력과 그 하위 요인인 속담의미, 속담비유에 읽기이해와 국어 과목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온 까닭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김애화·황민아(2008)와 이임숙·조증열(2003)에 의하면, 읽기이해는 단어나 문장의 이해를 넘어서 이들 상징들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 및 서로의 관계성에 대해 독자의 사고를 요구하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기술이며, 음운론적 기술과 단어재인기술 이외에 의미론적 발달이나 구문론적 지식 등의 언어능력의 발달과 작업 기억이 필요한 상위 수준의 읽기 기술이라고 하였다. 박정희(2011)는 속담을 어린 아동들이 해석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속담과 같은 비유적 표현에 관한 이해력은 꾸준히 증가하며 이는 후기 언어 발달기(advanced language period)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하였다. 이처럼 속담이해는 문맥 속에서 비문자적인 방법으로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인 상위수준의 비유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속담이해문항지를 풀기 위해서는 읽기능력이 전제되어야함을 암시해준다. 따라서 속담이해능력의 발달은 읽기능력이 뒷받침이 되면서 비유언어능력 및 전체적인 언어능력의 이해가 향상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 국어성적이 속담이해능력을 유의하게 예측해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엄선영(2012)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속담의 지도 영역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언어지식, 문학 영역의 전체에 걸쳐있다고 하였다. 또한 속담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이고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주며 이해하고 추론하는 상위 기능의 신장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하였다. 김애화·황민아(2008)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읽기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어휘가 읽기이해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읽기이해에서 어휘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비유언어인 속담을 예측해주는 요인으로 읽기이해와 국어 교과목이 유의하다는 결과는 읽기이해를 위해서는 국어의 한 영역인 어휘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의 속담이해능력의 가장 중요한 예측 요인이 읽기이해능력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치료 현장에서 속담을 지도할 때 읽기이해영역을 증진시키는 것이 학생들의 비유이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넷째, 속담의 하위요인에서 속담비유보다 속담의미가 더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유의 결합 형태가 속담의 이해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의미항인지 비유

항인지의 비유 정도 여부는 속담이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김혜정(2006)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의미항과 비유항처럼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속담의 형태만 속담검사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즉 김혜정(2006)의 연구에서는 의미항과 비유항이 결합된 형태를 포함하였기에 그 결과에서 의미항과 비유항이 결합된 형태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언어치료 현장에서 속담이해를 진행할 때, 비유적인 측면보다 의미적인 측면을 먼저 적용하여 비유이해를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령기의 아동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유 언어에 노출되는 상황이 더욱 빈번해 진다. 비유언어 중에서도 속담이해는 학령기의 상위기술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속담이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나 치료 자료가 많지 않은 편이다. 더불어 선행연구에서는 속담에 관한 평가 및 중재의 자료로는 속담문항지의 유형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활용도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의 속담이해능력은 읽기 이해 및 전체적인 언어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상위의 언어능력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학령기 아동의 언어발달측정 시 속담이해능력을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임상에서 속담이해능력에 관여하는 변인인 국어 성적 및 읽기이해 영역의 평가를 통해 아동의 속담이해능력과 같은 상위의 언어능력발달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치료현장에서는 선행연구의 자료와 읽기영역과 연관을 지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성의 문제이다. 연구대상을 경기도 소재의 초등학교 고학년 총 60명으로 제한하여 표집 하였으므로 모든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생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 표본 수 확장과 더불어 경제적·교육적 수준이 다른 타 도시의 학생과 비교해봄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예측요인의 다양화이다. 본 연구의 예측변인 이외에도 다양한 변인들이 학생들의 비유언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대상자간 요인, 속담요인을 분류하여 어떤 변인이 속담이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비유이해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 또는 중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등학·강진옥·김기형·김현선·박경신·신동훈(2000).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In: 속담과 수수께끼의 이해-threke의 세계. 서울: 월인.
- 강수경(2006). 속담 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2001).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아동의 비유의미 이해.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수·김화수·이상경·황보명(2010). 언어발달 이론에서 실제까지. 서울: 학지사.
- 김애화·유현실·황민아·김의정·고성룡(2010). 초등학교의 읽기이해 능력 예측변인에 관한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5(3), 357-380.
- 김애화·유현실·황민아·김의정(2011). 읽기성취 및 읽기심리처리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 경기도와 충청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15(3), 276-294.
- 김애화·황민아(2008). 초등학교 고학년의 읽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읽기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3(1), 1-25.
-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2009).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김윤옥(2001). 수준별 교육을 위한 읽기 진단검사. 서울: 도서출판.
- 김윤정(2012). 일반 아동과 읽기이해 부진 아동의 속담의 친숙도와 문맥 유무에 따른 속담 이해 비교.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정(2006). 연령 및 성별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속담 이해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희(2011). 문맥 유무에 따른 속담 이해 능력: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및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영(2012). ADHD아동의 친숙도에 따른 속담이해능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혁(1994). 언어 사용으로서의 속담 표현의 특성. 선청어문, 21(1), 233-259.
- 엄선영(2012). 학업성취도에 따른 초등학교생들의 비례 추론 능력 및 전략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소정(2001). 속담 이해능력의 발달: 학령기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다미(2012). 학령기 아스퍼거 아동의 속담이해능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임숙·조증열(2003). 초등학생의 읽기와 인지-언어적 변인들과의 인과적 관계. 한국발달 심리학회지, 16(4), 211-225.
- 이임숙(2001). 초등학생의 읽기, 인지과제, 성적 및 학업효능감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아(2012). 경도지적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직유이해능력 비교. 단국대학교 특수대학원 석사논문.
- 정혜승(2002). 초등학생의 간접적 표현의 이해에 관한 연구; 은유와 속담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회, 132, 89-119.
- 조복희·이주연·강기숙(2007). 초등학교 아동의 속담인지수준과 인지속담의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5(4), 77-86.
- 조복희·이주연(2007). 후기아동의 속담이해능력과 사용정도에 관한 연구: 속담의 친숙도와 구체성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8(5), 19-36.
- 최영경(2012). ADHD아동과 일반아동 간의 읽기 유창성 및 읽기 이해력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예린·남정모·김향희(2008). 언어병리학에서 SPSS를 활용한 통계분석. 서울: 시그마프레스.
- 최하나(2006). 아동의 속담이해능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속담유형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길중(1998). 비교와 비유의 의미 - 비교와 직유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7, 321-343.
- 하동준(2002). 속담 패러지를 활용한 국어 표현능력 신장 방안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윤희(2001).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의 은유 이해능력 비교: 지각적 은유와 심리적 은유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혜숙(2010). 읽기이해부진 아동과 일반 아동의 문맥 유무 및 관용어 유형에 따른 관용어 이해능력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illow, R. M.(1975). A cognitive developmental study of metaphor comprehen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415-423.
- Milosky, L. M.(1994). Nonliteral language abilities. In GP. Wallach & KG. Butler (Eds.), *Language Learning Disabilities in School-Age Children and Adolescents*. NY: Merrill.

- Nippold, M. A. & Haq, F. S.(1996). Proverb comprehension in youth: The role of concreteness and familiarity. *J Speech Lang Hear Res*, 39, 166-176.
- Lutzer, V. D.(2001). Comprehension of proverb by average children with learning disorder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104-109.
- Hegde, M. N.(1995). *Introduction to communicative disorders* (2rd Ed.). Texas: Pro-ed.

〈부록 1〉 속담이해검사 문항지

속담 이해검사
 ()초등학교 제 학년 ()반 ()번 이름 ()

※ 다음 밑줄친 속담의 뜻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옆집 아저씨와 아줌마가 싸웁니다. 아줌마가 아저씨께 욕을 하자, 아저씨도 함께 욕을 하네요. 역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요.”

- ① 대화를 할 때는 말이 오고 가게 된다.
- ② 시끄러우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 ③ 어른들은 복잡한 일들이 많아 자주 싸운다.
- ④ 남에게 좋은 말이나 행동을 해야 나에게도 좋게 돌아온다.

2. 동근이는 시험 점수를 알게 되었는데, 점수가 나빠서 속상했어요. “아는 게 병, 모르는 게 약이에요.”

- ① 시험은 다음에 잘 보면 된다.
- ②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 ③ 아프면 약을 먹어야 병이 빨리 낫는다.
- ④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3. 영민이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물건을 훔쳤어요. 어머니는 “가난이 죄다.”라고 말하시며 미안해 했어요.

- ① 부모는 자식에게 미안해해야 한다.
- ② 영민이는 죄를 지어 감옥에 가게 되었다.
- ③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 ④ 집안 형편이 어려워 물건을 훔쳤다면 용서해줘야 한다.

4. 현빈이는 동생과 옆집 아이가 달리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동생이 이겼으면 했어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해요.”

- ① 피를 나눈 가족이 소중하다.
- ② 피가 물보다 색깔이 더 진하다.
- ③ 게임과 운동경기에서는 이기는 것이 좋다.
- ④ 가족과 함께 달리기를 하면 더 친해질 수 있다.

5. 지애는 컴퓨터 게임법을 친구에게 들었지만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집에서 직접 해보고 게임을 잘 하게 되었어요.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네요.”

- ① 백 번을 들으면 잘 알게 된다.
- ② 컴퓨터 게임을 배우는 것은 어렵다.
- ③ 여러 번 말로 듣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것이 낫다.
- ④ 친구에게 어려운 것을 물어보지 말고 혼자 힘으로 하자.

6. 준영이는 착해요. 또 공부와 축구도 잘 하는 아이랍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어요.”

- ① 사람은 착한 것이 중요하다.
- ② 일부를 보면 전체를 알 수 있다.
- ③ 공부와 축구를 잘하면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아진다.
- ④ 하나부터 열까지 세어가며 차분하게 맡은 일을 하자.

7. 미연이 아빠가 아프셔서 마을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하지만 미국에 계신 할머니는 떨어져 못 오세요.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네요.”

- ① 어머니는 이 마을에 오랫동안 살았다.
- ② 미연이네 친척은 멀리 떨어진 곳에 산다.
- ③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④ 할머니는 예전부터 아버지를 싫어해서 오지 않을 것이다.

8. 혜교는 선생님의 꾸중을 제대로 듣지 않고 딴 짓을 했어요. 선생님은 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구나.”라고 말하며 혜교를 혼내셨어요.

- ①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 ②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속상하다.
- ③ 한 쪽 귀로도 이야기는 들을 수 있다.
- ④ 선생님과 혜교는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듣고 있다.

9. 형이 동생을 때리자, 동생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라고 화를 냈어요.

- ① 동생을 때리는 것은 나쁘다.
- ② 동생이 화나면 형이 먼저 사과해라.
- ③ 길을 갈 때 지렁이를 밟고 지나가면 안 된다.
- ④ 약한 사람도 억울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한다.

10. 아버지는 돈을 벌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세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네요.”

- ① 목구멍에 포도가 걸렸다.

- ② 아버지는 일을 좋아해서 열심히 하신다.
- ③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힘들지만 재미 있다.
- ④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한다.

11. 형주네 집은 태풍으로 무너져서 당장 살 곳이 없어요. 어머니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 ① 태풍에 대비해 미리 준비를 하자.
- ② 우리나라는 여름에 태풍 피해가 많다.
- ③ 하늘을 쳐다보면 구멍이 있기 마련이다.
- ④ 어려운 일을 당해도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은 있다.

12. 은이는 덜렁거리는 성격이에요. 어머니는 은이에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 ① 실수를 하면 엄마한테 혼난다.
- ② 덜렁거리는 성격이 때로는 좋을 때가 있다.
- ③ 어떤 일을 할 때는 조심성 있게 해야 한다.
- ④ 돌다리를 건널 때는 물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13. 진희는 가방이 무거워서 진경이와 함께 들었어요. 진희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네.”라고 말했어요.

- ① 백지장으로 맞으면 많이 아프다.
- ② 가방은 가볍게 해서 다녀야 편하다.
- ③ 진희와 진경이는 정말 친한 사이이다.
- ④ 서로 힘을 합쳐 도와면 일을 쉽게 할 수 있다.

〈Abstract〉

Predicting Variables Affecting Understanding of Proverbs Of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Lee, Ji Yeon · Choi, Yaelin · Kim, Eunyeon
Myongji University, Myongji University, Samsung Medical Center

This study aims to select various predicting variables of understanding of proverbs, find out if the variables and understanding of proverbs are related, and finally see what factor will affect understanding of proverbs. The number of subjects of this study totaled 60 students 20 fourth graders, 20 fifth graders and 20 sixth graders-of elementary school. Subjects took tests of reading comprehension, Korean study achievement, REVT-R, REVT-E and understanding of proverbs in order to create basic data. To understand tests conducted by gender and grade, two-factor variance analysis was carried out, while for predicting variables affecting understanding of proverbs of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to conduc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omparisons of tests by gender and grade showed that understanding of proverbs-meaning of proverbs and proverb metaphors, students had similar scores in Korean study achievement and reading comprehension. Second, for predicting variables of understanding of proverbs, reading comprehension and Korean subject were related.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teaching proverbs in speech language therapy sites helps students to improve understanding metaphors by enhancing reading comprehension scope. It can be also proved that understanding of proverbs develops during the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in the same period of reading comprehension. What's additionally discovered is that ability to understand proverbs develops on condition that reading comprehension develops and capabilities for metaphoric language and overall language improve.

Key words :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Understanding of proverbs, Reading comprehension, Words, Korean Study Achievement

군 간부 및 병사의 상담에 대한 인식

-접경지역(GP, GOP) 내 부대를 중심으로-

정용철·홍혜영*
명지대학교

본 연구는 접경지역(GP, GOP)에 근무하는 병사 및 간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군 상담 활동의 실태를 확인하고 보다 적절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접경지역(GP, GOP)내에서의 특수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시키고 개개인 장병들이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자아발견과 자아성장을 촉진하도록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수행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파주, 연천, 강원도 철원 등의 DMZ 안의 접경지역(GP, GOP)내 약 15개 부대의 간부 61명, 병사 227명을 대상으로 상담실태, 상담요구사항 및 만족도, 활성화방안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군 상담실태는 상담실이 아닌 사무실이나 기타장소에서 상담을 하고 있으며 병사들은 상담안내를 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상담이용을 할 경우는 전입이전 등 의례적인 경우가 가장 많아 아직까지 병사들의 상담이용이 비자발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군 상담에서의 요구사항은 병사는 간부의 진솔성 있는 상담태도, 비밀보장을 요구하였고, 상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부들의 경우 과중한 업무량과 전문성부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군 상담활성화 방안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개방적인 분위기과 다양한 기회, 정보제공, 전문상담관의 배치,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 이를 위한 전문교육기회 제공, 진솔성, 비밀보장 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접경지역(GP, GOP) 군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와 연구의 의의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 군 상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접경지역(GP, GOP)

* 교신저자: 홍혜영(hyhong@mju.ac.kr)

■ 게재 신청일 : 2014년 5월 26일 ■ 최종 수정일 : 2014년 8월 3일 ■ 게재 확정일 : 2014년 8월 10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2010년 5월 4일부터 6. 25전쟁 60주년 기념특별전의 하나로 ‘Inside DMZ 사진 영상전’이 개최됨으로써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최전선지역이며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곳으로 일반에게 노출이 제한된 곳이다. 현재 정부 및 대외 기관과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DMZ에 대한 관심이 커져 비무장지대 내의 땅굴견학, 공동경비구역(JSA) 즉 판문점 전학 등 여러 형태의 국가안보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의 현실을 반영해 주기 때문이다.

DMZ(Demilitarized Zone)은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로 조약에 의해 군사적 시설과 군사적 행동이 금지된 지역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비무장지대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25일 04시 전쟁이 시작되었고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정전협정(停戰協定, Armistice Agreement)이 유엔군 측 대표 미 육군 중장 해리슨과 공산군 측 대표 북한군 남일 대장에 의해 서명되어 같은 날 22:00시부터 유효화되었다. 이 협정에 의거 155마일(248km)의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MDL), 일명 휴전선(休戰線)이 설정되었으며, 1,292개의 표지판(MDL Marker)을 설치하기로 하였다(정규서, 2002). 이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停戰)으로 남북관계가 대치됨에 따라 남북의 MDL(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간의 전쟁이 언제라도 촉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등으로 인해 군사분계선에 대북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을 재개(再開)하겠다는 군 당국의 발표는 그곳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있음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즉 타 국가의 국경과는 달리 남북의 접경지역은 전쟁으로 촉발될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곳, 즉 비무장지대이며, 접경지역이다.

또한 군대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수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특수한 방법으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곳이다. 즉 군대는 고도의 통일성이 요구되고 그 조직의 특성상 병사 개인의 욕구가 단절될 우려가 있으며,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억압과 심리적 불안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병사들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접경지역(GP, GOP)과 같은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적과 근접하여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불안함과 외로움이 과증되는 곳이다. 즉, 많은 사람들이 잇고 살지만 전방을 지키는 일은 이렇게 힘들고 열악하다. 따라서 이곳에서 목숨을 내놓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에게 관심을 갖고 병영생활을 안전하고 충실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북한과의 긴장감속에 지내고 있는 접경지역(GP, GOP) 병사들에게 올바른 상담활동은 꼭 필요하다.

군 상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군 상담학회와 대한 군상담학회가 발족되었고 군 상담자 교육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군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최보영, 2005). 더군다나 군 상담에 대한 연구가 군 교육기관의 장병 혹은 후방의 규모(대대급 이상)가 있는 부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각 부대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연구는 지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접경지역(GP, GOP)내 부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연구가 없어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부 및 병사들을 고려한 상담에 대한 정보수집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군 상담에 대한 연구들 중 본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김완일(2006)은 군 상담의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김완일 2004; 최보영, 2005; 최훈일, 2007; 황창의, 2008)에 기초하여 군 상담의 실태를 파악한 후 군 상담 모형 개발 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상담자 측면에서 볼 때 상담은 형식적, 지시적, 교훈적이며 상담자의 자질과 상담시간, 상담 장소가 부족하고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상담관련 자료도 거의 없고 상담 후 조치가 비효과적이기 때문에 또래상담의 활용과 상담자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최훈일(2007)과 정재훈(2008)의 육군병사를 중심으로 군 상담 실태 및 상담에 대한 요구분석에서 병사들의 입대 전 상담경험은 친구를 통한 상담이 많았으며, 군 상담경험도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군 생활 중 상담 받은 후 도움이 되었지만 상담자의 태도가 형식적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전역 후 진로에 대해 가장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담 받고 싶은 상담자로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가장 높았으며, 군 상담 활성화 방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담자의 전문성확보, 비밀보장문제, 간부들의 상담에 대한 중요성 인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우진(2007)은 보호관심병사 지도를 위한 군 상담 활성화 방안연구에서 육군 훈련소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상담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군 상담의 저해요인

으로 상담실에 대한 홍보부족, 상담관에 대한 불신감, 전문성 부족, 간부들의 과도한 업무 등으로 무엇보다 상담 시간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 상담활성화 방안으로는 병사나 간부 모두 상담관의 역할증대를 꼽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군 상담자는 내담자인 병사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질 함양과 아울러 부대에서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최보영(2005)은 국군야전병원 재원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활동의 실태 및 요구분석을 통해 병사들은 보다 이용하기 쉽고 비밀이 보장되며 효과가 있는 상담을 기대하고 있고 상담자나 상담실에 대해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병사들의 요구는 우리 군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상담관의 양성과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상담실의 운영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더불어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상담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의 연계를 통한 동료상담을 활성화 하는 군 상담 활동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귀제(2009)의 육군 포병장병들의 상담욕구와 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역할에 대한 연구에서는 포병부대 장병들의 개인적인 상담욕구와 부대적인 상담욕구를 파악하고 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확대도입을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역할 및 임무가 재정립되고 정기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아 군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황창의(2008)는 기본권 전문상담관 배치이후 군 상담활동의 실태와 요구를 분석하여 일반병사는 물론, 보호관심병사에게 부대관리나 병력관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사관의 경우 업무량과다와 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상담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동국(2001)의 해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함정 상담활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로 제한된 해군 함정에서 생활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함정에서는 각 부서별로 매월 1회 이상 생활태도나 신상 파악한 내용은 기록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일률적이며 피상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상담자를 위한 전문교재나 교육기회가 주어져야하고 상담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군 장병들의 상담에 대한 실태 및 상담욕구에 관련된 논문은 있으나 접경지역(GP, GOP)내 부대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따른 관련 논문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육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접경지역(GP, GOP)내 근무하는 간부 및 병사들을 대상으로 상담 실태를 파악하여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상담활동의 방향과 상담활성화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군 내담자(병사) 및 상담자(간부)가 인식한 군 상담의 실태 및 기대에 대한 것을 사실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접경지역(GP, GOP)내 부대의 군 장병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상담활동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접경지역(GP, GOP)내 부대의 일반적인 군 상담 실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담에 대한 요구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군 상담 활동의 만족도 및 저해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군 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접경지역(GP, GOP)부대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찰

DMZ이란 Demilitarized Zone의 약자로서 군사적 비무장지대를 뜻한다. DMZ은 휴전에 따른 군사적 직접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일정 간격을 유지한 완충지대를 말한다. 한반도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는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최고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쌍방은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군사적 완충지대로서의 비무장지대가 설치되었으며 당시에 설치되었던 비무장지대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①어떤 군인이나 민간인도 비무장지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북 각 지역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가 있어야 하며(정전협정 제1조 제8항), ②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인원이 아니면 비무장지대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정전협정 제1조 제9항). ③군사 분계선 이남(以南) 비무장지대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정전협정 제10항)로 협정이 확정되었다. 비무장지대 안에는 각종 대인 및 대전차 지뢰가 매설되어있고 더구나 북한지역의 지뢰지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지만 수많은 고성능지뢰가 군사분계선 전면을 봉쇄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최근 들어 북에서 흘러 내려온 목함지뢰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2010년 8월 3일에도 경

기도 연천군 사미천 인근 갈대밭에서 목함지뢰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아직도 이곳에는 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2010.8.3, 연합뉴스, 육군 1군단제공).

이처럼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停戰)’ 협정(協定)이라는 한계와 남북한의 첨예한 대치상황으로 인해 비무장지대의 설치는 군사적 측면에서 ‘완충지대화를 통한 적대행위의 재발 방지’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보면 첫째, 군사적 완충지대화를 통한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고 둘째, 상호감시체제 하의 격리공간을 둬으로써 기습의도를 억제하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비무장지대는 비무장화(非武裝化), 일정한 완충적 공간의 존재, 군사력의 분리 또는 군대의 격리 배치, 감시기구의 설치를 추진하며 정치적 측면에서 신뢰구축조치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은 지금까지 크고 작은 총격사고 등 무력 적대행위를 끊임 없이 자행하여 왔다. 1968년 1월 21일의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 1968년 10월 30일~11월 3일간의 울진·삼척 무장공비침투사건, 1973년 11월부터 계속된 일련의 서해 5도 침범사건, 1974년 8월 15일 대통령저격 미수사건, 1976년 8월 18일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미루나무 도끼만행사건), 4개의 남침용 땅굴 굴착 등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접경지역(GP, GOP)부대의 GP(GUARD POST)는 남방한계선에서 군사분계선 사이에 설치된 최전방 감시초소를 말한다.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2km 떨어져 동서로 그은 선을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2km 떨어져 동서로 그은 선을 남방한계선이라고 한다.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사이의 4km를 비무장지대(DMZ)라 하여 남북 사이의 완충지대로 삼아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 이 남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사이에 있는 것이 ‘전초(前哨)’로 부르는 ‘GP’이다. GP는 말 그대로 감시초소로서 북한군의 침투나 매복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한 북한의 동태를 파악하는 즉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최전방에 위치한 초소로서 통상 철책부대의 수색대대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민정경찰이라고도 한다. 고지마다 남한과 북한의 GP가 서 있는데 남한 GP는 성채와 같은 콘크리트 건물 전체가 드러난 반면, 북한 GP는 작은 초소 하나만 솟아 있고 막사와 병커는 초소 뒤와 땅 밑에 숨겨져 있다. DMZ 안에 이런 GP를 남한은 80여개, 북한은 200개 이상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선일보, 2010. 6. 8일자). 다음으로 GOP(GENERAL OUT POST)는 일반전초를 말한다. 통상 부대가 행군 후 정지하고 있을 때, 야영지나 전투진지에 있을 때 주력부대가 적의 기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력부대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배치되는 소대급 규모의 부대로서, 일반전초는 적군의 접근을 조기에 탐지하여 주력부대에 경고함과 동시에 제한된 공격행동으로 적이 아군(我軍)부대의 공격과 침투를 지연시키고 주력부대의 위치를 기만하여 가능하면 적이

아군 주력부대에 도달하기 전에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임무를 수행한다. 통상 남방한계선 이남의 철책부대를 호칭하는 경우가 많다. 철책을 만들어 남과 북이 서로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데, 양측 GP 간격이 가까운 곳은 25m 먼 곳은 14km나 되는 곳도 있다. 조선일보(2010. 6. 20일자)에 기재된 ‘DMZ 안 GP의 그 군인들이란’ 기사의 내용을 보면 접경지역내 근무 환경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접경지대(GP, GOP) 부대생활에 대해 기자는 전방부대의 병사들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대부분 GP에 한번 들어간 병사는 2~3개월 동안 외출·외박·면회는 생각할 수 없는 실정이다. GP, GOP의 근무 병사는 적은 인원과의 생활, 밤에는 밀어내기식의 초소근무를 하고 낮 시간에는 취침으로 생활 리듬이 깨어지고 있다. 이런 근무 환경은 야밤에 넓은 숲과 적막함이 넘치고 적과 근접하여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불안함과 외로움이 있다. 종교 활동의 제한, 사회와의 단절된 환경과 활동공간이 부족하고 인터넷도 없기 때문에 병사들은 쉽게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 추측된다. 따라서 접경지역(GP, GOP)부대의 병사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

2. 군 상담의 이해

군 상담(military counseling)의 정의를 살펴보면, 김대운(1980)은 ‘군 집단 내 병사 개개인의 행동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 나아가 그들의 훈련이나 업무 수행 등 근무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인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장호(2005)는 ‘각 군의 교육기관 및 각급부대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으로서, 국가방위라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엄격한 상명하복(上命下服) 속에서 자유로운 사적 생활의 제약을 받는 등, 특수성을 갖는 군 사회에서 야기되는 구성원들의 갈등과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한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고등군사반 상담교재(2004)에서는 ‘다양한 문화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부하들 가운데 자신의 심리적 갈등이나 애로사항 때문에 능력을 보유하고도 맡은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없을 때, 업무수행 등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휘통솔자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찾아 도와주는 과정’으로 기술하였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군 상담이란 군부대내에서 상담교육을 받은 간부(상담자)가 병사(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전문적인 조력 활동을 통하여 병사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군상담은 일반 전문상담과는 달리 20대 청년층으로 제한적이며 동등관계가 아닌 계급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 상담은 단기상담이며 내담자가 대부분 비자발적이고 일부 제한된 비밀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 전문상담과는 차이점이 있다.

현재 군 상담관은 군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상담(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군종장교(또는 군의관) 및 지휘 상담(지휘관 및 병영생활 상담관)으로 구분한다. 첫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사단급 기준 2명 1개조로 군 출신 전문상담관(예비역)과 민간 전문상담관으로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비사단 22명, FEBA사단 22명, 향토사단 20명, 군 사령부 병역심사대 4명, 육군 수사단 ‘생명의 전화’ 상담관, 육군 훈련소등 총 74명으로 편성 운영 중에 있다(육군본부, 2009). 전문상담관(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전문적인 상담교육을 받은 상담전문가가 심리적인 불안과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병사 및 간부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기법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어 병영생활에 바람직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전문상담가이다(김무영, 2009).

둘째, 군종장교는 군대에서 성직자(목사, 신부, 스님, 교무)의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직 장교를 말한다. 2010년 현재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에서 군종장교 500여명 정도가 임관하여 복무 중이다. 군종장교는 장병 1500명당 1명씩 인가를 받는다(국방부, 2010). 군종장교의 업무는 종교업무와 교육업무 및 선도업무 등 다양하지만 상담업무도 매우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군종장교에 의한 상담은 평균적으로 월 7.5회 정도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홍창우, 2005).

셋째, 지휘 상담(지휘관 및 병영생활 상담관)은 지휘관 및 간부가 심리적 갈등이나 병영생활의 부적응 및 개인생활의 문제로 인하여 자신의 잠재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병사에게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잠재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과정이다(김무영, 2009).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군(全軍)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접경지역(GP, GOP) 부대 내 간부 및 병사의 상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상담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 대상은 경기도 파주, 연천, 강원 철원 등의 DMZ 안의 접경지역(GP, GOP)내 약15개 부대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직접 부대를 방문하거나, 부대 출입의 제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 간부에게 의뢰하여 간부 및 병사 400~4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302명분을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미회수 및 부실응답자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분석된 대상은 간부 61명, 병사 227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선행연구 중 군 상담관련 연구(임우진, 2007; 황창의, 2008; 최보영, 2005)와 학교상담관련 연구(정혜영, 2005; 진해옥, 2004) 등을 참고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작성된 질문지가 접경지역(GP, GOP)내 부대의 특수성이 잘 반영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접경지역(GP, GOP)내 부대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사단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검증을 거쳤다. 이를 토대로 작성된 질문지는 심리학박사이며 현재 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는 분의 자문을 받아 병사(내담자)용 질문지 26문항, 간부(상담자)용 질문지 25문항으로 완성하였다. 질문지 하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질문지 조사내용 및 세부항목

대상	세부영역	상담내용
병사	상담실태	상담 장소, 상담실 여건, 상담실 이용안내, 상담실 역할, 상담대상, 상담횟수, 상담 동기, 상담 시 대화방법
	상담에 대한 요구	상담의 필요성, 상담이 도움이 된 이유, 상담자와의 친밀감 정도, 상담자 선택기준, 원하는 상담자, 원하는 상담형태, 원하는 상담실 모습, 상담자에게 바라는 것, 비밀보장 여부, 상담프로그램 참여여부, 고민 정도, 상담하고 싶은 내용(세부사항)
	상담의 만족도와 저해요인	상담 후 도움 정도, 상담 만족도 정도, 상담결과 도움이 되지 못한 이유, 상담을 못한 이유
	군 상담 활성화방안	접경지역내의 어려움, 군 상담 활성화 방안
간부	상담실태	상담실 장소, 상담실 여건, 상담실 이용안내, 상담대상, 상담횟수와 시간, 기초자료 구비, 상담 경로, 내담자의 자료수집방법, 상담대화방법, 상담기술습득 경로, 주로 사용하는 상담기법
	상담에 대한 요구	군 상담의 필요성여부, 상담목적, 상담관 역할, 병사들의 가장 많은 고민, 병사들이 가장 바라는 것
	상담의 만족도와 저해요인	상담만족도 정도와 이유, 상담 후 변화정도, 자기개발정도, 상담불만족 이유, 상담을 받지 못한 이유, 상담지도가 어려운 이유, 상담활동의 저해요인
	군 상담 활성화방안	군 상담 발전방향, 접경지역내의 상담활성화 방안

3. 자료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질문지 조사내용 및 항목을 설문 대상인 병사와 간부에 따라 각각의 독립변수 별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즉 병사와 간부는 각각 상담실태, 상담에 대한 요구, 상담의 만족도와 저해요인, 상담활성화 방안의 설문 문항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병사에 대해 이병과 일병, 상병과 병장을 각각 집단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일부문항에 대하여 간부와 병사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설문 조사에 따라 수집되고 정리된 자료는 부호화 작업을 거쳐 SPSS 17.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군 내담자(병사)와 상담자(간부)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내담자(병사)는 접전지역(GP, GOP) 부대의 복무중인 227명으로, 병장 13.2%(30명), 상병 38.3%(87명), 일병 39.6%(90명), 이병 8.8%(20명)가 응답하였다. 또한 연구의 상담자(간부)는 접전지역(GP, GOP) 부대의 복무중인 간부 61명으로, 대위 이상 영관급 장교가 11.5%(7명), 중·소위가 3.3%(2명), 원·상사가 13.1%(8명), 중·하사가 72.1%(44명)이다. 상담자 중에 상담자격증이 있는 상담자는 61명 중 1.6%(1명)는 평생교육원에서의 심리상담2급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었다. 또한 상담교육을 받은 상담자는 73.8%(45명)이고, 전혀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상담자는 26.2%(16명)이다.

〈표 2〉 군 내담자(병사)와 상담자(간부)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병 사	계급	이병	20	8.8
		일병	90	39.6
		상병	87	38.3
		병장	30	13.2

병사	학력	고졸미만	0	0.0
		고졸	23	10.1
		대재	200	88.1
		대졸이상	4	1.8
		합계	227	100.0
간부	계급	대위 이상 영관급	7	11.5
		중·소위	2	3.3
		원·상사	8	13.1
		중·하사	44	72.1
		없다	60	98.4
	상담 자격	있다	1	1.6
		상담관련학과 졸업	0	0
	상담교육 여부	상담관련교육 6개월 이상 이수	4	6.6
		상담관련교육 1개월 이상 6개월 이수	10	16.4
		상담관련교육 1개월 이하 이수	31	50.8
전혀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		16	26.2	
		합계	61	100.0

2. 상담실태

가. 상담장소

병사와 간부의 인식 차이에서는 병사는 생활관, 야외, 충성클럽 등에서 상담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38.8%(88명)가 대답했고, 간부는 행정반(사무실)/간부연구실 42.6%(26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상담실에 대한 인식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병사는 기타 의견인 생활관, 야외, 충성클럽 등에서 상담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반면, 간부는 행정반(사무실)과 간부연구실에서 가장 많이 상담을 한다고 답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장병 병영상담실 15.3%(44명)와 지휘관실 9.7%(28명)로 극소수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상담을 주로 하는 장소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병사		간부		전체	
	N	%	N	%	N	%
장병 병영생활 상담실	32	14.1	12	19.7	44	15.3
행정반(사무실) / 간부연구실	81	35.7	26	42.6	107	37.2
지휘관실	26	11.5	2	3.3	28	9.7
기타(생활관, 야외, 충성클럽 등)	88	38.8	21	34.4	109	37.8
합계	227	100.0	61	100.0	288	100.0

나. 상담실 이용에 관한 안내경험

지난 6개월간 병사는 상담실 이용에 관해 안내를 받은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41.0%(93명)이나, 간부는 전혀없다가 23.0%(14명)로 나타났다. 간부는 상담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나, 병사는 그것을 안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간부가 실제 상담안내를 하였으나 병사가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전혀 없다고 응답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간부가 비형식적(비공식적)으로 상담을 안내하였는데 이를 병사가 상담안내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표 4〉 상담실 이용의 안내 경험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병사		간부		전체	
	N	%	N	%	N	%
많이 있다(5회 이상)	26	11.5	9	14.8	35	12.2
조금 있다(1~4회)	108	47.6	38	62.3	146	50.7
전혀 없다	93	41.0	14	23.0	107	37.2
합계	227	100.0	61	100.0	288	100.0

$$\chi^2 = 6.687 \text{ (df} = 2, p = .035)$$

다. 주요 상담자와 내담자

병사들이 인식하는 상담자는 직속상관(대·중대장 및 소대장과 간부)이 65.7%(149명)이고, 또래 병사가 21.6%(49명)로 나타났으며, 간부들이 생각하는 내담자는 소속(담당)병사가 52.5%(32명)로 절반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5〉 주요 상담자와 내담자

구분		빈도(명)	백분율(%)
병사	지휘관 (대·중대장)	21	9.3
	소대장 및 간부	128	56.4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16	7.0
	또래 병사	49	21.6
	군종장교 및 군의관	1	0.4
	혼자서 해결한다	7	3.1
	기타	5	2.2
합계		227	100.0
간부	중대내 병사	10	16.4
	소속(담당) 병사	32	52.5
	보호 관심 병사	9	14.8
	부대 내 모든 병사	10	16.4
	합계	61	100.0

라. 상담하게 된 경로와 자료수집 방법

간부는 병사와 상담을 하게 되는 가장 많은 경로는 전입 및 휴가 등 의례적으로 하는 경우가 42.6%(26명)이고, 과학적 진단 결과(군 인성검사, 우울증 검사 등) 필요한 경우가 27.9%(17명) 등이며, 상담 대상 병사에 대한 자료는 주로 생활지도기록부 등 신상카드에서 37.7%(23명), 분대장 또는 소대장을 통해서 26.2%(16명), 표준인성검사 등 심리검사 자료로 23.0%(14명) 등으로 나타났다.

〈표 6〉 상담경로와 자료수집 방법

N=61

구분		빈도(명)	백분율(%)
병사와의 상담경로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	14	23.0
	전입 및 휴가 등 의례적으로 하는 경우	26	42.6
	상급 지휘관이나 다른 간부의 권유	3	4.9
	과학적 진단 결과(군 인성검사, 우울증 검사 등) 필요한 경우	17	27.9
	기타 문제를 일으켜 의뢰한 경우	1	1.6
병사에 대한 자료수집 방법	생활지도기록부 등 신상카드	23	37.7
	표준인성검사 등 심리검사 자료	14	23.0
	분대장 또는 소대장을 통해	16	26.2
	인접 간부	0	0
	부모 등 가정을 통해	3	4.9
	동료병사를 통해	5	8.2

3. 상담에 대한 요구 사항

가. 병사가 원하는 상담자와 가장 바라는 것

병사가 원하는 상담자는 지휘관이 11.0%(25명)이고, 간부(병영생활상담관)가 39.2%(89명)로서 50.2%(114명)가 부대 내 간부와 의 상담을 원하고 있으며, 동료(전우)가 26.9%(61명)로 같은 또래의 병사가 상담자의 역할을 원하는 병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군종장교와 군의관은 각각 1.8%(4명)씩 나타났으며,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18.1%(41명)로서 부대에 배속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의 전문적 상담을 원하는 병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가 상담을 할 때 상담자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가 50.7%(115명)이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가 31.3%(71명)등이다.

〈표 7〉 상담을 할 때 상담자에게 가장 바라는 것

N=227

구분	빈도(명)	백분율(%)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115	50.7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71	31.3
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34	15.0
나의 문제를 상담자가 직접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7	3.1

나. 상담의 목적과 상담관의 역할

간부가 인식하는 군상담의 중요한 목적은 병사들의 고민 해결이 37.7%(23명)이고, 24.6%(15명)는 병사의 문제행동 예방과 부대 적응 유도로 각각 나타났으며, 상담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고민해결이 26.4%(42명)이고, 병사의 문제행동예방이 21.4%(34명), 부대적응유도가 20.8%(33명) 등으로 나타났다.

〈표 8〉 간부가 인식하는 상담의 중요한 목적과 상담관의 역할

	구분	빈도(명)	백분율(%)
상담의 중요한 목적	병사의 문제행동 교정	5	8.2
	병사의 문제행동 예방	15	24.6
	고민 해결	23	37.7
	부대 운영 정보 제공	0	0
	교육 실시 (사고예방, 성교육 등)	3	4.9
	부대 적응 유도	15	24.6
	합계	61	100.0
	상담관의 역할 (중복응답)	병사의 문제행동 교정	26
병사의 문제행동 예방		34	21.4
고민 해결		42	26.4
교육 실시 (사고예방, 성교육 등)		17	10.7
설문조사		0	0
부대 적응 유도		33	20.8
정보제공		7	4.4
기타		0	0
합계		159	100.0

다. 비밀보장

상담 내용에 관한 비밀 보장 여부에 대하여 이·일병과 상·병장과의 교차분석을 한 결과 비밀은 절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응답한 이병과 일병은 30.4%(69명), 상병과 병장은 37.9%(86명)으로 이병과 일병보다는 상병과 병장이 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68.3%가 비밀은 절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보았다.

〈표 9〉 상담 내용에 관한 비밀 보장 여부에 대하여 이·일병과 상·병장과의 교차분석

구분	이·일병		상·병장		전체	
	N	%	N	%	N	%
비밀은 절대로 지켜져야 한다	69	30.4	86	37.9	155	68.3
가능한 비밀은 지켜져야 한다	41	18.1	28	12.3	69	30.4
비밀은 지켜지지 않아도 상관없다	0	0.0	3	1.3	3	1.3
합계	110	48.5	117	51.5	227	100.0

$\chi^2 = 7.105$ (df = 2, p = .029)

라. 고민하는 문제영역

병사가 최근 어려움을 겪거나 고민하는 문제영역을 중복 응답한 결과 학교/진로문제가 31.7%(10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민은 있지만 상담 받지 않겠다가 6.6%(22명)도 조사되었다.

〈표 10〉 병사가 고민하는 문제의 영역 (중복응답 N=334)

구분	빈도(명)	백분율(%)
가정문제	26	7.8
병영생활 문제	50	15.0
이성문제	39	11.7
학교/진로문제	106	31.7
개인문제	73	21.9
대인문제	18	5.4
고민은 있지만 상담 받지 않겠다	22	6.6

4. 상담만족도와 저해요인

가. 상담 후 도움정도 여부와 이유

병사가 군 생활 전반에 대하여 상담을 받은 후 문제해결의 도움 정도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가 25.1%(57명), 약간 도움이 되었다 56.4%(128명)로 긍정적 응답이 81.5%(185명)이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15.9%(36명),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가 2.6%(6명)로 18.5%(42명)가 부정적 응답하였다. 상담을 받은 후 도움이 되었다는 이유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문제해결의 방법적 측면으로는 조언, 충고 등 문제해결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직접 제시해줌으로써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병사가 24.1%(21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는 의견에는 상담을 받을 때 자신의 고민거리나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는 형식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거나 부대 내에서는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도움이 안 되었다고 응답한 병사는 44.4%(8명)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11〉 병사가 상담 후 도움 여부와 이유(자유기술)

구분		빈도 (명)	백분율 (%)
상담 후 도움이 된 이유	병영생활 대해 숙지 및 숙달해야할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함과 부대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	7	8.0
	건강문제를 상담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해결 보았다	1	1.1
	자신의 성격을 파악해주고 문제해결책에 대한 도움을 받음으로써 심리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	4	4.6
	개인의 문제 발생시 문제의 요점과 해결방안을 알려주어 도움이 되었다	3	3.4
	진로문제에 도움을 받은 경우	1	1.1
	문제해결의 방법으로는 조언, 충고 등 문제해결방향을 여러 방향으로 직접 제시해줌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다	21	24.1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6	6.9
	문제해결을 스스로 할 수 있게 조언이나 의견을 제시해줌으로써 병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10	11.5
	상담을 통해 병사들의 입장에서 적극적 경청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병사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어서 도움이 되었다	5	5.7
	간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고민을 공유해봄으로써 마음의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19	21.8
	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은 물론 상담 후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4	4.6
	상담이 도움이 되었지만 전체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도움 정도가 미약하다고 응답하거나 문제 자체를 설명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6	6.9
	합계	87	100.0
상담 후 도움이 안 된 이유	자신의 고민거리나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는 형식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거나 부대 내에서는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도움이 안 되었다	8	44.4
	간부의 상담경험부족이나 형식적이며 일방적, 지시적 대화방법으로 인하여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16.7
	상담을 전혀 받아보지 않았다	4	22.2
	기타의견으로는 기억이 안 나가거나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는 등 상담에 대해 부정적 견해	3	16.7
	합계	18	100.0

나. 고민이 있을때 상담받지 못한 이유

병사가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하지 않는 이유로 병사는 고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상담하지 않는다 41.9%(9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간부는 병사가 상담하고 싶은 간부가 없거나 36.1%(22명),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31.1%(19명)로 나타났다.

〈표 12〉 병사가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교차분석

구분	병사		간부		전체	
	N	%	N	%	N	%
누구와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할지 절차를 몰라서	21	9.3	7	11.5	28	9.7
마음을 떨어놓고 상담하고 싶은 간부가 없어서	22	9.7	22	36.1	44	15.3
상담해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49	21.6	19	31.1	68	23.6
고민이 별거 아니어서	95	41.9	2	3.3	97	33.7
상담내용을 밝히기가 두려워서(비밀보장 안돼서)	19	8.4	11	18.0	30	10.4
상담 후 낙인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10	4.4	0	0	10	3.5
근무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3	1.3	0	0	3	1.0
기타	8	3.5	0	0	8	2.8
합계	227	100.0	61	100.0	288	100.0

$$\chi^2 = 55.188 \text{ (df} = 7, p = .000)$$

다. 상담결과에 대한 만족도와 이유

간부가 병사와 상담을 마친 후 상담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67.2%(41명), 대단히 만족 3.3%(2명)로 70.5%(43명)가 만족하고 있으며, 반면 불만족 27.9%(17명)로서 1/3 정도의 상담자(간부)는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상담 후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로는 병사를 잘 이해하게 되고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68.2%(30명)로 가장 많았고, 상담 후 병사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18.2%(8명)이고, 상담 후 병사의 행동이 교정되었다가 11.4%(5명)등이며, 상담 후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병사가 문제를 솔직히 털어 놓지 못함이 47.1%(8명)이고,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지 않아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려워서가 29.4%(5명)가 나타났으며 그 외의 이유도 있었다.

또한 상담 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간부용 설문지 문항에 응답한 응답자 61명중 22명이 자유기술 하였으며, 병사의 문제가 되는 행동을 상담으로 지도하기 어려운 경우의 이유로 제시한 의견은 업무의 과중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상담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9.1%(2명), 상담에 대한 교육 부족과 전문적 지식이나 상담기법의 부족 등 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있다는 견해가 36.4%(8명)이었으며, 상담 후 상담 내용의 지휘보고 및 조치를 위해 비밀 보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9.1%(2명)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13〉 간부가 병사와의 상담 결과에 대한 만족도 여부와 이유 및 어려운 점

		구분	빈도(명)	백분율(%)
만족하다고 생각한 이유		상담 후 병사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8	18.2
		상담 후 병사의 행동이 교정되었기 때문이다	5	11.4
		병사를 잘 이해하게 되고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0	68.2
		상담자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	2.3
		합계	44	100.0
불만족 하다고 생각한 이유		상담자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주지 못함	3	17.6
		병사가 문제를 솔직히 털어 놓지 못함	8	47.1
		상담자와 병사의 견해 차이가 심함	1	5.9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지 않아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움	5	29.4
		합계	17	100.0
상담시 어려운 점 (자유기술)		업무의 과중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상담 기회가 부족	2	9.1
		상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	8	36.4
		상담내용의 지휘보고 및 조치를 위해 비밀 보장이 어렵다	2	9.1
		병사들이 상담에 대한 진실성 및 개방성 결여	6	27.3
		현재 병사들의 이상 행동이나 개인주의 성향과 인식의 차이로 인 해 상담하여도 노력이나 개선의 의지가 없다	3	13.6
		전문상담관 부족	1	4.5
	합계	22	100.0	

4. 상담활성화 방안

가. 접경지역(GP, GOP)에서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병사가 접경지역(GP, GOP)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지역과 달리 어렵다고 느끼는 점과 이에 따른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문지의 응답자 227명중 55명이 위 문항에 대해 자유기술 하였다. 먼저 접경지역(GP, GOP)에서 근무하면서 다른 지역과 달리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하여 20명이 다양하게 서술하였다. 지역적 여건에 대한 어려움으로 접전지역에 있으면서 당연히 힘들고 고생하는 곳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상담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였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면회가 힘들어서 사회와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 부대보다 복과 가깝기 때문에 적과 대치 상황에 따른 위협과 불안이 과증될 것이라 여기고 근무에 대한 부담과 전방이라는 스트레스가 있다고 답하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른 접경지역

(GP, GOP)에서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상담관 배치 16.4%(9명), 상담의 정기적, 지속적 운영 16.4%(9명)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또한 군 발전과 후임들을 위하여 군 상담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설문지응답자 227명중 92명이 위 문항에 대해 자유기술 하였다. 마음을 털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개방적 분위기와 다양한 기회를 제공 26.1%(24명), 전문상담관 확보 6.5%(6명)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14〉 접경지역(GP, GOP)에서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자유기술)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접경지역 (GP, GOP) 에서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상담실의 개방적이고 편안한 환경 조성	5	9.1
	병·간부의 적극적 참여	7	12.7
	비밀보장	3	5.5
	전문상담관 배치	9	16.4
	또래상담병사 배치	1	1.8
	순회상담사 필요	5	9.1
	상담의 정기적, 지속적 운영	9	16.4
	사이버 상담 활성화	1	1.8
	상담을 위한 시간확보 및 홍보	2	3.6
	간부의 상담에 대한 전문성 확보	3	5.5
	설문지를 조사하여 상담활성화	1	1.8
	정책적 지원	1	1.8
	잘 모르겠다와 별로 어려움이 없다	8	14.5
	합계	55	100.0
군 상담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상담을 월, 주단위로 정기적, 적극적으로 운영	13	14.5
	마음을 털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개방적 분위기와 다양한 기회제공	24	26.1
	전문상담관 확보	6	6.5
	또래병사나 선후임들간의 1:1 멘토링을 통한 상담의 활성화	6	6.5
	상담 후 비밀보장이 필요	10	10.9
	상담실의 확보 및 상담시간의 확보가 필요	9	9.8
	상담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한 상담간부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	7	7.6
	병사들이 상담에 임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중요	4	4.3
	설문조사를 통해 상담활성화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	2	2.2
	상담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권유가 필요	3	3.3
	마음편지(소원수리)나 사이버 상담을 통한 활성화	3	3.3
	모르겠다와 지금 상담이 잘되고 있다	5	5.4
합계	92	100.0	

나. 군 상담이 보다 잘 이루어지려면 바뀌어야 할 점

간부가 인식할 때 부대 내 군 상담이 보다 잘 이루어지려면 상담자의 전문가적 자질이 필요 55.7%(34명) 군 상담활동에 대한 정책 및 홍보가 각각 14.8%(9명)씩 필요 등 다양한 응답이 있었다. 또한 간부가 생각할 때 접전지역 내에서 상담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설문지에 응답한 응답자 61명중 30명이 자유기술 하였다. 전문상담실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상담실 마련이 필요 20.0%(6명)하며, 전문상담관이 상주 또는 순회하여 주기적으로 상담이 필요하다 30.0%(9명)등 이밖에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15> 군 상담이 보다 잘 이루어지려면 바뀌어야 할 점

구분		빈도(명)	백분율(%)
상담이 보다 잘 이루어지기 위해 바뀌어야할 점	병사들의 태도	5	8.2
	상담에 대한 홍보	9	14.8
	상담자의 전문가적 자질	34	55.7
	군 상담활동에 대한 정책	9	14.8
	인접 간부들의 협조	1	1.6
	기타	3	4.9
합계		61	100.0
접전지역 내에서 상담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병사들에게 상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	4	13.3
	간부들의 상담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필요	3	10.0
	전문 상담실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상담실 마련이 필요	6	20.0
	병사에 대한 체계적, 정기적 상담이 필요	1	3.3
	전문상담관이 상주 또는 순회하여 주기적으로 상담이 필요	9	30.0
	또래 병사와의 멘토링을 통한 상담활성화 방안을 제시	1	3.3
	인터넷을 통해 병사의 주변인물과의 대화를 통하거나 담당간부로부터의 다양한 정보수집이 필요	1	3.3
	비밀보장이 필요	2	6.7
	병사와 간부와의 세대차이 및 인식의 전환이 필요	2	6.7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다	1	3.3
합계		30	100.0

V. 결론 및 제언

연구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중요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접경지역(GP, GOP)에 근무하는 간부 및 병사의 군 상담 실태를 살펴보면, 주로 상담을 하는 장소는 행정반(사무실)/간부연구실이 가장 많이 활용 되고, 그 다음으로 병영생활상담실(주임원사실 등)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접경지역(GP, GOP)내 부대에는 상담전용실이 거의 없고, 상담자는 주로 소대장과 간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상담 장소는 PX와 행정반(사무실)/간부연구실이 활용되고 있고 간부와 병사의 상담경험은 1~4회가 가장 많았다. 1년간 상담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병사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상담 이유는 절반 이상이 문제로 인한 경우였다(임우진, 2007; 최훈일, 2007; 최보영, 2005). 본 연구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상담실이 운영되기 보다는 행정반이나 사무실 등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상담횟수나 상담방법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상대적으로 접경지역(GP, GOP)에는 일반부대와는 달리 전문상담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또한 접경지역(GP, GOP)에 근무하는 병사와 간부는 대화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부대보다 간부들이 병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사되었다.

둘째, 군 상담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병사와 간부 모두 부대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상담내용으로 병사는 학교/진로문제, 개인문제, 병영생활문제, 이성문제와 가정생활 문제 순으로 고민하였다. 간부는 상담의 목적을 병사들의 고민해결, 문제예방 및 교정, 부대적응유도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병사들이 상담하고 싶은 간부는 병영생활상담관(주임원사와 간부)과 동료(또래병사)였고, 또한 다수의 병사는 상담 전문가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의 상담을 원하고 있다. 병사들이 상담을 하면서 바라는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 주었으면 좋겠다가 가장 많았으며, 절대 다수가 상담에 대한 비밀이 절대로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병사 보다는 간부가 상담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병사와 간부가 생각하는 주된 상담내용은 복무적응문제이고 그 외에 개인문제로는 진로 및 장래문제이었다. 상담에 대한 비밀 준수 문제도 병사와 간부 모두 강조하고 있다(임우진, 2007; 최훈일, 2007; 최보영, 2005). 본 연구에서 접경지역(GP, GOP)에서 근무하는 병사와 간부의 생각은 개인문제를 더 많이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는 대규모적 부대여서 복무적응문제가 심각한 반면 접경지역(GP, GOP)에서는 소규모적이어서 개인문제에 더 관

심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접경지역(GP, GOP)에서 필요한 상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규모적인 상담 방식보다는 소규모적이며 개인적인 상담을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군 상담에 대한 만족도와 저해요인으로 병사들은 군 상담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았다고 대부분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도움이 된 주된 이유는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로부터 직접적인 해결책을 들었으며, 상담자가 직·간접적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었고, 또는 문제해결보다 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한 관계성에서 느낌이 좋았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병사들이 상담과정에 대해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있었는데, 이유로는 상담을 받을 때 자신의 고민거리나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는 형식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거나, 간부의 상담경험부족이나 형식적이며 일방적, 지시적인 대화방법으로 인하여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상담 자체를 받아보지 못한 병사도 있었으며, 간부들은 상담활동에 대하여 대부분 만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 이유는 병사들을 잘 이해하게 되었고, 병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병사와 깊이 있는 상담이 저해되는 요인으로는 상담자 개인적인 원인으로 전문지식 및 상담기법 부족, 업무량과다와 시간부족뿐 아니라 상담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담을 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병사와 간부 모두 만족하거나 보통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유로는 병사들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며, 간부들은 병사들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군 상담의 저해요인으로는 병사들은 자신의 문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며, 문제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상담하고픈 간부가 없고 상담 내용의 공개가 두려워서인 반면, 간부들은 전문지식 및 상담기법의 부족, 업무량 과다, 상급자의 이해부족, 병사들의 상담에 임하는 태도 문제였다(정재훈, 2008; 임우진, 2007; 최훈일, 2007; 최보영, 2005). 본 연구에서도 군 상담에 대한 저해요인으로 일반부대와 접경지역(GP, GOP)부대와 별반 차이가 없는 반면 군 상담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일반부대와 달리 접경지역(GP, GOP)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의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부대와는 다르게 지역적으로 사회와 단절되고 고립된 환경에서 근무하며 또한 소규모 부대이기에 간부와 인간적 유대관계가 깊고 상담에 대한 기대가 있으므로, 상담이 이루어지면 일반부대보다 더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접경지역(GP, GOP)에 적합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병사들이 생각하는 접경지역(GP, GOP)의 부대생활은 당연히 힘들고 고생하는 곳이라는 것과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면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와 떨어져 있

어 외롭고 적과 근접(近接)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과 불안이 과증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접경지역(GP, GOP)에서의 상담활성화 방안으로 병사들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전문상담관) 배치, 상담의 정기적·지속적 운영, 병·간부의 적극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 순회상담제도의 필요, 상담실의 개방적이고 편안한 환경 조성,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간부의 상담에 대한 전문성 확보 등을 필요로 하였다. 간부들이 생각하는 부대 내 군 상담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상담자의 전문가적 자질과 군 상담활동에 대한 정책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병사들의 상담에 임하는 태도, 인접 간부들의 협조 등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전문상담관(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및 간부)의 상주 내지 순회가 필요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간부와 병사 간의 유대관계 정립이 필요하였다. 특히, 접경지역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상담실 전용공간 및 전문상담관(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및 간부)의 상주 내지 순회가 더욱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병사들은 상담자의 전문성 확보가 가장 높고, 비밀보장문제, 병사들의 상담에 대한 관심 이외에도 상담제도의 체계화 및 간부들의 관심 등이 있었다. 간부들 역시 병사들과 같은 개념으로 상담의 활성화를 원하고 더불어 전문병영상담관(전문상담관) 제도의 조기정착을 강조하였다(정재훈, 2008; 임우진, 2007; 최훈일, 2007; 최보영, 2005). 전문병영생활상담관에 대한 필요와 요구는 전군뿐 아니라 접경지역(GP, GOP)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었다. 이는 부대 전반적인 면에서 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될 뿐 아니라 전문성 또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무조건이 열악한 환경에 처한 접경지역(GP, GOP)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병영생활상담관의 확대가 요구된다.

다섯째, 간부와 병사 간에 군 상담에 대한 인식차이로는 상담안내(홍보)에 대해 안내하였다는 간부가 대부분인 반면, 병사는 안내받지 않았다가 절반 정도 인 것으로 보아 이는 간부는 상담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나, 병사는 그것을 안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담의 대화방법에 대해 간부는 일방이전, 상호간이전 대화가 오고가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소수의 병사는 기억이 안 난다고 응답하고 있어, 병사는 상담에 있어서 누가 주도적인지에 대하여서는 간부보다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하지 않는 이유로 병사는 고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상담하지 않는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간부는 병사가 상담하고 싶은 간부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아, 간부와 병사 상호간에 상담 필요성 및 마음가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접경지역(GP, GOP) 부대 내 군상담의 문제점은 다음

과 같이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군 상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명확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 현재 군 상담에서는 생활상담과 심리상담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담을 받고 있다고 응답은 하였지만, 전문상담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생활상담과 심리상담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병사나 간부 모두 혼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군 상담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이에 따른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병영생활상담(생활상담)은 내담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이전 군 간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심리상담은 국방부와 각군본부에서 인정한 전문상담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따라서 간부와 병사는 상담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분리 인식이 되어야 한다.

둘째, 상담다운 상담이 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생활상담과 심리상담이 혼용되고 상담영역이 지휘관의 업무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실제적으로 병사의 문제발생 시 도움을 받기까지는 많은 지휘계통을 거치면서 비밀보장의 어려움과 동시에 병사들의 진실하고 솔직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으므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군의 현 체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즉 상담영역을 독립된 사단급의 참모영역으로 승격함으로써 많은 병사들에게 전문상담관이 독립적으로 상담을 하여 병사에게 지속적인 상담 및 치료는 물론 비밀보장과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군 상담에 대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여 병영생활전문상담관(전문가)을 확충해야 한다. 즉 병사들과 간부들이 원하는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여단의 참모부서로 하고, 최소한 연대, 대대에 담당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배속함으로써, 전문상담관의 정기·수시로 상담하며 이에 따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군은 상담에 대한 조직개편이 장기적인 과제이므로, 실질적으로 상담에 임하고 있는 간부(병영생활상담관)에 대해 최소한의 전문적인 상담이 될 수 있도록 간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에도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나 전문화된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교육 내용이 단순하고 교육시간이 부족하여 실제 상담에서는 활용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간부들에 대한 상담교육을 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과 전문가적 내용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여건이 된다면 대학이나 대학원 그 외의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으로 전문화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병영생활상담 뿐 아니라 심리상담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군 상담에 대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군 상담은 독립된 상담실이 거

의 없고, 주로 행정반이나 간부연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은 병사들에게 비밀유지가 안되고, 편안하고 솔직한 대화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병사들에게 최소한 편안하고 자유로운 상담실 분위기를 제공하여 좀 더 진실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서 상담자에게 내담자 자신의 문제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섯째, 신세대 병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세대 병사들은 간부들이 느낄 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이기적이며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해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상담 할 때에도 진솔하게 이야기 하지 않으며 병사 자신의 이득을 위한 상담만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신세대 병사에 대한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접경지역(GP, GOP)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에게 상담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보다 GP, GOP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더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병사들은 타 부대보다 군 상담을 받을 기회와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간부들 또한 업무과다로 인한 시간적 여건이 어려워 상담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부족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GP, GOP에 근무하는 병사에게 상담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및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상급부대에서의 전문상담관의 정기적, 수시적으로 순회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부족한 상담 인력의 해소를 위해 타 기관(전문상담기관)과의 자매결연 혹은 협조를 통한 전문상담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의 군 상담에 대한 연구는 군의 요구에 의한 위탁연구와 내부자 연구로, 연구내용도 군 교육기관과 일반부대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접경지역(GP, GOP) 부대의 상담에 대한 연구는 보기가 힘들었다. 또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군 조직의 특성상 보안규정과 기밀유지라는 전제가 있어 많은 애로와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접경지역(GP, GOP)의 부대 출입제한사항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 대상은 경기도 파주, 연천, 강원 철원 등의 접경지역(GP, GOP)의 일부부대에서 복무 중인 병사 및 간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접경지역(GP, GOP) 전체에 대한 연구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며, 더불어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의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뿐 아니라 일반부대 군 관련 연구에서도 심리상담과 생활상담을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즉 병사와 간부 모두 심리상담과 생활상담을 혼돈하여 상담이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대답한 반면 상담이 필요하다는 상충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심리상담과 생활상담의 개념정의를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분리하여 조사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접경지역(GP, GOP)부대의 전문병영생활상담관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의 일반부대 뿐 아니라 접경지역(GP, GOP)부대의 대부분의 상담은 간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전문성을 지닌 전문상담관 제도의 확대와 함께 접경지역(GP, GOP)에서의 전문병영생활상담관의 상담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강진영(2008). 또래 상담병 제도 도입을 통한 군내 상담 활성화 방안 연구.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분용·김택호·김인규(1999). 청소년의 또래관계.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구섭(2009). 분쟁의 바로미터 2008.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김대운(1980). 군사심리학. 서울: 공학사.
- 김무영(2009). 군 상담학 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영태(2009).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왕일(2006). 군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박도현(2008). 군 상담기법에 관한 일 연구. 원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삼옥(2005). 사회경제공간으로서 접경지역(소외성과 낙후성의 형성과 변화). 서울: 서울대학출판부.
- 손용일(2009). 군 상담에 대한 병사들의 지각에 관한 연구. 동신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기웅 외 11명(2009).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활성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 연합뉴스(2010). 천안함 침몰-육군1군단 제공 8. 3.
- 육군교육사령부(2004). 고등군사반 상담교재.
- 육군교육사령부(2006). 부대관리 Know-How123. 대전: 육군인쇄창 ④4-57.
- 육군리더십센터 편(2009). 군 상담. 국군인쇄창.
- 육군보병학교(2004). 성공적인 부대관리를 위한 상담기법. 제1지구인쇄소.
- 육군본부(2003). 비전캠프. 육군인쇄창.
- 육군본부(2004b). 육군 야전교범6-0-1(지휘통솔). 육군 야전교범15-1(군종업무). 육군인쇄창.
- 육군본부(2005). 육군방침 '05-8호 장비기본권상담실 설치운영.
- 육군본부(2007). 2007년 기본권 전문상담관운영 보고서.
- 육군종합군수학교 편(2009). 부대관리 (지휘관리학). 대전: 육군인쇄창, 227-331.
- 이광보·곽우영·남기봉·조철원·구종재·김성우(2008). 지휘상담: 그 기초와 실제. 인천: 진영사.
- 이광준(1998). 카운슬링과 심리치료. 서울: 학문사.

- 이귀제(2009). 육군 포병장병들의 상담욕구와 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역할에 대한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수현(2000). 내담자에 따른 상담기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장호(2005). 상담심리학 제4판. 서울: 박영사.
- 이재운(2006). 군사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집문당.
- 이종훈·조주연(1999). 육군 병사들의 복무기간에 따른 불안, 우울 및 충동성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38권 제5호.
- 이주실(2007). 육군 자살예방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해용(1988). 비무장지대(DMZ)를 찾아서. 서울: 눈빛출판사.
- 이형득·김정희(1883). Peer Group Counselor의 효과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지도상담 제8집, No. 8, 41-63.
- 이혜선·권정혜(2008). 군 자살 예방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 Vol. 22 No. 3, 653-672.
- 임우진(2007). 보호관심병사 지도를 위한 군 상담 활성화 방안연구. 원광대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익순(2007). 군 복무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취약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용운(2005). 접경지역 평화지대론. 서울: 연경문화사.
- 정규서(2002). DMZ 3 접경지역의 화해 협력. 서울: 소화.
- 정재훈(2008). 육군 상담활동의 실태 및 상담에 대한 요구분석. 강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혜경(2005). 전문상담교사와 일반교사의 중학교 상담활동에 대한 인식비교.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진해옥(2004). 고등학교 상담활동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동국(2001). 함정 상담활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해군 신세대 장병중심으로).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명선·구남웅(2008). 부하가 지각하는직속상관의 공감능력, 친밀도와 부하의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 20, No. 4, 1227-1241.
- 최보영(2005). 상담활동의 실태 및 요구분석 (국군야전병원 재원환자들을 대상으로). 광운대학교 정보복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훈일(2007). 군 상담의 실태 및 상담에 대한 요구분석-육군병사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숙자(2004). 전문상담학 개론. 서울: 창조사.
- 홍창우(2005).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상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군종장교의 병사 상담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창의(2008). 군 상담활동의 실태 및 요구분석.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nderson, R. S. & Reiter. D.(1998). The indispensable Counselor. *School Counselor*, 42, 268-276.
- Bryant, B. K.(1987). Mental health, temperament, family and friends. In M. Eisenberg & J. Srtayer(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45-270.
- Cross, W., Matthieu, M. M., Ceremes, J., & Knox, K. I.(2007). Proximate outcomes of gatekeeper training for suicide prevention in the workplac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7(6), 659-670.
- Dakey, J. G.(1999). Social Work Practice in the Military. *The Future of Army Social Work*, 313-314.
- Edward E. Smith, Susan Nolen-Hoeksema, Barbara Fredrecon, & Gelffrey Lofters (2003). *Atkinson & Hilgard's Introduction to Psychology*. Thomson Learning/Wadsworth.
- Khan, A., Khan, S., Kolts, R., & Brown, W. A.(2003). Suicide rates in clinical trials of SSRIs, other antidepressant, and placebo: Analysis of FDA report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0, 790-792.
- Leong, S. L. Leong F. T. L, & Hoffnan, M. A(1987). Counseling expectations of rational, intuitive, and dependent decision make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 Levinson, D. J.(1986). A conception of adult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1.
- Longo, D. A., Lent, R. W., Brown, S. D.(1982). Social cognitive variables in the prediction of client motivation and attri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 Peter, J. Mcnelis(2006). "Military Social Work: Military Social work history".
- Shoben. E. J.(1996). Jr guidance: remedial function or social reconstruction, *Harvard Educational Review*. 32, 430-443.

- Tinsley, H. E., Aubin, T. M., & Brown, M. T.(1982). College students' help-seeking pre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 U. S. Army (1999), “*Army Leadership*”, FM 22-100.
- U. S. Army (2006), “*Army Leadership*”, FM 22-101.
- U. S. Army. Suicide PreventionManual.(2008). <http://usachppm.apgea.army.mil/dhpw/Readiness/uicide.aspx>.

〈Abstract〉

Perception of Counseling among Military Officers, NCOs and Enlistees in units GPs, GOPs.

Jung, Yong chul·Hong, Hye young
Myongji University, Myongji University

The principl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acilitate and to promote successful missions in the near-boarder unit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each individual's self-awareness by surveying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ounseling in the area specified. The survey and the analysis was done on subjects of 61 officers and NCOs and 227 enlistees in 15 near-boarder units located inside the Demilitarized Zone, such as Paju, Yeoncheon of Gyunggi Province and Cheolwon of Ganwon Province. The result of the study was obtained through a frequency-analysis and a cross-analysis using SPSS 17.0.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As for the location of the counseling, an unit headquarters office or and officer's lab were the most prevalent, which was followed by a counsulation room. The soliders can not use counseling , either if they use counseling most soliders move to other army, so they cant use counseling program useful. second, the soliders want to serious conversation with secret program. but they don't think the counseling program helpful for soliders. and the military officers feel difficult with so tight and heavy work and not professionalism. Third, the counseling program can developing with openmind mode, other opportunity and professional counseller, last one is promise the secret conversation.

this report can develop the perception of counseling among military officers, NCOs and Enlistees near by unit GPs, GOPs.

Key words : Counseling among Military, Guidance Counselor of Army Life, The Near-boarder Units(GP, GOP)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등교거부경향성의 관계에서 사회불안과 자기결정동기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

정진희·홍혜영*
명지대학교

청소년기는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해결방법을 사용하는 경험을 통하여 자율적 동기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다른 시기에 비해 불안정한 시기일 뿐 아니라 인지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업, 수업태도, 학교적응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하며 더 나아가 정신건강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불안, 자기결정동기가 등교거부경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1,2,3학년 733명을 연구대상으로 표집 하여 등교거부경향성에 대한 인과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인일수록 등교거부경향성이 감소하였고 사회불안수준은 낮아졌으며 자기결정동기는 높아졌다. 또한, 청소년이 부모양육태도가 부정적인일수록 등교거부경향성이 증가하였고 사회불안수준은 높아졌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등교거부경향성의 관계에서는 사회불안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결정동기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교육환경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율성보다는 틀에 짜인 대로 가야하는 환경을 만든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등교거부경향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불안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시사 하였고, 자기결정동기는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핵심어 :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사회불안, 자기결정동기, 등교거부경향성

* 본 연구는 정진희(2012)의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등교거부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불안과 자기결정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를 수정 및 요약 한 것임.

* 교신저자: 홍혜영(hyhong@mju.ac.kr)

■ 게재 신청일 : 2014년 5월 23일 ■ 최종 수정일 : 2014년 8월 5일 ■ 게재 확정일 : 2014년 8월 10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시기이고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일차적으로 그가 속한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이차적으로는 그들을 둘러싼 학교, 또래 등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청소년기는 다른 발달 시기에 비해 불안정한 시기일 뿐 아니라 인지적·심리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정신건강 상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한유진, 1993). 정신건강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신체건강 이상으로 의미를 지니며 특히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은 한 개인이 성인으로서 올바른 인격과 가치관을 갖추기까지 신체적·심리적·사회적·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안귀여루, 2010).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여느 국가보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야하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로 인해 가출과 자살충동까지 느끼고 있어 주관적 행복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고 있다(염유식, 2012).

청소년기 정서적 문제 중 특히 사회불안은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일상 생활이나 특별한 상황에 적응하는데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관심을 갖게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Liebowitz, Gorman, Fyer, & Klein, 1985, Alden & Crozier, 2001, Woodward & Fergusson, 2001, Sheppard, 2005). 일반적으로 사회불안장애가 발병하는 평균연령은 중기 청소년기(APA, 1994; Ost, 1987)인, 11.3-12.3세 사이로 알려져 있다 (Giaconia, Reinherz, Silverman, Pakiz, Frost, & Cohen, 1994). 사회불안이 높은 청소년은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고 친구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학업수행이 손상을 받거나 등교거부경향, 우울 및 기타 약물남용의 문제까지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Beidel, 1991; Clark, 1993). 사회불안은 대인관계나 발표상황의 회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부적응을 초래하며(Alden & Crozier, 2001), 이로 인한 적응의 어려움이 아동·청소년기부터 나타나 더 치명적이다. 불안수준과 경향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대부분 사회불안은 대인관계나 특정상황의 회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영역에서의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사회불안 정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심한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학업, 학교생활, 또래집단과의 관계 등 다양한 어려움을

소호할 수 있다(문혜신, 2001) Woodward와 Fergusson (2001)은 불안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 사회적 역할에 대한 위험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종단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불안장애를 가진 청소년은 연속적으로 불안, 우울의 위험이 증가하고 불법적인 약물의존, 초기 성인으로서의 교육적 하위성취의 위험이 증가함을 보였다(한영희, 2008). Vasey와 Dadds(2001)의 연구를 통해 사회불안의 발생과 지속에는 아동의 기질, 부모의 양육, 외상 경험 등 다양한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부모 양육태도와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밝혔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사회불안과 더 관계가 있고, 부모의 과잉간섭이 자녀, 특히 여아의 사회불안과 정적상관이 있다(서경현, 2012). 부모는 자녀가 여러 사회적 상황을 접하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며(Beidel, Turner, Morris, 1995), 사회불안의 발생에 기여하는 기질적 요인이나 가족 환경이 사회불안의 지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Bell-Dolan과 Brazeal(1993)의 연구에서는 불안의 경험이 많은 아동들은 불안이 생활 속에서 지속적이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불안은 학교나 교우관계 그리고 자유 활동에 대한 회피에서부터 심한 장애를 나타내는 것에 이르기까지 기능상 심각한 문제에도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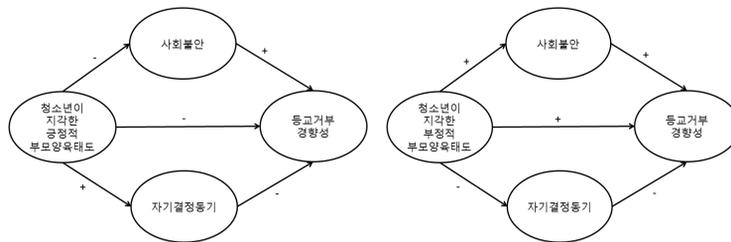
또한, 불안장애를 가진 청소년은 연속적으로 불안, 우울의 위험수준이 높아지고, 불법적인 약물의존, 초기 성인으로서의 교육적 하위성취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Woodward, Fergusson, 2001). 이소희 등(2000)의 연구에서는 등교거부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우울한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고, 신경증적인 증상을 많이 갖고 있으며, 비현실적이고 확대된 자기상을 갖고 있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특징을 보이는데, 이러한 불안과 우울은 청소년의 일탈과 높은 관련이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3). 이는 불안과 우울이 학교생활적응을 어렵게 하고, 부적응상태로 등교거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의 부정적인 정서적 기제는 비행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Kearney와 Wendy(1995)는 등교거부 청소년들의 가족 관계가 등교거부의 필수적 원인이라고 보았는데, 등교거부 청소년의 경우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매우 갈등적이고 불안정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부모의 지지적이고 지각 있는 양육태도는 긍정적인 학업수행, 사회·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Bascoe, Davies, Sturge-Apply, & Cumming, 2009; Bronstein et al., 1996), 역기능적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다양한 문제행동 및 정신 병리와 연관된다는 연구(Cicchetti & Toth, 1995; Mackinnon, Henderson, & Andrews, 1993; Parker, 1979; Rey & Plapp, 1990; Sato, 1998)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의 양육태도와 다르게 지각될 수 있는데, 윤영옥(2000)은 자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여러 가지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가 실제로 어떠한 양육태도로 자녀를 양육했는가에 의해서라기보다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생각하는 자신들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보다 훨씬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자녀가 가정, 사회, 학교 등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청소년은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해결방법을 사용하는 경험을 통해 유능감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유능감은 자율적인 동기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과제를 성취해 나가는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게 된다(Schunk, 1991). 자기결정성은 내재동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자기결정성이 높아질수록 내재동기가 증가한다(Ryan & Deci, 1985). 또한 내재동기가 학교적응과 정적 상관성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자기결정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결정성이 높을수록 즉, 자율성과 유능성 지각이 높을수록 학생들은 교육적 효과를 나타낸다. 학교생활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학교에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며, 학업에서의 집중이나 이해도, 만족도 등이 높다(Ryan & Connell, 1989, Vallerand, Fottier, & Guay, 1997; Deci & Ryan, 2002). 부모의 주도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율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어 학교적응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의 결여를 가져다준다.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고 아동 스스로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양육행동을 할 때 아동의 자기결정동기가 촉진되며, 심리적으로 통제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양육을 받으면 외부의 압력에 의한 통제적이고 비자율적인 자기결정동기를 촉진시키게 된다(Grolnick, 2003; Grolnick et al., 1993; Soenens & Vansteenkiste, 2005).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가 재미있어 자율적으로 하기 보다는 부모나 교사로부터 받는 외적인 동기에 의해 학습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내재적 동기를 가진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 무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가진 학생들은 중학교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무동기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아영, 2003; 김아영, 오순애, 2001, 김은영, 2007; 이미봉, 2003). 이런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부모양육태도, 사회불안 및 자기결정동기가 등교거부에 영향을 끼치고,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과 자기결정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과 자기결정동기를 매개로 하여 학생들의 학교적응 및 등교거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부모양육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보아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를 나누어서 매개효과를 알아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과 자기결정동기를 매개로 등교거부경향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 자기결정동기 및 등교거부경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등교거부경향성 및 등교거부경향성의 하위요인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에서 등교거부경향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설정하고 사회불안과 자기결정동기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부모양육태도, 사회불안, 자기결정동기, 등교거부경향성에 대한 가설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권역에 중위권정도에 해당되는 일반 중학교 6곳에서 1,2,3학년 8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무성의하게 표기한 67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733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사항을 살펴보면 성별구성은 남학생 332명(45.3%), 여학생 401명(54.7%)이고, 학년은 1학년 246명(33.6%), 2학년 248명(33.8%), 3학년 239명(32.6%)이었다. 지역 구성은 동북권은 165명(22.5%), 동남권은 169명(23.1%), 서북권은 161명(22.0%), 서남권은 238명(32.5%)의 비율을 나타냈다.

2. 측정도구

가. 부모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2000)이 개발하고 조유진(2006)이 수정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8요인 총 34문항으로 4점 척도 Likert방식으로 되어있다.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8이고, 각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감독/합리적설명/애정) .76,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비일관성/과잉기대/과잉간섭/학대/방임) .83로 나타났고, 감독은 .79, 합리적설명은 .78, 애정은 .76, 비일관성 .88, 과잉기대 .90, 과잉간섭 .87, 학대 .87, 방임 .88로 나타났다.

나. 사회불안

아동의 사회불안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Beidel, Turner Morris(1995)의 아동용 사회공포증 및 불안척도(Social Phobia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 SPAI-C)와 LaGreca와 Stone(1993)의 개정판 아동용 사회불안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Revised : SASC-R)를 문혜신과 오경자(2002)가 번안하여 타당화 연구를 한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5요인 총 40문항으로 5점 척도 Likert방식으로 되어있다.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6이고, 각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수행불안 .89,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93, 회피행동및사고 .88, 낯선것에대한 두려움 .81, 비주장성 .83으로 나타났다.

다. 자기결정동기

Deci와 Ryan(2000)의 자기결정성 이론에 충실하면서 한국의 일반적 상황에 맞도록 개발한 김아영(2002)의 한국형 학업적 자기조절 설문지(Academic Self-Regulation Questionnaire : K-SPQ-A)를 수정 보완한 노보혜(2011)를 사용하였다. 4요인 총 24문항으로 4점 척도 Likert방식으로 되어있다.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0이고, 각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외적조절 .72, 부과된조절 .84, 확인된조절 .89, 내적조절 .95로 나타났다.

라. 등교거부경향성

등교거부평가척도는 Kearney(2006)가 제작한 등교거부척도(School Refusal Assessment Scale-Revice-Children : SRAS-R-C)를 한영희, 조아미(2009)가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4요인 총 24문항으로 5점 척도 Likert방식으로 되어있다.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6이고, 각 하위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학교에서의 친구관계문제 .85, 학교밖활동에서의 관심 .79, 학교에 대한 부정적정서 .70, 학교에 대한 불만 .77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8.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각 변인의 왜도(편포도)의 첨도의 값을 산출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등교거부경향성의 관계에서 사회불안과 자기결정동기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적용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분석을 하였다. 또한,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스트랩 절차에 따라 사회불안과 자기결정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절차에 따라 원자료(N=733)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2,000개의 부트스트랩 자료 표본을 모수추정에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 추정치가 95%의 신뢰구간 내에서 영가설에서 설정한 값인 0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유의도 .05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해석하였다.

Ⅲ. 결과

1. 연구변인간 상관관계

변인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양육태도는 사회불안($r=-.25, p<.01$)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자기결정동기($r=.21, p<.01$)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긍정적 양육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이 지

〈표 1〉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

	1.	1-1	1-2	1-3	2	2-1	2-2	2-3	2-4	2-5	3	3-1	3-2	3-3	3-4	3-5	4	4-1	4-2	4-3	4-4	5	5-1	5-2	5-3	5-4										
1.	1																																			
1-1.	.78**	1																																		
1-2.	.82**	.40**	1																																	
1-3.	.87**	.51**	.65**	1																																
2.	-.50**	-.23**	-.44**	-.56**	1																															
2-1.	-.46**	-.25**	-.40**	-.51**	.79**	1																														
2-2.	-.10**	.031	-.15**	-.13**	.68**	.35**	1																													
2-3.	-.41**	-.15**	.39**	-.48**	.83**	.56**	.53**	1																												
2-4.	-.35**	-.14**	-.31**	-.42**	.79**	.52**	.38**	.57**	1																											
2-5.	-.63**	-.42**	-.49**	-.67**	.77**	.61**	.29**	.53**	.61**	1																										
3.	-.25**	-.20**	-.17**	-.26**	.29**	.23**	.19**	.23**	.19**	.29**	1																									
3-1.	-.25**	-.21**	-.16**	-.26**	.24**	.20**	.15**	.18**	.15**	.25**	.89**	1																								
3-2.	-.23**	-.18**	-.16**	-.22**	.25**	.20**	.16**	.21**	.15**	.23**	.88**	.67**	1																							
3-3.	-.22**	-.17**	-.13**	-.23**	.31**	.24**	.20**	.24**	.31**	.84**	.72**	.64**	.67**	1																						
3-4.	-.17**	-.12**	-.12**	-.18**	.21**	.15**	.14**	.17**	.13**	.22**	.87**	.74**	.70**	.70**	1																					
3-5.	-.20**	-.17**	-.14**	-.20**	.25**	.21**	.16**	.20**	.13**	.25**	.84**	.67**	.70**	.62**	.69**	1																				
4.	.21**	.15**	.16**	.21**	.08**	.02	.25**	.03	.04	-.06	.19**	.14**	.19**	.18**	.15**	.15**	1																			
4-1.	.30**	.21**	.23**	.30**	-.07	-.09**	.11**	-.13**	-.02	-.14**	.06	.01	.07	.09**	.07	.03	.82**	1																		
4-2.	.29**	.18**	.25**	.30**	-.11**	.05	-.12**	-.09**	-.09**	-.20**	.03	.02	.04	.05	.06	.00	.80**	.73**	1																	
4-3.	.14**	.10**	.11**	.14**	.09**	.04	.25**	.07	.01	-.04	.21**	.17**	.22**	.15**	.18**	.19**	.79**	.46**	.42**	1																
4-4.	-.17**	-.09**	-.16**	-.17**	.39**	.26**	.37**	.34**	.28**	.24**	.31**	.27**	.28**	.30**	.24**	.25**	.54**	.15**	.11**	.52**	1															
5.	-.20**	-.16**	-.14**	-.19**	.32**	.26**	.21**	.21**	.23**	.32**	.55**	.44**	.51**	.53**	.46**	.43**	.24**	.13**	.06	.23**	.35**	1														
5-1.	-.22**	-.16**	-.14**	-.23**	.36**	.28**	.21**	.22**	.32**	.38**	.51**	.39**	.44**	.59**	.44**	.37**	.19**	.11**	.01	.16**	.31**	.86**	1													
5-2.	-.18**	-.13**	-.13**	-.18**	.34**	.24**	.22**	.21**	.31**	.35**	.28**	.21**	.22**	.38**	.25**	.20**	.12**	.07**	-.00	.08**	.26**	.69**	.75**	1												
5-3.	-.21**	-.15**	-.18**	-.20**	.26**	.22**	.18**	.18**	.14**	.27**	.48**	.40**	.45**	.42**	.40**	.39**	.14**	.03	-.04	.19**	.30**	.81**	.63**	.44**	1											
5-4.	-.02	-.07	.01	.00	.06	.07**	.05	.06	.00	.04	.34**	.30**	.36**	.23**	.27**	.29**	.26**	.17**	.18**	.22**	.19**	.67**	.32**	.18**	.35**	1										
M	3.0	3.0	2.9	3.1	1.9	2.0	2.3	2.1	1.6	1.7	1.7	1.8	1.8	1.4	1.6	1.8	2.3	2.3	2.6	2.0	2.0	1.23	1.72	1.38	1.28	1.96										
SD	.45	.58	.54	.55	.44	.62	.61	.57	.54	.51	.62	.75	.85	.54	.71	.71	.53	.74	.77	.62	.56	2.22	.57	.58	.56	.80										
왜도	-.26	-.36	-.35	-.52	.43	.45	.22	.33	1.15	.56	1.40	1.32	1.42	2.11	1.53	1.26	-.12	.17	-.25	-.04	.24	.29	1.04	1.86	2.26	.85										
첨도	.23	-.01	.65	.48	.13	.00	.06	.067	.96	.03	2.04	1.80	1.84	4.87	2.64	1.52	-.22	-.45	-.40	-.46	-.53	.12	1.17	3.37	5.07	.45										

* $p < .05$, ** $p < .01$, *** $p < .001$

주. 1=공정적 부모양육태도, 1-1=부모감독, 1-2=부모합리적설명, 1-3=부모애정, 2=부정적 부모양육태도 2-1=부모비일관성, 2-2=부모과잉기대, 2-3=부모과잉간섭, 3-4=부모학대, 2-5=부모방임, 3=충사회불안, 3-1=수행불안, 3-2=부정적평가 두려움, 3-3=회피행동 및 사고, 3-4=낮은 것 두려움, 3-5=비주장성, 4=충자기 결정동기, 4-1=내적조절, 4-2=확인된조절, 4-3=부과된조절, 4-4=외적조절, 5=충동교과부경향성, 5-1=학교친구관계문제, 5-2=학교부활동관심, 5-3=학교부정적정서, 5-4=학교불만

각한 긍정적 양육태도 중 감독은 사회불안($r=-.20, p<.01$)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자기결정동기($r=.15, p<.01$)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양육태도 중 합리적설명은 사회불안($r=-.17, p<.01$)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자기결정동기($r=.16, p<.01$)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양육태도 중 애정은 사회불안($r=-.26, p<.01$)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자기결정동기($r=.21, p<.01$)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즉,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양육태도는 사회불안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이루고, 자기결정동기와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양육태도는 사회불안($r=.29, p<.01$)과 자기결정동기($r=.08, p<.05$)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부정적 양육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양육태도중 비일관성은 사회불안($r=.23, p<.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나 자기결정동기와는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양육태도 중 과잉기대는 사회불안($r=.19, p<.01$)과 자기결정동기($r=.25, p<.01$)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양육태도 중 과잉간섭은 사회불안($r=.23, p<.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나 자기결정동기와는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양육태도 중 학대는 사회불안($r=.19, p<.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나 자기결정동기와는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양육태도중 방임은 사회불안($r=.29, p<.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나 자기결정동기와는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양육태도는 사회불안과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나, 자기결정동기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부정적 양육태도 하위변인 중 과잉기대에 대해서만 자기결정동기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등교거부경향성은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양육태도($r=-.20, p<.01$)와 긍정적 양육태도의 하위변인(감독($r=-.16, p<.01$), 합리적설명($r=-.14, p<.01$), 애정($r=-.19, p<.01$))과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이루었고,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양육태도($r=.32, p<.01$)와 부정적 양육태도의 하위변인(비일관성($r=.26, p<.01$), 과잉기대($r=.21, p<.01$), 과잉간섭($r=.21, p<.01$), 학대($r=.23, p<.01$), 방임($r=.32, p<.01$)), 사회불안($r=.55, p<.01$), 자기결정동기($r=.24, p<.01$)와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기 위해 각 변인들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들이 왜도 <2 , 첨도 <4 의 조건을 충족하여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위한 최대우도법의 사용이 적합하였다.

2. 매개효과검증

가.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등교거부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사회불안과 자기결정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1)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의 측정변수 간의 관계구조가 얼마나 경험적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대도우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확인하였다. χ^2 값 역시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지만 사례 수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엄격하기 때문에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와 CFI, NFI,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를 같이 확인하였다(송지훈, 2012).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사회불안, 자기결정동기와 등교거부경향성에 대한 측정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CFI=.933, TLI=.913, NFI=.919로 모두 0.9이상의 기준치에 부합하였고 RMSEA=.077로 괜찮은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어 모형으로 채택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하위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은 .57~.91(표준화계수)이었으며, 사회불안 하위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은 .80~.89(표준화계수)이었다. 그리고 자기결정동기 하위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은 .52~.88(표준화계수)이었으며, 등교거부경향성 하위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은 .65~.98(표준화계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부하량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므로 16개 측정변인으로 4개의 이론적 잠재변인을 구인한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적의 연구모형 설정을 위해 경쟁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두 가지 모형 중 더 좋은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RMSEA, TLI 등 자유도가 다른 모형을 비교할 때 적절한 적합도 지수와 함께 χ^2 값 변화에 대한 χ^2 차이검증 결과를 함께 고려하였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11). <표 2>와 같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이 경쟁모형보다 1개의 경로를 더 추정하므로 자유도(df)는 1이 적고, χ^2 이 감소함에 따라 $p < .05$ 수준에서 5.99이상 차이가 나야 우수한 것인데, 본 연구모형은 경쟁모형과 비교할 때 $\Delta\chi^2=17.33$ 로 χ^2 값이 큰 쪽으로 감소함에 따라 연구모형을 채택하였다.

<표 2> 모형 검증결과(긍정적 부모양육태도)

모형	χ^2	df	CFI	TLI	NFI	RMSEA(90% 신뢰구간)
측정모형	495.893***	93	.933	.913	.919	.077(.072-.082)
연구모형 (부분매개)	525.276***	94	.928	.908	.914	.079(.074-.084)
경쟁모형 (완전매개)	542.608***	95	.925	.905	.911	.080(.075-.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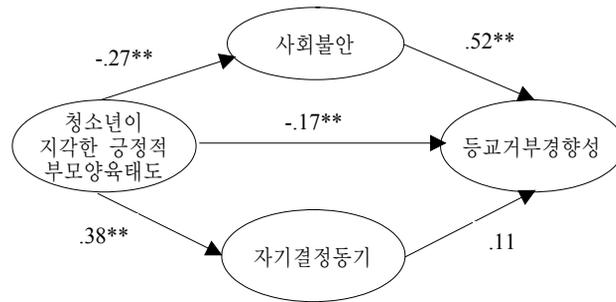
그리고 경쟁모형은 RMSEA가 .080, TLI가 .905로 적합도가 나빠져 연구모형(부분매개)이 경쟁모형(완전매개)보다 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사회불안, 자기결정동기, 등교거부경향성의 경로계수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긍정적 부모양육태도)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 사회불안	-.54	-.27	.08	-6.45***
사회불안 → 등교거부경향성	.42	.52	.04	11.73***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 자기결정동기	.77	.38	.09	8.14***
자기결정동기 → 등교거부경향성	.09	.11	.03	2.93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 등교거부경향성	-.27	-.17	.07	-4.10***

* $p < .05$, ** $p < .01$, *** $p < .001$

<표3>은 등교거부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결정동기→등교거부경향성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불안→등교거부경향성,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자기결정동기는 정적인 경로를 보이고 있고,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사회불안,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등교거부경향성은 부적인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경로는 사회불안→등교거부경향성으로 나타났다.



*** $p < .001$

〈그림 2〉 구조모형의 경로도와 경로계수(긍정적 부모양육태도)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림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사회불안($\beta = -.27$, $p < .001$)과 자기결정동기($\beta = .38$, $p < .001$), 그리고 등교거부경향성($\beta = -.17$, $p < .001$)과 직접 효과를 보였고, 사회불안($\beta = .52$, $p < .001$)은 등교거부경향성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을 통해 등교거부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이 성립됨에 따라 연구모형이 자료를 적절히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매개효과검증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스트랩 절차에 따라 원자료(N=733)에서 무선표집으로 생성된 2,000개의 부트스트랩 자료 표본을 모수추정에 사용하였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인(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이 종속변인(등교거부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위해, 간접효과 크기가 95% 신뢰구간에서 영가설이 설정한 0을 포함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였다. <표 4>의 매개효과 검증결과가 보여 주듯이,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등교거부경향성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가 각각 95%신뢰구간에서 영가설이 설정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58~- .046). 따라서 이 경로의매개효과가 유의함($p < .001$)을 알 수 있다. 반면,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자기결정동기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자기결정동기가 등교거부경향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등교거부경향성의 관계에서 자기결정동기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매개모형 검증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들이 지

각한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가정, 학교, 학업, 또래관계 등에서 느끼는 사회불안이 낮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등교거부경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 4> 구조모형경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유의도(긍정적 부모양육태도)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95% 신뢰구간)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	사회불안	-.539** (-.350~-.200)	-	-.539** (-.350~-.200)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	자기결정동기	.767** (.291~.462)	-	.767** (.291~.462)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	사회불안 등교거부경향성	-.268** (-.254~-.093)	-.159(-.100)** (-.158~-.046)	-.427** (-.345~-.185)
사회불안	→	등교거부경향성	.421** (.433~.593)	-	.421** (.433~.593)
자기결정동기	→	등교거부경향성	.089 (.034~.192)	-	.089 (.034~.192)

* $p < .05$, ** $p < .01$, *** $p < .001$, 95% 신뢰구간에서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한 값

나.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등교거부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사회불안과 자기결정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1)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 검증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사회불안, 자기결정동기와 등교거부경향성에 대한 측정모형 적합도를 살펴보면, CFI=.922, TLI=.902, NFI=.906로 모두 0.9이상의 기준치에 부합하였고 RMSEA=.078로 괜찮은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어 모형으로 채택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하위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은 .71~.78(표준화계수)이었으며, 사회불안 하위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은 .80~.88(표준화계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동기 하위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은 .52~.88(표준화계수)이었으며, 등교거부경향성 하위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은 .54~.84(표준화계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부하량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므로 18개 측정변인으로 4개의 이론적 잠재변인을 구인한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표 5>와 같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들을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이 경쟁모형보다 1개의 경로를 더 추정하므로 자유도(df)는 1이 적고, χ^2 이 감소함에 따라 $p < .05$ 수준에서 5.99이상 차이가

나야 우수한 것인데, 본 연구모형은 경쟁모형과 비교할 때 $\Delta\chi^2=33.69$ 로 χ^2 값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연구모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경쟁모형은 RMSEA가 .080, TLI가 .896로 적합도가 나빠져 연구모형(부분매개)이 경쟁모형(완전매개)보다 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사회불안, 자기결정동기, 등교거부경향성의 경로계수는 <표 6>과 같다.

<표 5> 모형 검증결과(부정적 부모양육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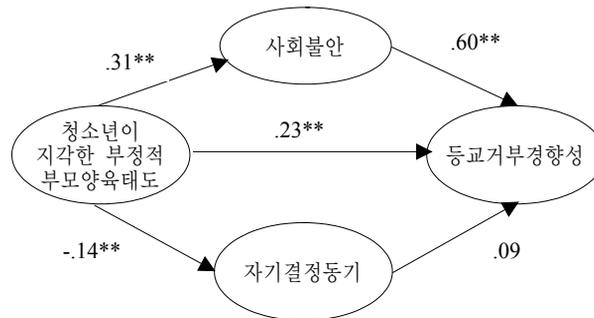
모형	χ^2	df	CFI	TLI	NFI	RMSEA(90% 신뢰구간)
측정모형	661.523***	122	.922	.902	.906	.078(.073-.083)
연구모형 (부분매개)	673.627***	123	.920	.901	.904	.078(.073-.083)
경쟁모형 (완전매개)	707.315***	124	.915	.896	.900	.080(.075-.085)

<표 6>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부정적 부모양육태도)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t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 사회불안	.41	.31	.05	7.65***
사회불안 → 등교거부경향성	.55	.60	.04	13.42***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 자기결정동기	-.19	-.14	.06	-3.28
자기결정동기 → 등교거부경향성	.08	.09	.03	2.43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 등교거부경향성	.028	.23	.05	5.80***

* $p<.05$, ** $p<.01$, *** $p<.001$

<표 6>은 등교거부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사회불안, 사회불안→등교거부경향성,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등교거부경향성은 정적인 경로를 나타내고 있으나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자기결정동기와 자기결정동기→등교거부경향성 경로를 제외한 경로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중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경로는 사회불안→등교거부경향성으로 나타났다.



*** $p < .001$

<그림 3> 구조모형의 경로도와 경로계수(부정적 부모양육태도)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사회불안($\beta = .31, p < .001$)과 등교거부경향성($\beta = .23, p < .001$)과 직접 효과를 보였고, 사회불안($\beta = .60, p < .001$)은 등교거부경향성에 직접적인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사회불안을 통해 등교거부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이 성립됨에 따라 연구모형이 자료를 적절히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매개효과검증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등교거부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위해, 간접효과 크기가 95% 신뢰구간에서 영가설이 설정한 0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 검증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에서 사회불안을 거쳐 등교거부경향성으로 가는 경로의 매개효과가 각각 95% 신뢰구간에서 영가설이 설정한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17~.237). 따라서 이 경로의 매개효과가 유의함($p < .001$)을 알 수 있다. 반면,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자기결정동기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자기결정동기가 등교거부경향성이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등교거부경향성의 관계에서 자기결정동기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매개모형 검증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가정, 학업, 또래관계 등에서 느끼는 사회불안이 높아져 그로 인해 등교거부경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7〉 구조모형경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유의도(부정적 부모양육태도)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95% 신뢰구간)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	사회불안	.410** (.231~.396)	-	.410** (.231~.396)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	자기결정동기	-.189 (-.238~-0.039)	-	-.189 (-.238~-0.039)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	사회불안 등교거부경향성	.276** (.137~.321)	.212** (.117~.237)	.488** (.312~.497)
사회불안	→	등교거부경향성	.552** (.505~.678)	-	.552** (.505~.678)
자기결정동기	→	등교거부경향성	.079 (.011~.166)	-	.079 (.011~.166)

* $p < .05$, ** $p < .01$, *** $p < .001$, 95% 신뢰구간에서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한 값

IV. 결 론

본 연구는 중학생의 등교거부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불안, 자기결정동기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등교거부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불안 및 자기결정동기가 매개하는지를 설명하고, 매개변수들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에 따라 등교거부경향성이 영향을 받는 데에 있어서 그 관계를 매개하는 사회불안 및 자기결정동기의 구조를 확인하고자 함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사회불안, 자기결정동기, 등교거부경향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사회불안, 자기결정동기, 등교거부경향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과 같은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를 높이 지각할수록 사회불안과 등교거부경향성 수준이 낮아지고, 자기결정동기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장경선(2006)의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수영(2000)의 연구에서도 부모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이며 비과잉적인 성취압력을 보일 때 비행경향성이 낮

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양육태도 중 비일관성, 과잉간섭, 학대, 방임은 사회불안과 등교거부경향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비일관성, 과잉간섭, 학대, 방임과 같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사회불안과 등교거부경향성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apee & Melville (1997)은 과보호적이고 따뜻함이 결여된 양육행동,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훈육전략과 사회공포증의 관련성을 보고하였고, Perris(1994)는 역기능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와의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부모양육태도 중 과잉기대는 사회불안과 자기결정동기, 등교거부경향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문혜신, 오경자(2002)의 연구에서 성인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자율성 제한 및 행동의 규제는 과보호 및 통제로 지각되는 반면, 초기 청소년의 경우에는 애정이나 신뢰의 결여로 지각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것과 일치한다. 또한, 지각된 부모의 과보호가 미국 청소년에게는 부모의 적대감이나 거부와 관련되는 반면(Rohner & Rohner, 1978), 한국 청소년에게는 부모의 관심 및 돌봄과 관련된다는 연구결과의 맥락과도 같이하는데 즉, 과잉개입과 과보호가 보편화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과보호가 한국 청소년에게 반드시 부정적으로 지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과잉기대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불안을 야기시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학교에서도 또래관계, 학업수행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학교적응이 점점 어려워져 조퇴나 지각이 잦아지게 되고, 급기야 등교를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등교거부경향성의 관계에서 사회불안과 자기결정동기가 매개하는 모형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불안이 등교거부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연구모형이 자료에 적합함을 검증하였다. 이는 부모양육태도 중 애정, 감독, 합리적설명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사회불안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김혜민, 2008; 문혜신, 오경자, 2003)와 같고, 청소년기에 사회불안을 느끼는 경우 사회성 결여, 또래관계 어려움, 학업수행이 손상되거나 결석, 유급 등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등교거부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백운학, 1981b; 박현숙, 2004; Clark, 1993; Last, Hersen, Kazdin, Orvaschel, & Perrin, 1991)와 일치한다. 이는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성격, 대인관계, 가치관 등 심리 정서적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학교나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자

기결정동기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은 자녀의 자율적 동기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정윤주, 2004; Bronstein, Ginsburg, & Herreral, 2005; Grolnick & Ryan, 1989).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은 자녀의 선택권을 존중해주고 흥미나 가치를 인정해 주며, 부모가 나서서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등교거부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자기결정동기를 매개변인으로 연구한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자기결정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자기결정동기는 등교거부경향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기결정감이 높은 동기로 동기화 될수록 몰입을 많이 경험하여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은주, 2001)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또한, 자기결정성이 높을수록 즉, 자율성과 유능성 지각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학교에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며, 학업에서의 집중이나 이해도, 만족도 등이 높다는 연구결과와도 차이는 보인다(Ryan & Connell, 1989, Vallerand, Fottier, & Guay, 1997; Deci & Ryan, 2002). 이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보다 학업수행과 학습동기 면에서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Simmons & Blyrh, 1987), 중학교가 초등학교에 비해 학생간의 상대적 능력과 경쟁이 강조되는 환경이고,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중학교 1학년 시기에 많은 학생들이 학업수행이나 학습동기가 감소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연구(유순화, 2007)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 등 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에 매달려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생각이나 활동을 할 여유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스스로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는데 보내는 시간보다는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 과외 또는 학원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유남희, 김유미, 신은수, 2009). 청소년들에게 사회에서는 실력만을 강조하고,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성공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낙오자라는 낙인을 찍어 설 곳이 없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한 현상이 학교현장에서도 나타나 능력이 뛰어나고 성적이 뛰어난 청소년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인정을 받고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받지만, 성적이 좋지 못한 청소년들은 인정보다는 꾸지람이, 기회보다는 박탈을 경험하게 된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등교거부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사회불안과 자기결정동기가 매개하는 모형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불안이 다시 등교거부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연구모형이 자료에 적합하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사회불안에, 사회불안은 등교거부경향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 과잉간섭, 방임, 비밀관성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다양한 문제행동들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고(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정현옥, 이소희, 김세주, 2001),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외현화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오강섭, 허묘연, 이시형, 1999; 오경자, 양윤란, 2003; Barber, 1997)와 같은 양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불안과 사회성 결여를 등교거부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연구(박현숙, 2004; 백운학, 1981; 이경호, 2011; Egger등, 2003)와 맥을 같이한다. 사회불안은 비교적 일찍 발병하여 만성화 될 가능성이 높고, 개인, 가정, 학업 기능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아동·청소년기부터 대인관계나 발표상황의 회피뿐 아니라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부적응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Alden & Crozier, 2001). 하지만,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자기결정동기에, 자기결정동기는 등교거부경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상관관계에서도 밝혔듯이 과잉개입과 과보호가 보편화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과보호가 청소년에게는 반드시 부정적으로 지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Rohner&Rohner, 1978; Kim & Choi, 1994; Rohner&Pettengil, 1985; 문혜신, 오경자, 2002) 다시금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적 차원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등교거부경향성을 낮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시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등교거부경향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불안 및 자기결정동기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등교거부경향성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애정과 지지를 받고, 어떤 일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통하여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믿음을 청소년들에게 심어주게 되면 친구·교사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게 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등교거부경향성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간 기제를 밝혔다. 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등교거부경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동시에 다양한 매개나 조절변인들이 차후 연구된다면 부모양육태도와 등교거부경향성에 관한 보다 풍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셋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긍정적/부정적)와 등교거부경향성과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

다. 일시적인 불안은 대부분 정상적인 발달의 일부로 간주되지만, 부모로부터 불안을 많이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은 그 경험이 지속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관계로부터 철수하고 친구관계를 잘 맺지 못하며 학업수행에 손상을 받거나 등교거부증 등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난다(Clark, 1993) 또한, 등교거부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신경증적인 증상을 많이 갖고 있으며, 비현실적이고 확대된 자아상을 갖고 있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태도를 보인다(Sheppard, 2005). 본 연구의 결과가 청소년상담 및 발달심리학을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에 따라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감정과 문제행동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실용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6개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학생 전체로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표집을 이루어 본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들이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의하여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자기 편향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의 경우 보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보고식 질문과 함께 실험연구를 함께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고 그를 토대로 다양한 청소년문제에 적용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등교거부경향성의 관계에 자기결정동기가 매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자기결정동기가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결정동기와 그 하위요인, 등교거부경향성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들이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자기결정동기와 등교거부경향성의 관계를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김아영(2003). 교실에서의 동기. *교육심리연구*, 17(1), 5-36.
- 김아영(2008). 한국청소년의 학업동기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111-134.
- 김아영(2010). 자기결정성이론과 현장적용연구. *교육심리학회지*, 24(3), 583-609.
- 김아영·오순애(2001). 자기결정성 정도에 따른 동기유형의 분류. *교육심리연구*, 15(4), 97-119.
- 김은영(2007). 초·중·고등학생의 자기결정동기와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환·김민규·홍세희(2011).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혜민(2008).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수치심 및 사회불안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보혜·박성연·지연경(2011).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학습관여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결정동기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2(4), 83-97.
- 문혜신·오경자(2002).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사회 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29-443.
- 박영신·김의철(2003).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32(2), 109-146.
- 박현숙(2004). 고등학교 일반학생과 등교거부 경험학생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 특성 비교.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백운학(1981a). 초등학교 아동들의 등교거부경향에 대한 고찰. *영남대학교 논문집*, 14, 343-365.
- 백운학(1981b).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교거부경향에 대한 요인분석. *영남대학교 학생연구*, 12, 33-60.
- 서경현(2012). 초기 청소년기에 있는 아동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간 양육태도 불일치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2(1), 207-226.
- 손석한·노경선·허묘연·정현옥·이소희·김세주(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0(4), 605-615.
- 송기준(2012). 논문작성에 필요한 SPSS/AMOS 통계분석방법. 경기도: 21세기사.
- 안귀여루(201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이들의 학교적응 및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치료학회지*, 2(1), 99-108.

- 오강섭·허묘연·이시형(1999). 대인불안과 사회문화적 요인의 상관관계. *신경정신의학*, 30(1), 64-76.
- 염유식(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구축과 국제비교연구조사.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오경자·양윤란(2003a).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1: 행동억제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57-577.
- 우난희·김유미·신은수(2009). 조기교육/사교육. *아동학회지*, 30(6), 249-266.
- 유순화(2007).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에 관한 학생들이 기대와 지각. *초등교육연구*, 20(1), 355-375.
- 윤영옥(2000). 집단 따돌림 피해자 및 가해자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사회 기술의 상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호(2011). 고등학생 정서·행동문제 및 관련변인들이 등교거부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희(2007).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봉(2003). 자기결정동기와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경선(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주(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의 성과 또래수용도의 중재효과에 대한 탐색. *아동학회지*, 25(6), 205-223.
- 조유진(2006). 집단 괴롭힘 목격과 피해 경험의 가해화 경로에 대한 중재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영희(2008).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등교거부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수영(2000). 정상 및 비행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 가족기능과 비행경향성의 차이.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den, L. E., & Crozier, W. R.(2001). *concepts, research and interventions relating to the self and shyness*, Chichester: Wiley. International handbook of social anxiety.
- Barber, B. K., Olsen, J. A.(1997). Socialization in context: Connection Regulation and Autonomy in the Family, School, and Neighborhood, and with peers. *Journal*

- of adolescence Research, 12(2), 287-315.*
- Bascoe, S. N., Davies, P. T., Sturge-Apply, & Cumming, E.M.(2009). Children's representation of family relationships, peer information processing, and schoo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5(6), 1740-1751.*
- Beidel, D. C., Turner, S. M., & Morris, T. L.(1995). A new inventory to assess childhood social anxiety and phobia: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7, 73-79.*
- Beidel, W. C.(1991). Social Phobia and overanxious disorder in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0, 545-552.*
- Bell-Dolan, D., & Brazeal, T. J.(1993). Separation anxiety disorder, over-anxious disorder, and social refuse.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Clinics of North America, 2, 536-580. Psychiatry, 48, 928-934.*
-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ronstein et al., (1996). Family and parenting behaviors middle school adjustment : Longitudinal study. *Family Relations, 45(4), 415-426.*
- Bronstein, P., Ginsburg, G. S., & Herreral, I. S.(2005). Parental Predictors of Motivational Orientation in Early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6), 559-575.*
- Cicchetti, D. & Toth, S. L.(1995).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4, 542-565.*
- Clark, D. B.(1993).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in adolescent alcohol abuses. *Paper presented at the anxiety disorders association of America annual convention.* Charleston, SC.
- Deci, E. L., & Ryan, R. M.(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 Deci, E. L., & Ryan, R. M.(2002). *Reflection and future directions.* In E. L. Deci & R. M. Ryan(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ochester, NY : Th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431-441.

- Giaconia, R. M., Reinherz, H. Z., Silverman, A. B., Pakiz, B., Frost, A. K., & Cohen. E.(1994). Ages of onset of psychiatric disorders in a community population of older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3, 706-717.
- Grolnick, W. S., Ryan, R. M.(1989). Parent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2), 143-154.
- Grolnick, W. S.(2003). *The Psychology of parental control: How wellmeant parenting backfires*. Mahwah, NJ: Erlbaum.
- Kearney, C. A.(200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schoolrefusal assessment scale-revised: Child and parent versions.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8(3), 139-144.
- Kearney, C. A., & Wendy K. S.(1995). Family environment of youngsters with school refusal behavior : A synopsis with Implications for assessment and treatment.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3(1), 59-72.
- Kim, U. C. & Choi, S. H.(1994).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child development ; A korea perspective*. In P. M. Grennfield & R. R. Cocking (Eds.), *Cross-cultural roots of minority child developmet*.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Kim. A.(2002). *Taxonomy of Student Motiv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American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New Orleans, April.
- Last, C., Hersen, M., Kazdin, A. E., Orvaschel, G., & Perrin, S.(1991). *Anxiety disorders in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rchives of General.
- Liebowitz, M. R., Gorman, J. M., Fyer, M. J., & Klein, D. F.(1985). Social Phobia: review of a neglected anxiety disord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2, 729-739.
- Mackinnon, A., henderson, A. S., & Andrews, G.(1993). Parental affectless control as a antecedent to adult depression : *a risk factor refined*. *Psychological Medicine*, 23, 135-141.
- Parker, G.(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a and social phobic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5, 555-560.
- Perris, C., Arrindell .W. A., Eisemann. M.(1994): Parenting and psychopathology.

- England: *John Willy & Sons Ltd.* 3-26.
- Rey, J. M. & Plapp, J. M.(1990).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 382-385.
- Rohner, R. P., Pettengil, S. M.(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Rohner, R. P., Rohner, E. C.(1978). *Unpublished research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Storrs. CT.
-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tionalization : Examining reasons for action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49-761.
- Sato, T., Deborah, C. T., Uehara, T., Narita, T., Hirano, S., Nishioka, K., & Kasahara, Y.(1998). Dysfunctional parenting as a risk factor to lifetime depression in a sample of employed Japanese adults : evidence for the affectless control hypothesis. *Psychological Medicine*, 28(3), 737-742.
- Schunk, D. H.(1991). Self-efficacy and academic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26, 207-231.
- Sheppard, A. (2005). Development of school attendance difficulties: Exploratory study. *Pastrol Care*, 19-25.
- Soenens, B., & Vansteenkiste, M.(2005). Antecedents and outcomes of self-determinaion in three life domains: The role of parents' and teachers' autonomy suppor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 589-604.
- Vallerand, R. j., Fortier, M. S., & Guay, F.(1997). Self-determination and persistence in a real-life setting : Toward a motivational model of high school dropou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161-1176.
- Vasey, M. W., & Dadds, M. R.(2001). *Th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of Anxe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oodward, L. J.& Fergusson, D. M.(2001). Life course outcome of young people with anxiety disorders in adolesc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dolescent Psychiatry*, 40(9), 1086-1093.

〈Abstract〉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anxiety and self determining motivation in relations between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tendency of school refusal

Jung, Jin-hee · Hong, Hye-young
Myongji University, Myongji University

In adolescence, one can develop autonomous motivation through experiences of using various skills and solutions in order to select or resolve something by himself. But this period is not only unstable compared to others but also immature both cognitively and emotionally. Therefore, when a problem occurs in a relationship, various problems may occur in learning, classroom behavior, and school adjustment. Moreover, many problems relating to mental health may occu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young people, social anxiety and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ffect their tendency of school refusal. To achieve that, this study chose 733 students in the 1st, 2nd, and 3rd years of a middle school located in Seoul as study subjects and examined the causal structure model for their tendency of school refusal. The study result revealed that the more positive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the students was, the less their tendency of school refusal was; the lower their social anxiety level was; and the more they had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lso, it was found that the more negative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the students was, the more their tendency of school refusal was, and the higher their social anxiety level wa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the students and their tendency of school refusal, social anxiety produce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but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didn't. It indicates that the special

educational environment in Korea makes students follow routine conditions, rather than make self-determination. Nevertheless, given the study result, the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young people and their social anxiety strongly influenced their tendency of school refusal, and their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was partially related to their tendency of school refusal. Based on the study result, the sugges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 perceived by young people, Social anxiety,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endency of school refusal

〈별첨 1〉

통합치료연구 연구 윤리 관련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통합치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과 관련된 연구 활동의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모든 과정을 정직하게 수행해야 한다. 연구과정은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디자인의 설계, 연구 참여자에 대한 보호, 결과의 분석, 연구 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이 포함된다.

- ② 연구자는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중복 게재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 ③ 본 향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연구자는 연구 수행 시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기관과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제3조 (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과정, 및 결과보고 등의 연구전반에 걸친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 되게 수행해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활동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 한다.
- ③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활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존중한다.

제4조 (연구 부정행위) 본 학회의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학회지 발간 이후 적발 시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결과물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행위
- ② 변조: 연구결과물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③ 표절: 본인이나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물을 원저자 승인 없이 인용, 또는 참조 없이 도용 하는 행위
- ④ 중복게재: 1)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없다.
2)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거나 발표 예정인 연구물을 본 학회의 학회지에 게재신청할 수 없다.

제5조 (연구 참여자 보호) 연구자는 각자의 연구 활동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정신적, 신체적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시행 전 반드시 연구 참여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연구 절차와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동의를 받는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학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이 심의대상자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당 심의 건에 대한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후임위원을 위촉하여 그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연구윤리심의규정) 윤리위원회는 아래의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그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①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심의
- ② 본 학회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사항 심의
- ③ 연구의 진실성 검증, 검증 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와 심의대상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⑤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제8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행위 심의 대상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 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해당 연구 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2) 해당 연구자의 논문 투고 3년간 금지
 -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 5) 제명
 -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첨 2〉

투고규정

가. 투고논문의 범위는 언어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및 심리상담적 이론과 접근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시각의 연구 및 관련 주제를 다룬 국문 또는 영문논문으로서 투고 자격은 학회정회원으로 한다. 단, 논문 등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여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나. 투고논문 제출은 e-mail을 통해 파일을 전송한다. 원고작성 시 투고규정에서 정한 “논문 작성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 원고분량은 논문작성지침에 의거한 규격용지 기준 국문원고 15매, 영문원고 20매로 제한한다.

라.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를 저자표기 가장 앞부분에, 나머지 연결저자는 논문집필의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표기한다.

마. 투고 시 원고 겉면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e-mail을 포함한 연락처를 명기하며,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바.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통합치료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불가판정 논문에 한해서는 일체의 심사내용을 통보하지 않는다.

사. 투고시 심사비 6만원, 게재 확정시 10만원(15쪽 기준)을 납부하며 15쪽(본 학술지의 편집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쇄쪽당 1만원씩 추가 납부한다.

아. 본 학술지 원고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가 불가하다.

<별첨 3>

논문 작성 요령

[통합치료연구] 투고 논문 작성 양식

1. 원고 작성 개요

가. 작성 도구: 한글 3.0 이상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나. 논문원고 용지

(1) 용지 종류: 사용자 정의(190×260)

(2) 용지 여백: 위쪽 18, 아래쪽 20, 왼쪽 26, 오른쪽 26, 머리말 10, 꼬리말 10, 제본 0

다. 문단 모양 : 줄간격 170

라. 글자 모양

	글꼴	크기	장평	자간	문단정렬	비고
제목	신명조	18p	100	0	가운데	진하게
저자명	중고딕	10p	100	0	오른쪽	1줄 띄고
소속	신명조	9p	100	0	오른쪽	
요약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1줄 띄고 줄간격 140 좌우여백 :4
본문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그림	중고딕	10p	95	-5	하단 가운데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명조
표	중고딕	10p	95	-5	왼쪽상단	출처 9p 중고딕 그 외 설명 9p 신명조
참고문헌 제목	견명조	14p	95	-5	가운데	
참고문헌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영문초록 제목	신명조	14p	95	-5	가운데	
영문초록 내용	신명조	9p	95	-5	양쪽정렬	
부록제목	중고딕	10p	95	-5	왼쪽	진하게
부록내용	신명조	10p	95	-5	양쪽정렬	

마. 제목의 번호 붙임

- 1단계: I. II. III. …………… (2줄 띄고, 14p, 견명조, 가운데)
- 2단계: 1. 2. 3. …………… (1줄 띄고 1칸에서 시작, 11p, 중고딕, 진하게)
- 3단계: 가. 나. 다. …………… (1줄 띄고 2칸에서 시작, 9.5p, 신명조, 진하게)
- 4단계: (1) (2) (3) …………… (1줄 띄고 4칸에서 시작, 9p, 중고딕)
- 5단계: ㄱ. ㄴ. ㄷ. ……………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 6단계: (ㄱ) (ㄴ) (ㄷ) …………… (4칸에서 시작, 9p, 신명조)

바. 들여쓰기

문단의 첫 문장은 3칸에서 시작, 문장과 문장 사이는 1칸으로 하고, 문단과 문단 사이는 1줄 띄지 않는다(“참고문헌”의 들여쓰기는 9칸에서 시작함).

사. 용어의 사용

- (1)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적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 속에 원어나 한자를 쓴다.
- (2)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관련성 있는 단어를 연속하여 나열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단어 바로 앞에 심표 없이 “그리고”, “와(과)”, “및”, “혹은” 등을 삽입한다.

2. 인용 사항

본문에 인용문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단어 및 구두점 등의 모든 사항이 인용되는 원문과 일치되어야 하며, 그 인용부분의 길이에 따라 다음 규정을 지킨다.

가. 인용내용이 짧은(1-2행) 경우 예는 본문 속에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기술하며, 인용내용의 끝에 인용출처(저자, 출판년도)를 밝힌다. 한 문장 내에서 내용을 축약하는 경우에는 반 칸을 띄운 후에 세 개의 공간점“…”을 사용한다.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홍길동, 2003)

나. 인용내용이 긴(3행 이상) 경우 예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이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와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띄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인용문의 출처는 “저자(출판년도)”를 먼저 밝히고 인용문을 적거나, 인용문 뒤에 “저자(출판년도)”를 표기한다.

예: 이승환(2005)은 언어병리학이 다학문적 학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수교육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등의 전문인들과 협력해야 하고, 나아가 의학의 여러 분야의 전문인들과 팀을 구성해야 할 장애 유형도 많다. 그래서 상호 의뢰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한다.

3. 각주(脚註, footnote) 와 후주(後註, endnote)

가. 각주의 사용은 금한다.

나. 그 대신, 본문에 표시하기 어려운 보충적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후주의 사용을 허용한다. 후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본문 내 해당되는 곳에 반 괄호를 붙인 어깨 숫자로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본문의 가장 뒤, 참고문헌 바로 앞에 기술한다.

4. 본문 내의 인용문헌

가. 직접 인용의 경우 : 인용부호(“ ”)를 달고 기술하며, 인용처(저자 및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예 1: 김영옥(2003)에 의하면 “.....”

예 2: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김영옥, 2003)

나. 간접 인용의 경우 : “저자”와 “출판년도”를 아래 예들과 같이 명기하되, 출판년도 표시의 괄호 앞 어절이 한글일 경우에는 괄호를 붙여 쓰고 (단, “참고문헌” 에서는 반 칸을 띄어 쓴다), 영어인 경우에는 반 칸 띄고 쓴다.

예 1: 이 이론에 대하여 고도홍(2003)은.....

예 2: 이 이론에 대하여 Pinker(1975)는.....

예 3: 한 연구(고도홍, 1995)에 의하면.....

예 4: 최근의 연구(고도홍, 1995; Boone, 1990)에 의하면.....

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 :

(1) 저자가 3인 이상 5인까지일 경우, 최종 저자 앞에 “및” 또는 “와/과”로 표기한다. 또 같은 문헌이 반복 인용될 때에는 한국인인 제 1저자의 성과 이름 뒤에 “등/외”를 표기하고, 외국인인 제 1저자의 성 뒤에 et al.을 표기한다.

- 예 : 김수진, 윤미선 및 김정미(2002)는... 첫 인용
 김수진 등(2002)은... 반복 인용
 Boone, Hodson & Paden(1995)은... 첫 인용
 Boone et al.(1995)은... 반복인용

(2) 6인 이상이면 제1저자만 기재하고 “000 외”나 “0000 et al.”등으로 표시한다.

5. 참고문헌 작성법

가.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한, 중, 일, 기타 동양, 서양 문헌 순으로 열거한다. 서양 문헌작성의 경우 여기에서 규정한 형식 이외의 것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에 따른다.

나. 저자는 저자수와 관계없이 모두 표시한다. 영문 이름의 경우에는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첫 글자만(예: Kim, H. K.) 표시한다.

다. 동일한 저자가 같은 해에 낸 다수의 논문을 참고했을 경우에는 출판년도 뒤에 영문 소문자를 써서 구별한다.

예: 2005a,

라. 단행본(연수회 교재, 발표회 교재 및 검사도구 포함)의 경우:

(1) 국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1: 이승환(2005). 유창성장애. 서울: 시그마프레스.

예 2: 심현섭, 신문자, 이은주(2004). 파라다이스-유창성검사(Paradise-Fluency Assessment, P-FA). 서울: 파라다이스복지재단.

(2) 영문: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년도). 책제목(이탤릭체).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예: Van Riper, C. & Erickson, R. L.(1996). *Speech correction: An introduction to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Needham Heights, MA: A Simon & Schuster Co.

마. 단행본 속의 논문 또는 단원(chapter)의 경우:

(1) 국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단원]명. 편집자[기관]명(편). 단행본명. 발행지: 발행처.

예: 김영태(2000). 조음음운장애 치료를 위한 임상이론. 한국어언어청각임상학회

(편). 말·언어임상 전문요원교육: 조음음운장애 및 실어증 치료기법의 임상적 적용. 서울: 한학문화.

(2) 영문: 위와 동일하나 출처인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아래 예와 같이 단행본저자의 이름을 표기하되, 단행본 저자가 1명인 경우에는 “(Ed.)”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Eds.)”로 표기.

예: 예: Beeson, P. & Hillis, A.(2001).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of written words*. In R. Chapey(Ed.), *Language intervention strategies in aphasia and related neurogenic communication disorders*(4th ed.). Baltimore, MD: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3) 단행본이 재판(再版)이상 : 단행본명 뒤의 ()안에 “3판” 혹은 “3rd ed.” 등으로 표기.

바. 정기간행물(학술지) 속의 논문의 경우:

(1) 국문: 저자(출판년도). 논문명. 논문수록 학술지명, 권(호) 번호, 페이지.

예: 장빛나, 김수지(2009). 타악기를 이용한 음악 활동이 유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3), 213-226.

(2) 영문: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논문수록 학술지명(이탤릭체), 권(호), 페이지.

예: Kim, S. J.(2010). Music therapy protocol development to enhance swallowing training for stroke patients with dysphagia. *Journal of Music Therapy*, 57(2), 102-119.

사. 학위논문의 경우

(1) 국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위명. 학위수여대학.

예: 김민정(2004). 아동용 한국어 조음검사의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2) 영문 : 저자(출판년도). 논문명(이탤릭체). 학위명, 학교명 및 학교소재지.

단, 석사논문은 “master's thesis”로, 박사논문은 “doctoral dissertation”으로 표기한다.

예: Sim, H. S.(1996). Kinematic analysis of syllable repetition and sound prolongation in children who stutt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아. 번역서의 경우

- (1) 원저자명(출판년도). 번역서명[원전의 제목을 알고 있는 경우에 표기]. (역자명).
 번역서의 출판지: 번역서의 출판사명.
 예 1: 정옥란(역)(1993). 음성과 음성치료. 대구: 배영출판사.
 예 2: 이승복, 한기선(공역)(2000). 의사소통 과학과 장애: 과학에서 임상실습까지. 서울: 시그마프레스.

자. 연수회, 특강 또는 학술대회 자료의 경우

- (1) 저자명(발표된 년도). 발표제목. 자료명. 발표장소.
 예 1: 윤미선, 이봉원(2005). 한국어 어휘 특성에 따른 단어인식 검사에 대하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전북대학교, 전주.
 예 2: Pae, S. & Yoon, H. J.(2005). Reading miscue analysis of the Korean second grader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ASHA) annual conference. San Diego, CA.

차. 기관이 저자인 경우:

- (1) 국문 : 기관명을 저자로 명기(발행년도). 단행본명. 발행도시명: 기관명에 준하여 “동부”, “동 협회”, “동 학회” 등으로 표기.
 예: 문화관광부(1999). 교과서의 어휘 분석연구 -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서울: 동부.
 (2) 영문 : 단행본명을 이탤릭체로 표기. 발행처가 저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발행 도시명: 을 적은 후에 “Author”라고 표기.
 예: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1).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th ed.). Washington, DC: Author.

6. 표, 그림 및 부록

- 가. 표, 그림 및 부록에는 일련번호를 각각 붙이되, < >를 사용한다. 표와 그림은 본문 안에 삽입하고 부록은 참고문헌 뒤에 삽입한다.
 예: <표 1>, <그림 1>

나. 표 및 부록의 제목은 상단 왼쪽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 중앙에 붙인다.

다. 표, 그림 및 부록을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때, 표와 부록의 경우에는 하단 왼쪽에, 그림의 경우에는 하단 중앙 제목 밑에 출처를 명기한다.

라. 부호를 사용할 때의 글씨체 및 띄어쓰기는 다음과 같다.

- (1) p , F , t 는 신명조체의 이탤릭체로 쓴다. 단, M , N , SD 는 신명조체의 정자체로 한다.
- (2) 부호 사이는 반 칸 띄어 쓴다(예: $p < .001$, $F(1,129) = 2.71$, $t = 4.52$).
- (3) *는 윗 첨자의 형태로 통계표 안의 t 값과 표 밑의 p 값을 제시할 때 쓴다.
(예: * t , * $p < .05$)

마. 유의확률을 나타내는 p 값은 표 하단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기재한다. (예: $p = .003$)

7. 초록

가. 한글 논문의 경우

- (1) 한글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한글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 (2) 영문초록: 10줄 내외의 영문초록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 (3) 핵심어: 3-5개의 핵심어를 한글초록과 영문초록 밑에 쓴다.

나. 영문 논문의 경우

- (1) 영문초록: 10줄 이내의 한 문단으로 된 영문초록(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앞에 첨부한다.
- (2) 한글초록: 1쪽 이내의 한글초록(한글제목, 한글이름, 한글소속 포함)을 별지에 작성하여 논문 맨 뒤에 첨부한다.
- (3) Key Words: 3-5개의 핵심어를 영문초록과 한글초록 밑에 쓴다.

〈별첨 4〉

한국통합치료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통합치료학회(The Korean Society of Interdisciplinary Therapy)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치료학의 발전 및 회원의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당해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심리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연구 활동
3. 학술지 발간
4. 학회발전을 위한 교육
5. 국내외 학회와의 유대
6. 회원의 권익보호 및 친목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상담심리, 놀이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가족치료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일반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준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관련 전공 석사과정 중인 자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2. 정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소유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평생회원은 5조에 관련된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가 제시한 일정한 구비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 하여 자격관리 위원회의 심사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으로서 정회원이 운영 재직하는 기관 및 치료전문기관으로서 본 회의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으로 한다.

제 7 조 (입회 절차)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원서 제출과 함께 입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
2.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3.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권리
4. 본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본 학회의 각종 출판물을 받을 권리
6. 기타 학회에서 인정한 권리

제 9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석 및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본 학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3. 본 학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제명)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학회의 회장이 제명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 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총무 : 1명
4. 감사 : 2명
5. 학술 및 편집위원회 위원장 : 1명
6.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 : 1명
7. 학제간 연구위원회 위원장 : 1명
8. 학교교육위원회 위원장 : 1명
9. 임상치료위원회 위원장 : 1명

제13조 (임원의 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는 집행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집행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여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총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관장하며 학회를 책임 운영한다.
4.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집행위원회에서 위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집행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집행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제4장 기 구

제17조 (기구의 종류)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 회
2. 집행위원회
3. 상임위원회

제18조 (총회)

1. 총회는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1)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보고
 - 4) 규약 및 제 규정에서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 5) 기타 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
2. 총회는 그 기능의 일부를 총회 의결을 통하여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학술 및 편집위원회 위원장,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 학제간 연구 위원회 위원장, 학교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상치료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 한다.

2.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 1) 회장과 감사를 총회에 추천한다.
 - 2) 준회원, 정회원, 평생회원, 기관회원의 자격을 심사 및 승인한다.
 - 3) 각종 규정 및 지도감독을 한다.
 - 4) 중요사업을 계획, 심의한다.
 - 5)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건의한다.
 - 6) 본 학회의 운영을 총괄 조정한다.
 - 7) 기타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3. 감사는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4. 기타 집행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5. 제 19조의 모든 사항은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제20조 (상임위원회)

- 1) 학술 및 편집위원회
 - ①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② 임무: 학술지 발간 및 학술발표, 세미나 등 주관 및 교육
- 2) 국제교류위원회
 - ①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② 임무: 국제 교류 및 협력 주관 및 관리
- 3) 학제간 연구 위원회
 - ①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② 임무: 음악, 언어, 놀이, 가족, 상담심리 등의 다양한 치료분야간의 통합치료 모델 연구
- 4) 학교교육위원회
 - ①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② 임무: 학교교육 관련분야 연구
- 5) 임상치료위원회
 - ① 구성: 위원장, 위원 약간 명
 - ② 임무: 학교이외의 임상현장 관련분야 연구

제5장 회 의

제21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갖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집행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에서 투표권은 정회원, 평생회원에게 있다.

제22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평생회원의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정족수에 포함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평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 (총회의 특례)

1.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집행위원회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집행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6장 재 정

제25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학회운영 수익, 및 기타 찬조비 등으로 충당한다.
2. 회원 자격별 회비(입회비, 연회비, 및 평생회비 등)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하고 총

회의 인준을 받는다.

3. 본 학회 회원으로서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자격은 회비 납부 시까지 정지되며, 미납회비(당해년도를 포함한 3년분 미납 연회비)의 납부와 동시에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4.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5. 본 학회 재정의 모든 입출금은 본 학회가 보유한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26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정관은 2008년 11월 1일부로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강순미(백석예술대학교)

편집위원 : 심혜원(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통합치료연구 제6권 제1호

2014년 8월 30일 인쇄

2014년 8월 30일 발행

발행처 : 한국통합치료학회

발행인 : 선우현(한국통합치료학회장)

(우) 120-728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명지대학교 경상관 4716호

Tel: 02-300-0881 / E-mail: anita0610@naver.com

인쇄처 : 동 문 사

이 학회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통합치료학회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